

복음,
복음에 합당한 삶
[로마서 묵상]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4
“예수 그리스도의 종” (1:1-7)	5
바울의 마음 (1:8-15)	9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1:15-17)	13
하나님의 진노 (1:18-32)	17
하나님의 심판 (2:1-16)	22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2:17-29)	25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3:1-18)	31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습니다. (3:19-31)	35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1) (4:1-8)	40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2) (4:9-17)	43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4:18-25)	47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5:1-5)	50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 (5:5-11)	54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5:12-21)	58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 (1) (6:1-11)	62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 (2) (6:1-14)	66
순종의 종 (6:15-23)	69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7:1-6)	73
율법의 작용 (7:7-13)	77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7:14-15)	82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8:1-11)	86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복	91
“빛진 자” (1) (8:12-17)	95
“빛진 자” (2) (8:12-17)	98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8:18-25)	101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8:26-30)	105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8:31-39)	109
끊을 수 없는 사랑 (9:1-13)	113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9:14-29)	117
“부딪히는 돌” (9:30-33)	121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10:1-15)	124
종일 손을 벌리시는 예수님 (10:16-21)	127
“그럴 수 없느니라” (1) (11:1-10)	132
“그럴 수 없느니라” (2) (11:11-24)	136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11:25-36)	140
예배-증인들 (12:1-2)	144
변화 (12:1-3)	151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12:3-8)	157
교회의 분쟁 원인 (12:6, 16)	162

사랑의 공동체 (12:9-13)	164
“숫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12:14-21)	168
정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13:1-7)	173
서로 사랑하십시오. (13:8-10)	178
이 시기를 아십니까? (13:11-14)	184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십시오. (14:1-12)	189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 (14:13-23)	195
우리의 뜻을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15:1-6)	201
“너희도 서로 받으라” (15:7-13)	206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 (15:14-22)	210
나누는 것은 돌보는 것입니다. (15:22-29)	214
저의 싸움에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218
추천할 만한 사람 (16:1-2)	222
함께 섬기는 자들 (16:21-23)	226

결론	232
-----------	-----

서론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sound doctrine)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목사님들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딤후 4:3).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목사님들은 오직 바른 교훈과 일치하는 것을 말하고 성도님들을 가르쳐야 하는데(딤후 2:1) 성실하게 그렇게 하지 못하고(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바른 교훈의 합당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면 성도님들이 따분해하고 심지어 싫어할까봐 염려되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바른 교훈을 잘 모르고 그 바른 교훈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해서도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바른 교훈을 말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딤후 2:1).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9). 그러면서 우리는 그 바른 교훈을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2:1). 그리하므로 우리는 그 바른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1:9).

성경 로마서는 바른 교훈(sound doctrine)과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의 구조를 보면 로마서 1-11장은 “교리”(doctrine)를 말씀해 주고 있고 12-16장은 “적용”(application)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 구조는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로마서는 바른 교훈과 그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지침서입니다. 특히 그 바른 교훈의 핵심은 “복음”(the gospel)이고 그 바른 교훈의 적용은 “복음에 합당한 삶”(conducting yourselves in a manner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이기에 성경 로마서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선택하여 묵상하고 설교한 후 다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알기를 원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헌신하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성도님들에게 그 복음을 입술로 전하며 또한 삶으로 가르치길 원하였기에 로마서를 선택하여 매 주일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런 후 이렇게 몇 년이 지나서 기회가 주어져 다시금 로마서 묵상 원고들을 정리하고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 묵상 원고들을 사용하시사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하시므로 말미암아 복음 중심된 그리스도인들로 조금이나마 더 세움을 받는 계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된 삶을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2015년 8월 20일,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으로 세움 받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로마서 1장1-7절 말씀 묵상]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 고린도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헨드릭슨).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로서 그 공동체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분배한다면 이 공동체는 주로 대부분이 이방인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바울은 로마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1-11장).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12-16장). 즉, 로마서 편지의 주제는 바로 “복음”입니다(Moo). “복음”(gospel)이란 명사와 그것의 동사인 ‘복음을 전하다’(evangelize)라는 단어가 특히 편지의 서론 부분(cf. 1:1, 2, 9, 15)과 결론 부분(15:16,19)에 나와 있습니다. 즉, “복음”이란 단어가 편지 전체의 틀(frame)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편지의 서론 부분인 1장1-17절의 한 부분으로서 1-7절(“머리말과 축복”)을 우리는 한 3 부분으로 간략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1) 첫째 부분은 1-6절로서 편지를 쓰는 바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고, (2) 둘째 부분인 7절 상반절은 이 편지의 수신자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3) 마지막 부분인 7절 하반절은 바울의 축복이 적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1장 1-7절 말씀 중심으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 소개를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에게(7절) 편지를 쓰면서 서두에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종”(헬라어: 둘로스)이란 말에는 3가지 의미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3가지 의미는 바로 “겸손”(humility), “헌신”(devotion) 그리고 “순종”(obedience)입니다(더글라스 무). 바울 당시 헬라, 로마 세계에 있어서 “종”이라고 하면 그 주인에게 일개의 가구와 같았습니다(박윤선). 어떤 역사가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 가구 가운데 세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말할 줄 모르는 것 (낮이나 호미 같은 것), 또 하나는 반병어리(개와 같은 것), 또 다른 하나는 말하는 노예라고 합니다(인터넷).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은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은 노예로서 주님이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고자 겸손히 헌신한 자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좀 “노예근성”이 필요하다고 생

각했습니다. “노예근성”이란 무엇입니까? 노예근성이란 노예생활에 길들여진 나머지 주인의 사고와 가치관을 철저히 내면화해서 자신의 의지와 계획 없이 주인의 말대로 움직이고 스스로 행동하지 못하는 성질을 말합니다(인터넷). 주로 우리는 “노예근성”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약 430년 거하면서 노예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노예근성에 젖어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최악 된 이 세상에 살면서 죄의 노예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므로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주신 결과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고전7:22).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겸손히 헌신하여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써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 여기서 “사도”(an apostle)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란 말로서 “보냄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에게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행9장): 종생(conversion)과 위탁(commission). 즉,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났고(영생을 얻었고) 또한 주님께 사명을 받아 파송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상에 보내심이 된 자였습니다(박윤선). 그에게는 하나님의 권위(authority of God)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사도의 권위로 자기가 복음을 전하여 개척하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을 가리켜 바울은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서 두 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 첫 번째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6절).

여기서 로마 신자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한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로마 에 있는 신자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박윤선).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소속감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사단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더 이상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2) 두 번째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입니다(7절).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들입니다’(6절)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신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7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고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신 고로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고전6:11).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즉,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 가서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마28:19-20).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롬11:13) 자기를 보내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데 겸손히 헌신했습니다.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완수하는데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습니다(행20:24). 바울이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복음 증거하는 일, 과연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란 헬라 원어로 “유양겔리온”, 즉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이 좋은 소식, 즉 복음은 하나님께서 성경(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써(2절)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예수님의 인성)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예수님의 신성).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서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자 십자가의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롬4:25) 삼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께서서는 아무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는 바울을 부르시사(“은혜”) 사도의 직분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순종케 하셨습니다(5절).

저와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최고의 소식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고 전파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사실입니다. 종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며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들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바울처럼 “사도”는 아니지만 그 “사도”란 단어의 의미처럼 우리 또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주님의 종들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뤄드려야 합니다. 그 주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좇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길 기원합니다(7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내신 주님의 뜻대로 복음 전파에 힘을 쓰길 기원하면서)

바울의 마음

[로마서 1장 8-15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글로나마 표현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글을 쓰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글로나마 편지를 써서 사랑하는 이에게 보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약 10년 전 이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즉, 글로나마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쓰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편지를 쓴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저희 집 첫째 아기 주영이가 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을 때 라디오 방송국에서 사랑하는 이에게 편지를 공모한다고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영이에게”란 글을 쓴 기억이 납니다. 그 때 저는 그 마음의 편지를 병든 아기가 받아 읽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아기를 향한 아빠의 마음을 글로나마 표현하여 라디오 청취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1장8-15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을 향한 자기의 마음을 글로나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편지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표현된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되어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그러면 로마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3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감사하는 마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믿음이야 말로 바울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였습니다(Moo). 사도 바울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었습니다(5절). 물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어 순종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주로 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인해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어 로마 성도들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관심은 항상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예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살전3:4) 시험하는 자들로 인하여 시험 당하여 환난 중에 요동할까 바, 그러므로 그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 바(5절) 걱정 되어(3, 5절) 참다못하여 그들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감사한 것은 디모데가 바울에게 돌아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므로 말미암아(6절) 바울은 위로를 받았습니다(7절).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 있으므로 “이제는 살리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8절)

바울의 생명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연관 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였던 이유는(1:2) 하나님을 향하는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 에 퍼진 고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8절). 이러한 바울의 관심을 생각할 때 목회자인 저의 관심은 여러분의 믿음이여야 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처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여러분이 어디로 가나 퍼질 때 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 또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이 성경 문답을 열심히 하시고, 매 주일 오후 성경공부나 한 달에 한번 구역 성경공부에 참석하셔서 열심히 배우심에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10장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가운데 믿음의 진보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 감사가 더욱더 넘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기도하는 마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9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도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왜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쉬지 않고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들을 향한 자기의 관심과 사랑을 하나님께 기도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면 로마 성도들에 관한 바울의 관심은 특별히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고 성장하기 위하여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에 관하여서는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 것처럼(행16:14) 그들 중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2) 저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길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하였습니다(롬1:10). 다시 말하면, 그는 로마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8절) 그들을 마지막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조차도 바울은 ‘주님의 뜻이라면’ 자세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자세로 하나님께 기도 드려

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뜻이라면’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의 기도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로 바뀝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할 때에도 자꾸만 ‘내 뜻’만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간절한 믿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던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11-15절):

(1) 그 첫 번째 이유는, 로마 성도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 주므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견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무슨 신령한 은사”는 초자연적인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우리는 그 초자연적인 것인 무엇인지를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바울은 그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므로 로마 성도들을 견고케 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12절).

(2) 그 두 번째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 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도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여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시도했었지만 길이 막혔었습니다. 그가 그리도 로마 성도들에게 나아가고자 했던 이유는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기 원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열매란 복음 전도의 열매와 신자 자신들의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더글라스 무). 이러한 열매를 맺고자 바울은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3) 그 세 번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뜨거운 소원이었습니다(박윤선). 그러기에 그는 로마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신 “편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바 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

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최고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5장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의 편지”(a letter of Christ)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고후3:2-3).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롬1:6).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7절).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되었다면 그 분께 마음의 편지를 쓰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 우리를 위하여 항상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기도로 표현하십시오.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빛나는 집 예루살렘 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찬송가 541장),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마음을 본받길 기원하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로마서1장15-17절 말씀 묵상]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의 편지를 쓰시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요?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특히 1987년도 5월 대학부 수련회 때 주님께서 저를 부르시면서 주신 요한복음 6장 1-15절 말씀대로 오병이어와 같은 저를 받아 주시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길 계속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해 오는 중에 저는 저의 삶과 또는 저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쓰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불타는 전도자와 위로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저는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위로자 바나바처럼 그 사랑으로 제 이웃을 위로하며 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태껏 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과연 나는 주님의 사랑의 불타는 전도자와 위로자로서 제대로 살아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볼 때 주님의 위로의 도구론 조금 쓰임 받는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불타는 전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영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마치 병어리처럼 살아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괴롭고 또한 부끄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해 볼 때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1장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생각할 때마다 저는 어떻게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선포했을까 라는 의문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만일 저처럼 여러분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움”하면 한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이 자기의 소유가 무가치하여 부끄러워할 수 있고, 둘째로는, 사람이 자기의 성질이 겁약하여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부끄러움을 잘 타는 성격)(더글라스 무). 저나 여러분이나 성격상 부끄러움을 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소유한 것이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 부끄러워하는 경유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소유한 믿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나요? 즉,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여 여러분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로 창피함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나 가족, 친척 식구들로 인하여 부끄러워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혹시 지금 우리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므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을 부끄럽게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쁜 소식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최고의 소식을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겠습니까? 그 최고의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최고의 소식인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우리가 이미 목상한 로마서1장2-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가리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사(3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그 예수님(4절)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 최고의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16절). 어떻게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은 복음에 대한 완전한 신뢰(complete confidence)가 있었기 때문입니다(더글라스 무). 이 복음에 대한 완전한 신뢰란 오늘 본문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바로 “...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 ...”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16절). 즉, 바울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전적으로 신뢰하였었기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있는지요? 많은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나누고 싶어 하지만 좀 머뭇머뭇 거리는 이유 중 하나는 복음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우리 안에 불신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로 전하기보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나 능력을 의지하여 이런 저런 사람의 말로 전도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저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그대로 전하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그대로 전하기를 기피하는 것은 복음이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복음 자체를 지혜롭게 담대히 잘 전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한 심령이라면 언젠가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게 하실 것인데 우리는 이러한 단순한 믿음(simple faith)이 부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전도는 사람의 인위적인 방법이 더 많이 사용되어 전도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람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을 받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나타날 것입니다(16절). 여기서 “모든 믿는 자에게”란 말씀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므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4:5)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선택한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던 헬라인이던 어느 나라 어떠한 민족이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복음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신 것처럼(행16:14)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까? 그 대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유는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the righteousness of God)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의”란 공의로 우신 하나님께서[Justice (an attribute of God)] 하나님과 원수가 된 연약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마땅히 심판 하셔야 하지만 오히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의 죽게 하시고 그를 무덤에서 부활케 하시므로 말미암아[an activity of God(the saving action of God)]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것[a status given by God]을 의미합니다(더글라스 무).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 있으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전가(impute)되어 이젠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의로운 삶, 즉 올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된 관계도 아닐 뿐더러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다 사함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 즉 올바른 일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사람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17절).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의 그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로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더욱더 충만이 일어나길 기원합니다.

엘튼 추루블러드(Elton Trublood) 교수는 ‘재건을 위한 준비’라는 소책자에서 신앙의 참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신앙의 참 원수는 ‘비 신앙’이 아니라 ‘희미한 신앙’이라 말하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에 참여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가 교회다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부끄럽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인터넷). 그렇습니다! 교회는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고통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불타는 전도자와 위로자가 되길 간절히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복음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쓰길 기원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로마서 1장 18-32절 말씀 묵상]

언젠가 한국 드라마 중 뜨는 드라마 혹은 참 인기 있는 드라마 중 “엄마가 뿔났다”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인 이순재씨, 강부자 씨, 김혜자 씨, 백일섭 씨 등등 나오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작가 김수현 씨가 참 글을 잘 쓰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그 드라마를 보면 이상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예를 들어 한 대가족에 며느리인 김혜자 씨가 시아버지인 이순재 씨와 남편인 백일섭 씨에게 허락을 받고 집을 나가 아파트에서 혼자 살면서 사는 모습 ㅎㅎ) 현실적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 그들의 말들을 들을 때가 공감도 될 때가 없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주 교회에 오는 기독교 신문 중 “크리스천 헬러드”를 보니까 어느 한 목사님의 글이 있어 읽게 되었습니다. 읽게 된 이유는 그 글 제목이 “성도가 ‘뿔났다?’”였기 때문입니다. 그 글 내용의 핵심 권면 내용은 제 생각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분노(화)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좀 흥미를 갖게 글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원래 뿔 낼 수 없는데, 의로운 일에는 분을 내야 한다 ... 신약성경 원어에는 ‘뿔났다’를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단어가 있다. 각각 의로운 분노와 그렇지 않은 성냄을 표현한다”(크리스천 헬러드).

여기서 저는 우리가 종종 낼 수 있는 “성냄”보다 “의로운 분노”, 즉 “의분”에 대하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는 질문은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왜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로마서1장15-17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보기 심히 원합니다’(11절)라고 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기 때문(15절)입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오늘 본문 18절부터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1장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the righteousness of God is revealed)라는 말씀과 오늘 본문 1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가 ... 나타나나니”(the wrath of God is revealed)란 말씀과 비교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즉,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의한 죄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얼마나 이 불의한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맥아더). 다시 말하면,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라고 편지를 쓰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의한 죄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바울은 로마 성도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잇는 불의한 죄인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기를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3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

지를 쓰면서 과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한 3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여기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있으면서도 자신들의 불의와 경건치 않음으로 그 지식을 억누르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자신의 불의와 경건치 않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진리를 억누를 수 있습니까?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므로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또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미련하게 살므로 진리를 억누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시편 14편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리석은(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20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 속에 보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만물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습니다(20절).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양심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원문번역)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9절). 존 칼빈은 ‘자연계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울이다’고 말하였습니다(박윤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계를 통하여 양심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핑계(변명할 수)치 못합니다(20절).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자연계시”라고 합니다. 자연 계시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그가 창조한 우주 만물에 나타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는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천지를 보아도 자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양심을 보아서도 알고 있으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은 일부러 모른 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경건치 아니한 자들과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21절). 스스로 지혜 있다고 말하지만 미련하게 되었습니다(22절). 이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5절을 보십시오: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경건치 아니하고 불의한 자들,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꿉니다. 이들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그 지식을 억제하므로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미려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버리고 오히려 거짓 것을 추구하고 좃습니다. 그 결과 조물주이신 하나님보다 사람인 만든 것들(“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들은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23절). 한 마디로 말하면, 이러한 자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죄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돈을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지성과 감정 및 의지, 즉 전 인격적으로 돈 사랑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기독교적인 용어로 포장해 본다면 현대 기독교인들인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보다 물질의 복을 더 사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물질을 우상화하여 조물주인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며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죄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6-27절을 보십시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임한 보응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끄러운 음욕(“욕심”)에 내어 버려두셨습니다(26절). 즉,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신 것입니다(24절). 그것은 남자나 여자 다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는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순리대로란 남자가 여자를 또한 여자가 남자를 향한 성욕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 임한 보응은 순리대로가 아닌 역리대로, 즉 여자가 여자에게, 또한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을 품는 것을 가리킵니다. 한 마디로, 동성연애의 죄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 죄의 결과요 하나님의 보응, 진노입니다.

요즘 전통 결혼(Traditional Marriage)을 옹호하는 그룹과 동성 결혼(Homosexual Marriage)을 옹호하는 그룹과 계속 충돌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동성 결혼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길가로 쏟아져 나와 꺾말을 들고 데모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종종 TV 뉴스를 통해서도 보았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동성연애 자체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과 동시에 동성연애자들을 향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태도는 그들을 적대시하기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6장9절과 유다서 7절에도 나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하는 자나”(고전6:9);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

로 거울이 되었느니라”(유1:7). 여기서 “남색”과 “다른 색”이란 동성연애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성경은 동성연애가 불의요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죄를 우리는 미워해야 하지만 그 죄를 범하는 동성연애자들을 적대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는 미워하지만 그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회개하여 동성연애의 죄를 끊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8절을 보십시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 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는 말씀은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실용적으로 가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양심적으로 알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눌러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을 돌리는 않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두는 것이 무가치하다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리를 억누르고 그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의 가치관이 무너져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고 그 지식을 하찮게 여기므로 결국 거짓에 미혹되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며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는 여자에게 음욕을 품는 역순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셨습니다(28절).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이들을(18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 주신 하나님(24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두신 하나님(26절)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셨습니다(28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임하되 그들의 상실한 마음, 즉 잘못된 마음 그대로 내어 버려두셨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28절). “곧, 인간의 본분과 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박윤선). 그 최악 된 행동들의 목록이 오늘 본문 29-3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목록을 한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불의, 추악, 탐욕, 악의 - 사람이 자기에게 대한 취급을 잘못하는 범죄; (2)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 사람이 남들과 경쟁하는 관계로 생기는 범죄; (3) 수군수군하는 것과 비방 - 사람이 남을 언론으로 해하는 범죄; (4) 하나님을 미워함과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 사람이 자기를 높이는 범죄 그리고 (5) 부모를 거역함과 우매, 배약, 부정, 무자비 (의리를 반역하는 범죄)(박윤선). 이러한 죄를 범하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 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고 있습니다(3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뿔나셨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화는 우리 성도들이 종종 내는 성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화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분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내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기 때문이요(18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기 때문이요(25절) 또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28절). 우리는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던 자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진리를 막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사탄의 역사를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로마서 2장 1-16절 말씀 묵상]

우리는 이미 로마서1장18-32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18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25절),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28절) 나타난다고 배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범하는 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21절),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는 것(21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교만(22절), 우상 숭배(23절),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것 (24절), 즉 동성연애의 죄(26-27절) 그리고 모든 불의(29절)입니다. 여기서 모든 불의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 수군수군(29절); 비방, 하나님을 싫어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30절); 우매함, 배약함, 부정함, 무자비함(31절); 이러한 일을 행하면서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함입니다(32절)

오늘 본문 로마서2장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로마서1장18-3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 모든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된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을 보기 심히 원합니다(1:11), 그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15절)라고 편지를 쓰면서 로마서1장18-32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더니 오늘 본문 로마서2장1-16절에서는 “하나님의 판단” 즉,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로마서2장16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즉,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좀 의아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1:16)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든 불의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눌러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며(1:18ff) 또한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5, 16절).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만(1:16)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로서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1:16-17)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불신자들의 죄악된 삶을 본받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불신자들의 죄악된 삶이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로마서1장18-32절에 나와 있는 모든 죄를 가리키지만 특히 오늘 본문 로마서2장1-11절에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죄’

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판단”이란 선악에 대한 단순한 분별이 아니라 “아주 용서 없이 정죄함”을 말합니다(박윤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의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과 다릅니다. 즉, 하나님의 판단은 진리대로 하시는 공평한(impartial) 판단인 반면에 사람들(죄인들)의 판단은 불공평한(partial) 판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 하시면서 판단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11절). 우리 사람들은 외부적 형태, 곧 빈부, 귀천 같은 것으로 인한 편견에 의지하여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대우합니다(박윤선).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절).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은 그들에게 용서 없이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섞여 있었는데 특히 유대인들이 영적 우월감 속에서 이방인 형제들을 정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울은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1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3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유대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서도 불의로 진리를 막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를 싫어하므로 온갖 죄를 범하는 이방인들(1:18-32)을 판단하면서(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면서) 자기들도 같은 일을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2:1, 3)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였습니다(1:32). 문제는 이러한 판단을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할 때에 유대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성령의 하나 됨을 지키기보다 교회의 통일성을 무너트리는 분쟁과 분열을 가지고 올 수 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이 유대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자신들)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마7:3). 이러한 유대인 신자들의 외식적인 행위로 인하여 로마 교회는 충분히 분쟁 속에서 분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분쟁과 분열은 어느 교회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포함해서요.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남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서로 유대 신자들처럼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만 보고 판단(정죄)하면 결국 그러한 우리들의 외식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는 다툼과 싸움, 그러므로 분쟁과 분열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저런 말을 한 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을 한 후 제가 그 형제 또는 자매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면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제 모습 속에서 제가 제 자신도 제대로 그 가르침을 지키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7장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본문 로마서2장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결코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서 우리 자신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기에 우리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며 핑계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3절).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 하시”기 때문입니다(6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 고”(7절) 또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습니다(10절). 그러나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실 것입니다(8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입니다(9절).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4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으면서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며 죄를 범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 길이 참으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오길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 신자들처럼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행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5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13절).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 선을 행하라’입니다(7절). 즉, 우리 모두는 형제를 외모로 보고(11절) 정죄하며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1, 3절) 하나님처럼 진리대로 공평하게 판단하면서(2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서로를 대해야 합니다(4절).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하나 됨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남을 생각으로도 판단하지 말아야 할,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생각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2장 17-29절 말씀 묵상]

21세기의 선지자로 불렸던 에이든 토저(A. W. Tozer) 목사가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란 책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기 진단법”이란 제목의 장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토저 목사는 진짜 그리스도인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기 발견을 위한 7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주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한 번 여러분도 자신에게 이 질문들을 이 시간이 던져 보십시오: (1)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2) 둘째,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3) 셋째, 나는 내 돈을 어떻게 쓰는가?, (4) 넷째,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5) 다섯째,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6) 여섯째,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그리고 (7) 일곱째,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가운데 토저 목사는 “누가 가짜인가?”를 8개로 말하였습니다:

1. 가짜는 인스턴트이다.

“인스턴트 기독교는 한 번의 신앙의 행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의 영적 전진을 갈망하는 욕구를 억압한다.

2.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변화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3.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 우리는 우리가 잠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껴야 한다. 반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말해준다.”

4. 가짜는 행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으려 한다.

“행함을 통해서 용서를 얻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상쇄하려면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할지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5.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우리가 교리적 지식 없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진리는 명문화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 곧 신조이

다”

6.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신학이다. 우리는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신학을 연구해야 한다.”

7. 가짜는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

“우리는 감정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주어진 우리의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8.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

“진리는 새와 같이 때문에 날개 하나로는 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한쪽 날개를 아래로 쏘서 박은 채 다른 한쪽 날개를 미친 듯이 퍼덕이며 날아보려고 애쓴다.”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8-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영적 우월감 속에서 이방인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판단”)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과연 참된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표면적 크리스천, 즉 겉으로 보기에만 크리스천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겉으로 보이게만 그리스도인’(표면적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성경 로마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참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면적 유대인들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칭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에게는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권리(자격)가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자칭하였습니다. 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별한 권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한 3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택 받은 백성에게 소속돼 있음, 율법을 의지함, 그리고 하나

님과 특별한 관계(더글라스 무). 그러므로 표면적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영적 우월감 속에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였습니다(17절). 이러한 자랑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면적 (겉으로 보기에만)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만의 특권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를 교회 안에서 행사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깊은 마음속에서는 자신들의 영적 우월감, 교만함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는 것을 은근히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 영광,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람들의 칭찬을 갈급해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교회 안에서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1:18-32)와 하나님의 심판(2:1-16)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둘째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2장 19-20절을 보십시오: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표면적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소경 된 자, 어두움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린아이를 지도하며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들이 소경 된 자, 어두움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 그리고 어린아이인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무지의 원인은 영적 우월감 곧 교만이었습니다.

이렇게 교만이란 우리를 맹인으로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뒤돌아보며 자아 성찰하게 하지 않고 영적 교만은 다른 성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고집어내어 은근히 자기 자신과 비교하여 자기 자신이 그 성도보다 더 훌륭한 성도임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좀 성경 안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도 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지함 속에서 겸손하여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이 있는 반면에 좀 성경도 알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영적 우월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다 보니까 교회의 평안을 깨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3) 셋째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독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제가 도독질하느냐.” 유대 신자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그 율법을 의지하였고(17절) 또한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줄 착각하였습니다(18절). 그 착각 속에서 그들은 교만함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데로 도독질 하

지 말라(21절),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미워하라(22절) 등등 가르치는 것은 좋아했지만 그들은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면책하였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23-24절). 겉으로 보기에 유대 신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가르치는 교훈도 성경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그들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된 원인은 남은 잘 가르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성경적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이전에 부모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 하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면 자녀들 마음에 감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교훈은, 남을 공홀히 여기는 동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능욕에서 난 것이다. 그런 교훈은, 피교육자에게 감화를 주지 못하고 도리어 반감을 일으킨다.”

(3) 마지막 번째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외면적 생활을 위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에 대해 말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13절).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는 “무할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25절).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말하였던 이유는 그들은 특권의식 속에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 받은 백성들의 증표이었기에 그들에게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율법과 할례를 자랑삼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그들은 영적 우월감 속에서 교만하게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외면적 신앙생활에 취중 하다 보니 외식적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사람 앞에서 보이고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한 3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 로마서 2장 29절을 보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

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나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셨으므로 이면적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 구원을 얻게 하신 자들입니다. 결코 그들은 율법을 행하므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말하였던 이유는 유대인들은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라는 사실보다 조건적, 즉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보다 인간의 공로를 더 의지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편지로나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들,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2장8-9절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결코 그들은 구원이 자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 아무 것도 자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랑 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2) 둘째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결코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처럼 율법에 대해서나 할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교만함 가운데서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로 떠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결코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입술로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등등 말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들어내는 삶을 삽니다.

만일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좀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빛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닮은 듯 한데 우리의 행동이나 삶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살아 있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3) 셋째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외면적인 생활에 치중하기보다 내면적인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칭찬 받는 것이지 결코 사람에게서 칭찬 받는 것이 아닙니다(29절하).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힘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가꾸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름답습니다.

찬송가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이 찬송가 가사를 보면 “진심으로”라는 말이 20번이 나옵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흑인 영가라고 합니다. 흑인영가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와 얼굴 색깔이 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노예로서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한 흑인 노예들의 신앙적 바람과 정한이 오랜 세월을 거쳐 노래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합니다(인터넷). 과연 노예로서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다 당한 흑인 노예들이 어떻게 유대인 신자들처럼 영적 우월감 속에서 자기들이 진정한 신자라고 말하면서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외면적으로 무엇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 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간절히 마음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바라는 우리 모두가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신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 알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외면이 아닌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참된 신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님을 닮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1-18절 말씀 묵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제자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바로 “자기 부인”(Self-denial)과 “자기희생”(Self-sacrifice)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6:24). 우리는 우리의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좇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으면서 주님을 좇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않고 예수님을 좇으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자기 부인을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실현해야 할 훈련입니다. 또한 우리는 고통과 희생 없이 예수님을 좇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옛 본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자기희생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성경 디도서1장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으로는 그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한 3 가지 위험한 죄악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불신앙’, ‘불의’ 그리고 ‘교만’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불신하며, 우리의 불의는 하나님조차도 불의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만들며 또한 우리의 교만은 영적 우월감과 특권 의식 가운데 ‘내가 당신보다 더 낫다’라는 정신과 자세로 다른 이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18절에서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4, 6, 9 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히 스스로 의롭다 하는 영적 우월감에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세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4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6절), “결코 아니라”(9절)]. 과연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무엇을 완곡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신실하심)을 결코 폐할 수 없다고 완곡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3-4절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찌어다 ….”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특히 영적 우월감 속에서 스스로 의롭다 믿고 있었던 유대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 비해 외부적으로 받은 은혜는 많지만 그 은혜조차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여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받은 외부적인 은혜는 오늘 본문 1-2절에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할례”(1절)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자부심, 즉 그들이 자랑으로 삼았던 것은 율법과 할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이 두 가지 은혜를 문제는 유대인들은 내적화하지 못하고 그저 외적화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상징적인 요소인 할례와 더불어 모세를 통해서 율법도 받았지만 그 율법을 지키므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공로에 대한 자부심과 영적 우월감 및 교만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직 의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하는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죄 목록은 불신앙과 불성실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 성도들에게 가상 질문을 3절에서 말하면서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불신앙)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고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에만 좋아하고 있다고(2:21)(불성실) 할찌라고 여러분의 불신앙과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결코 폐할 수 없습니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불성실함을 들춰내실 때에 그러한 저의 불성실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계속 신실하시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신실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이 사실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불성실 할지라도 그분은 일항 미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외적으로만 결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처럼 보이려고만 힘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결코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스스로 의롭게 여기면서 영적 우월감 속에서 남을 판단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은 거짓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거짓됨이 더욱더 들춰져야 합니다(롬3:4).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마음, 이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들춰져야 합니다(렘17:9).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4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발견 돼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을 내면화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faith)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faithful)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다고 완곡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5-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우리의 거짓됨이 들춰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이 들춰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 참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가 들춰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의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5절).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고 하여 하나님께서 불의 가운데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바울의 논리는 만일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므로 하나님도 우리처럼 불의 편에 속하셔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생각 한다면(5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롭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6절). 또한 우리의 불의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여(7절), 우리는 불의한 것을 그대로 계속해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하시니 좋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나 바울은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7절), “저희가 정죄 받는 것이 옳으니라”(8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다고 완곡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 18-32절에서 목상했듯이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18절),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사람들에게(25절)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28절) 나타난다고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28절) 곧 “모든 불의”(29절)를 하게 하셨습니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함,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부정함, 무자비함’(29-31절). 이러한 불의를 행하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여 우리가 계속 불의를 행해서는 아니 됩니다(8절).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불의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게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5-6절). 우리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불의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시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불의하실 수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습니다(롬4:25).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1:17).

셋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결코 나은게 없다고 완곡히 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9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특히 유대인 신자들을 염두해 두고 편지를 쓰면서 “그런즉 유대인

의 나음이 무엇이”냐(1절)고 질문으로 오늘 본문 로마서 3장을 시작하면서 결론적으로 9절에 와서는 “우리가 나으뇨 결코 아니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으므로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나은게 하나도 없다고 로마에 있는 신자들, 특히 유대인 신자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오늘 본문 10-18 절에서 “기록된바”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록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모든 불의를 행하므로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가운데서 이방인 형제들을 판단(정죄)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바울은 당신들도 별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들은 외면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나 할례를 통하여 특권의식을 갖고 이방인 형제들을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 죄 아래 있으므로 결코 우리가 누구보다 낫다고 자랑할 수 없다고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토리 키 재기”라는 속담 아시죠? 인터넷 사전을 보면 그 속담의 뜻은 “정도가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서로 다툼을 이르는 말, 비슷비슷하여 견주어 볼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인터넷). 다 거기서 거기인데 서로가 서로를 비교하면서 교만한 가운데서 영적 우월감이나 특권의식을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며 공동체의 화목을 깨서는 아니 됩니다. 결코 제가 여러분보다 나은 것도 아니요 여러분이 저보다 나은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다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님을 믿어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시다. 우리 공로 하나도 없습시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을 받았습시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느 누구가 도토리 키 재기 하면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회를 몇 년 다녔다니, 교회를 얼마나 봉사했다니 하면서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랑하며 자기 자신을 높일 수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빌2:3).

여러분, 우리의 불성실함이 하나님의 성실하심(미쁘심)을 결코 폐할 수 없습시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다른 형제, 자매보다 더 나은게 없습시다.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영적 우월감을 경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습니다.

[로마서3장19-31절 말씀 묵상]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였던(엡2:1)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살리시사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 받은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에 초점을 맞추다가 나중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일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라는 개념보다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위험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 488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송에 1절 가사와 후렴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1절)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 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후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많은 축복들 중 빼 놓을 수 없는 축복은 바로 “칭의”입니다. 여기서 칭의란 다른 말로 하면 ‘의롭다하심’입니다. 그러면 의롭다 하심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법정인 용어로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유죄한 자인 저와 여러분을 아무 죄 없다고 무죄판결을 내릴 뿐만 아니라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므로 이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혁주의 칭의론의 핵심은 ‘칭의’가 ‘하나님의 법적 선언’임을 강조 하는데 있습니다. 곧 의롭다고 ‘인정하다, 선언하다’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이와 같이 보면 크게 소극적 측면과 적극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죄에 대한 형벌, 진노에서 해방됨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완전한 의로움을 소유한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9-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2 가지 핵심의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진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율법으로는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자기나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오히려 율법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23절)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9절). 이 사실을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 죄 아래 있는 자들로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하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 된 사람이 원수 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켜 나아가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이러한 자부심 속에서 그들은 율법을 의지하며 자랑하였습니다(2:17).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율법을 어기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2:12ff.). 그들은 하나님을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2:18) 교만한 가운데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20절) 율법을 가르치기는 좋아했지만 자기들 스스로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21절). 오히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그 율법을 범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23절).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고 있었습니다(24절). 그러므로 바울은 이러한 유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들의 행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하심을 받고자 하였던 유대인들,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하심을 받고자 하였던 자들에게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명백하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20절)라고 말한 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28절).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두 번째 핵심 진리입니다.

그 두 번째 핵심 진리는 바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하심을 받을 수 없고(20, 28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의 행위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줄 우리가

인정하노라”(28절).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세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1) 우리가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그들이 의롭다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행위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행위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세우시사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25-26절). 그러면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하심을 받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인이 자기 스스로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율법을 지키므로 의롭다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죄인이 율법을 완전히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범한 자가 인간의 노력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만일 그럴 수 있다면 분명히 우리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를 죄를 범한 인간 자신이 스스로 회복했다면 분명히 우리 사람들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절대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7절). 그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7절).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24절).

성경은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엡2:8-9).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 무슨 공로가 있다고 자기 자신(의 행위)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도 선물이요 구원(영생)도 선물이요 다 자격 없는 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삼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 하셨습니다.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므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원수 되었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2)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22절을 보십시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공동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님

의 공동체 가운데 차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도들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선민족이라는 사상 속에서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들을 차별화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특히 영두해 두고 편지를 쓰면서 그들이 의롭다하심을 받은 것은 율법을 행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24절). 또한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는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분명히 말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특별히 자랑하면서 공동체 안에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자시 자신을 차별화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차별화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형제, 자매들로부터 자기 자신을 차별화하는 자들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보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특성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에게 초점을 맞추기보다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험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29절).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에게나 동일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그들이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다 의롭다 하십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로다 하심을 받는 것,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라, 민족, 성, 빈부 차이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하여 차별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3)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은 모든 믿는 자들은 율법을 폐하기보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러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주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율법주의를 생각해서 부정적인 선입관 속에서 구약의 율법을 경의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시대, 즉 새 언약 시대의 사람들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여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생활은 균형을 잃은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균형적인 신앙생활은 율법을 폐하기보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입니다. 즉,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또한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삶을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삶입니다. 물론 여기서 율법을 지키는 삶이란 의롭다하심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드려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드려야 하는 삶은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간략하게 말한다면 예수님의 두 계명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을 믿어(faith)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신실한(faithful) 삶, 곧 예수님의 두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제 가운데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서로 간에 차별화 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고 있다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더욱더 힘써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오직 은혜로서만,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길 기원하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1)

[로마서 4장 1-8절 말씀 묵상]

여러분, 행복지수(HQ)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HQ = GQ \times AQ / BQ$ 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GQ”는 감사지수(Gratitude Quotient)이고 “AQ”는 성취도 지수(achievement Quotient), 그리고 “BQ”는 원망지수(Blame Quotient)라고 합니다. 1998년도에 영국 런던정경대학(LSE) 대학에서 세계 54개국을 대상으로 HQ(행복 지수)를 측정된 결과 방글라데시가 1위, 한국은 23위를 차지했다는 것이 한때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들어 아실 것입니다(인터넷). 그 후에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 상담사 코언(Cohen)이 만들어 2002년 발표한 행복공식(즉, 행복지수)에서도 1위를 방글라데시가 차지했다고 합니다.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지수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이유를 경제학자 레이야드는 두 가지 요인으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너무 쉽게 더 좋은여건에 적응해 버린다는 사실, 두 번째는 상대적 소득 수준. 로스웰과 코언이 행복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는데 아래의 내용들입니다(인터넷):

- (1) 첫째, 가족과 친구 그리고 자신에게 시간을 쏟아라,
- (2) 둘째, 흥미와 취미를 추구하라,
- (3) 셋째, 밀접한 대인관계를 맺어라,
- (4) 넷째,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라,
- (5) 다섯째, 현재에 몰두하고 과거나 미래에 집착하지 말라,
- (6) 여섯째, 운동하고 휴식하라, 일곱째, 항상 최선을 다하되 가능한 목표를 가져라.

행복에 관한 책 중에 “행복지수를 높여라”란 책이 있습니다(저자: 슈테판 폴케). 이 책은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로, 과거, 가치, 일, 인간관계, 목표, 부의 측면에서 행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대한 가치관과 경험에 대한 해석은 다르지만, 행복한 사람들에게 공통되는 몇 가지 행동양식과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행복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과 만날 수 있는지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의 일곱 가지 이야기(인터넷):

- (하나) 과거: 과거는 항상 현재 속에 존재한다.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직시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 (둘) 가치: 행복한 사람들은 삶의 가치를 찾아내어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
- (셋) 일: 행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이루어낸다,
- (넷) 인간관계: 행복한 사람들은 가족, 친구, 동반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고 견고하게 유지할 줄 아는 능력이 있다,
- (다섯) 목표: 행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
- (여섯) 부: 행복한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대한 분명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일곱) 행복의 비밀: 행복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3장 19-31절 말씀 묵상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행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의롭다하심을 얻는다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로마서4장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한 예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는다는 진리를 좀 더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왜 그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에 유대인 성도들은 “육신으로”(1절) 조상인 아브라함을 자랑하며 존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특히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행위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바울이 “성경” 즉, 창세기15장6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15장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보라 …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인지 결코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하심을 얻었다면 그는 분명히 자랑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결코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롬4:2).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가운데 ‘일하는 자’와 ‘일하지 아니한 자’를 비교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칭의)에 대하여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4-5절). 즉, 일하는 자에게는 그 샅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빛으로 여기듯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하심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것을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즉 아무 공로도 없고 자격도 없는 경건치 아니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자기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압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이지 결코 그의 행위를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5절).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3:27). 아니 자랑할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결코 인간의 행위로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에 우리는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설명 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6절에 와서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시편 32편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영국의 ‘런던 타임즈’가 영국인들을 대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상위에 뽑힌 네 사람은 뜻밖

에도 소박한 서민들이었다고 합니다. 1위는 바닷가에서 멋진 모래성을 완성한 어린이, 2위는 아기를 목욕시킨 후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어머니, 3위는 멋진 공예품을 완성하고 손을 터는 예술가, 4위는 죽어가는 생명을 수술로 살려낸 의사였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 중 재벌 귀족 정치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글을 쓴 사람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행복은 보람 있는 일을 성취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선물이다. 행복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는다”(인터넷).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무 일한 것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행복”. 과연 아무 공로도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7-8절을 보십시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어떠한 죄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까? 공공연하게 내놓고 범한 모든 패역한 죄(7절),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가는 행위로서 연약하여 짓는 모든 죄(7절), 그리고 인생의 정도를 좇지 아니하는 모든 윤리적인 죄악(8절)(박윤선)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용서함을 받되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치워버린 바 되었으며 또한 가리운 바 되었고(7절) 그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도 죄로 여기지 않으시고 도말하셨습니다(8절).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치워버린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가리운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샘물과 같은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김을 받았습니다(찬송가190장).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입니다. 아무 행한 것이 없는 경건치 아니한 죄인(5절)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샘물과 같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히 씻김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 (2)

[로마서 4장9-17절 말씀 묵상]

우리는 이미 로마서4장1-8절 말씀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배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 받은 자,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하는 자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행복 공식”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행복 지수 = 오직 은혜 +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 + 오직 믿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 수록, 그 분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할 것이고, 베풀어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면 할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행복감을 느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4장9-17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말씀을 한 2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마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행복은, 할례 받은 여부를 구별치 않고 생긴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도 혹은 무할례자에게도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랑 삼았던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받는 대상자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율법의 행위인 할례를 받은 것이 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0-11절에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은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반면 그가 할례 받은 사실은 창세기 17장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칭의는 할례 때문에 얻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하시므로 아브라함의 의롭다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

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 나라”(롬4:11-12).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할례 받기 전에 그를 의롭다 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던 로마에 있는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 성도들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 성도들이나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은(12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참된 행복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섞여 있음을 염두해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3:22). 즉,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므로(1:17)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는 선언을 받음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유대인 성도들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할례를 행하므로써 하나님의 선민족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서 명한대로 할례를 행하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방인 성도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을 차별한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차별하는 최악된 경향을 지적하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최고의 축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조차도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음에 있어서 할례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세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구약에 할례를 신약의 세례와 비교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례 자체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는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세례는 그저 할례처럼 칭의된 표입니다(11절)(박윤선).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이지 결코 그 표 자체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으므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께 구원 받고 또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등등 식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세례 받은 자들로

서 우리가 세례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세례를 받지 못한 자들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가르쳐 주듯이 할례나 무할례나, 즉 우리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에 적용해 볼 때 세례를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부분은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3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상의 후사”란 한 4가지로 생각 할 수 있습니다(박윤선): 첫째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창12:3), 둘째로,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리라는 말씀(17:4-5), 셋째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리라는 말씀(22:17), 그리고 넷째로, 아브라함이 우거하는 가나안 일경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17:3)는 말씀. 이 네 가지 약속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자들로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사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이 천국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살 수 있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영원한 기업을 얻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므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유대인들의 말처럼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또한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면 바울은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4절). 다시 말하면, 만일 ‘영원한 기업을 얻으리라’ (“세상의 후사”)는 약속이 율법을 지키는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도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기 때문입니다(15절). 다시 말하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를 면케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박윤선).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3:20, 23).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지를 깨닫게 해 줍니다(23절).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공로로는 영원한 기업, 곧 천국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율법을 100%은 완전히 지키면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후사가 되는 것, 천국을 얻는 것은 은혜에 속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6절). 다시 말하면,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며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인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모두 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16절)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

나눔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17절).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7절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박윤선): “기록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1)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받치고자 단에 자식을 묶어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면서 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즉,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독생자 예수님을 못 박혀 죽게 하신 후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2)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즉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해변의 모래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그는 믿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

[로마서 4장18-25절 말씀 묵상]

성경 민수기 13-14장을 보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명의 족장들 중 두 사람인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보고하였지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의 보고를 하였습니다. 즉,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은 강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장대한 자들로서 그들이 올라가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치지 못하리라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과 가나안 땅 거민들과 비교해 볼 때 자기들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13:28-33). 그러므로 그들의 악평을 들은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면서(14:1)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2절). 그러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서로 말하였습니다(4절). 이 소리를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 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11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범죄요 불신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겨야 할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찬송가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를 즐겨 부릅니다. 특히 저는 후렴 가사를 좋아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대답을 히브리서11장1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믿음이란 ‘믿다, 신뢰하다’라는 뜻을 가진 말로써 그 대상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줍니다. 신약에 나타난 믿음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를 깨닫고 완전히 인정하는 것,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전적인 의존을 말하는 것이요, 구원의 하나님인 주님께 대하여 의심이나 변함없이 신뢰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러나 우리가 만들어 내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계시하신 것에 대한 우리의 전적인 응답인 것입니다. 믿음이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내적인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하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어거지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낸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는 아니 되나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일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 믿음은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불가능을 가능한 길로 열어 놓습니다(인터넷).

우리는 이미 로마서 4장9-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17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 2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1)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받치고자 단에 자식을 묶어 놓고 칼로 내리치려고 하면서 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습니다. (2)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즉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과 해변의 모래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8-25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18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접한 바랄 수 없는 상황, 즉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1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 아브라함이 접한 바랄 수 없었던 상황, 소망이 없었던 상황은 자기나 자기 부인인 사라나 의학적으로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불가능한 상황,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있다는 소망이 끊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주님 안에서 소망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소망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란 오늘 본문18절(창15:5 인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네 후손이 이같이리라.” 아브라함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자기나 아내 사라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 그의 자손이 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바다의 모래 알처럼 번성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바랄 수 없는, 참으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19절) 오히려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19-20절을 보십시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보통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믿음이 약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마음이 더욱더 흔들릴 텐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충분히 설득 당하였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 하였으니.” 여기서 ‘확신 하였으니’라는 말씀을 “확신케 되었으니”란 말씀입니다(박윤선).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견고히 믿도록 충분히 설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견고한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 간주되었습니다(22절).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자기 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23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입니다(24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들이 바울 시대 로마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성경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믿음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에서 부활하심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줌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25절).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칭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과 영원한 기쁨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으므로 우리의 소망이 더욱 커지길 바랍니다(찬송가539장 3절). 그리고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뵈을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엿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4절).

오직 믿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충분히 설득당하길 기원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로마서 5장 1-5절 말씀 묵상]

오늘 본문 로마서5장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결론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은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입니다. “우리”,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바울 시대 때 로마에 있는 (유대인, 이방인) 성도들이나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에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축복)는 무엇인지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에게 칭의의 결과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은 그 칭의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한 2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칭의의 결과는 “화평”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4:24)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다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케 된 것(reconciliation)을 가리킵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습니다(10절).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는 “평강의 길(3:17)을 알지 못하였”고 그 길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가 죄 아래 있었을 때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었습니다(16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지 않고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고 그러한 관계에서 있었던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9절). 우리가 죄 아래 있었을 때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11절),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12절). 아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는 내적 평강도 없었던 것입니다(2:10).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시사(3:25)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사 하나님 자신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은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기 이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죄 아래 있었던 우리를 영원한 파멸과 고생의 길에서 건지시사 평강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나갔던 자들이었는데, 영

적으로 죽어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4:25).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케 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대답을 고린도후서5장18-19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케 된 자들로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18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써(17절) “화목하게 하는 말씀”(18절)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들은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롬1:16). 바라기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이 직책을 신실하게 감당하여 죄 아래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케 되는 역사가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칭의의 결과는 “소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확실하고 즐거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확실하고 즐거운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가 서있는 자리, 즉 하나님과 화목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며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칭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the glory of God)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이르지 못하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행위로 인하여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롬3:21-23). 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8:30). 즉,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고전15:51) 더 이상 욕되지 아니하고(43절), 약하지 않으며(43절),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54절)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것(빌3:21)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벧후1:4). 바로 우리의 확실하고 즐거

운 소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하고 즐거운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는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합니다(롬 5:3)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내세적 영광의 소망으로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다(박윤선). 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3-4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환난”이란 헬라 원어는 “들리보”란 동사에서 왔는데 그 뜻은 ‘누른다’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접하는 이 세상에서의 환난은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함은 인내력을 배양해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의 삶 속에 환난이란 우리로 하여금 오는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견디어 나아가게 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모든 장애물을 헤치고 나가는 분투의 정신을 주기에 유익합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인내는 인간의 인간답게 만드는 귀한 힘이고, 환란은 인내를 생산하는 고마운 어머니이다. ... 환란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승리에 이르게 하는 돌다리이다”(박윤선). 바울은 인내는 연단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 환난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이룰 뿐 아니라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인격이 시험을 받아 더욱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환난이라는 통로를 지나가면서 인내력을 갖게 되며 더 나아가서 우리의 부족한 인격들이 다듬어 지면서 더욱더 말씀 인격화되어 갑니다. 그리할 때 이 세상의 환난을 통하여 우리는 더욱더 오는 세상의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내다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난을 통하여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을 내다보면서 즐거워하는 신자들은 결코 실망치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5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오는 세상의 확실한 소망은 우리가 당당히 또는 부끄럽지 않게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박윤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기 때문입니다(5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난 중에 더욱더 오는 세상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소망을 당당히 또는 부끄럽지 않게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시사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셨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세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그 소망이 하나님의 풍성한 큰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물 붓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풍족히 주시사(골2:28, 박윤선) 우리를 영원히 멸망과 파멸 속에서 건져 주시사 죽음에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요13:1) 우리는 이 세상의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더욱더 오는 세상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8:17-18).

지난 주 금요일, 한 형제로부터 이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주님 안에서 한 동역자인 강도사님 한 분을 위한 기도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강도사님은 제가 한 2년 전 체장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 기도해오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제 작년에는 한국에 있는 이 강도사님 집에 다른 형제들과 찾아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다 함께 그 강도사님 몸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한국 나아갔었을 때도 한두 번 만나서 식탁 교제를 나누면서 헤어질 때 그 강도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몽클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지난 주 금요일 그 강도사님의 친구가 저에게 이 메일을 보낸 내용을 보니깐 암이 전이가 되어서 폐, 위, 간까지 다 번졌다고 합니다. 배에 복수가 계속차서 식사도 못할 뿐더러 항암치료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소식을 접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강도사님,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 그 분의 자녀가 된 강도사님,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그 강도사님 마음에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주님의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길 기원합니다. 더 이상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생할 필요가 없는 강한 몸,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소망하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견디며 인내하는 가운데 연단되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영원한 나라의 산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저 요단강 건너편, 찬란하게 보이는 집,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어떠한 역경과 환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 몰아닥칠지라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이 바라보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 안에서 주어진 화평과 소망의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5장 5-11절 말씀 묵상]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확실한 소망,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소망이 있습니다(롬5:5). 그 소망이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욕된 몸, 약한 몸, 썩을 몸을 입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고전15:43, 54).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홀연히 변화될 것입니다(51절). 그 때 우리는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것입니다(빌3:21). 우리는 “신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할 것입니다(벧후1:4).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가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가질 수 있는 소망입니다(롬5:5).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 안에서 택함을 받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확실한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는 믿음 외에(1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2, 5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습니다(5절).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본문 로마서 5장 5-11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오늘 성경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겸손히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6, 8, 10절). 이 사랑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3:16). 저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한 3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에 예정하신대로 나타날 시기에(“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기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하였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한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선을 전혀 행할 수 없는 무기력과 무능력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더글라스 무). 한 마디로, 우리는 욕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박윤선). 그리고 욕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는 “욕체의 욕심”(갈6:16)을 따라 살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 욕체의 욕심 속에서 “욕체의 일”(19절)을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그 욕체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19-21절을 보십시오: “욕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 이것이 바로 구속받지 못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예정하신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과연 우리가 어느 누구의 사랑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과 절대로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롬5:7). 이 세상의 사랑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율법의 규정을 준수하는 자로서 자기가 존경하는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이들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인, 즉 사랑으로 행하는 자로서 그 선인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그 선인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7절)(박윤선). 그러나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 욕체의 욕심 속에서 욕체의 일을 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구속해 주시사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파멸과 고통의 길을 걷지 않고 평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시32:6). 과연 경건한 자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경건한 자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자복하므로 사죄함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 곧 “의인”인 저와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마음에 부은바 된 것입니다(5절).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5장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연약하여 욕체의 욕심 가운데 욕체의 일을 행하면서 불경건한 삶을 살며 죄를 범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사랑, 즉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9-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 마음에 부

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 하며, 허물과 죄로 죽었던(엡2:1)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화목 제물로 죽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시는 중에”(롬3:25) 죄인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그의 피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은 모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9절). 또한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3절).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5:12). 즉,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6:23). 이렇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기 전, 다 죄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1:18, 5:9) 영원한 죽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소망 없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망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그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랑할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 바로 독생자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최고의 사랑 표현을 연약하고 경건치 아니하며 죄인들이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다 치워버린바 되어 하나님의 눈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시32:1). 이러한 자를 가리켜 시편 기자는 복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시32:1).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 이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6절), 즉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8절)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습니다. 이 때에 우리 죄인들의 생각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8:7). 우리 인간은 범죄 후 하나님과 원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육체의 욕심 가운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원수 관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10절).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11절). 우리는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5절). 우리는 이 확실하고 부끄럽지 않은 당당한 소망이 예수님 안에 있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3절).

이 기쁨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부은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화목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 연약한 자들(경건치 아니한 자들),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계명 중 하나는 바로 마태복음5장44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찬송가404장)을 울면서 감사, 감격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고 김창혁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므로 주님을 찬양하면서(시63:3)]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로마서 5장 12-21절 말씀 묵상]

여러분에게 영어 시험 한 문제를 내겠습니다. 영어 단어 “present”이란 무슨 뜻입니까? 한국어 의미가 무엇인지요? “present”이란 단어는 한국어로 “현재”도 될 수 있고 “선물”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의미를 생각해볼 때 한 다미로 현재 하루하루의 삶을 선물로 생각하자는 교훈을 받습니다. 저는 특히 한 2주 전 기도해오던 한 동역자가 주님 안에서 잠들었다 소식을 전해 듣고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안에서 enjoy해야(즐거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며, 그래서 우리는 현재(present)를 선물(present)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5장15절은 “선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선물을 넘치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이 선물에 대하여 4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 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넘치게 주신 이 선물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3:9), 좀 더 설명하자면, 우리는 경건치 아니한 자였고(5:6), 죄인이었고(8절) 또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이었기에(10절) 하나님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맞게 선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선을 온전히 행하는 자들은 하나도 없습니다(롬3:12).

둘째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6, 8, 10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선물이 은혜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 하시므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19절). 이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

시기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이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를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이 얼마나 보배롭고 귀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자기의 보배로운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생각해 봐야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이 세상에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가 있고 보배로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이 보배로운 선물은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히 로마서5장부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결과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1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당당한 소망이 있으며(2, 5절) 또한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었다(5절)고 말하였습니다. 그런 후 그는 그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6-11절까지 말을 하다가 오늘 본문 12절부터는 “한 사람” 첫째 아담과 또 다른 “한 사람”이신 마지막 아담 예수님과 대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19절)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가되어 다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12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이 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13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습니다(14절). 결국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롬1:18ff)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습니다(3:16). 그런데 이렇게 소망 없이 영원히 멸망하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추어 또 다른 “한 사람”, 즉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은 첫째 아담과 같지 않습니다. 첫째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였지만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19절). 또한 첫째 아담은 그의 범죄로 인하여 심판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죄에 이르렀지만(16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시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16절). 그리고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지만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15절).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넷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영생”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1절을 보십시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비록 첫째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마지막 아담의 죽기까지 순종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8:1). 그 이유는 우리는 더 이상 첫째 아담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16, 18절).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즐겁게 바라보는 확실하고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2, 5절).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영생을 그저 내세의 영원한 생명이라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현재에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란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곳은 요한복음입니다. 헬라어로 “영생”은 “조에(life) 아이오니오스(eternal)”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조에”(생명)라는 말과 “아이오니오스”(영원한)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영생”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인터넷): 이것은 첫째로 시간적으로 “끝없이 지속되는 생명”을 의미하고, 둘째로 질적으로 “인간의 삶과는 다른 신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란 말에는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이란 의미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신적인 삶이란 의미를 둘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영생”의 의미는 공관복음처럼 “내세에서 누릴 영원한 축복”도 의미하지만 그보다 “현재”에 누리는 축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을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며, 그 축복을 주님 안에서 현실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현재에 우리가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하여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를(요17:3) 나누는 가운데 주시는 내세의 축복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성령님의 성화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현재 부분적으로 누리는 영생의 축복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부분적으로나마 맛보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의 축복은 평안입니다. 비록 평화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부분적으로나마 영생의 축복인 하나님의 평강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롬10:9) 이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내세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래 전에 미국에서 일어난 실화라고 합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 에게는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어린 소년의 이름은 라이언 화이트(Ryan White)였습니다(인터넷). 라이언은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을 잘못해서 그만 에이즈(AIDS)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변함없이 너무나 밝게 학교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였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그 후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었습니다. 그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네게 아무것도 해 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걸요. 이 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세상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위대한 선물, 영생을 선물을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최고의 축복인 영생을 누리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평생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 (1)

[로마서 6장1-11절 말씀 묵상]

이미 우리는 로마서 5장 12-21절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영생임을 배웠습니다. 이 영생의 선물을 받길 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어(롬10:9) 이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내세에서 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오늘 이 영생의 축복을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자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음(4:25)을 믿으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축복을 받은 분들은 이 영생의 축복은 내세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도 부분적으로나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고 계십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성화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축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의 은사를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가운데 천국에서의 사랑의 삶을 부분적으로나마 누리고 계십니까? 또한 평화가 없는 이 세상에 살아가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든 영생의 축복을 부분적으로나마 이 땅에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5:15).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될 수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성경 로마서 6장1-11절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생이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을 한 2 가지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말씀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산다는 것은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은 죄에 거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더 이상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5:21).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죄가 더 이상 영생을 얻는 자들을 주관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6:14). 이제 영생의 선물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죄나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6:9).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 수 있는 예는 창세기 4장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열납하시고 가인의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시므로 말미암아(4-5절)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던(6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르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는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동생인 아벨을 죽였습니다(8절). 이렇게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삶, 다스릴 수도 없는 삶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죄가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였습니다. 죄가 왕노릇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치우쳐 한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지도 않았습니까(3:9). 아니,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을 행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하심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부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6:2). 달리 말한다면,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6절)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고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것을 알려면 시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장례식에 참석하여서 사늘한 시신으로 관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면서 살아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숨을 거두고 관에 누워있는 시신을 보면서 그 사람은 숨을 거두고 죽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께 약 2,000년 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해주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흘려 죽으심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증명해 줍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3, 4절),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4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한 마디로 예수님과 연합함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써(10절) 우리의 옛 사람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우리와의 관계도 죽은 것처럼 결국 단절된 것입니다(박윤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본문 6-7절 에서 이렇게 분명히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우리의 옛 사람, 예수님 믿기 전에 육에 속한 사람, 육체의 욕심 속에서 육에 일을 하면서 죄를 범하던 저와 여러분의 옛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죄가 또한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며 주관하지 못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한 신자들은 이미 옛 사람이 죽었기에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

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찬송가202장):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 “주의 보혈 능력있도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입니까? 이것을 바울의 신학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한 앞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미”(Already)와 “아직도”(Not-yet)라는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 때는 죄를 짓지도 않을 뿐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영광스러운 영적인 강한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까지는 우리가 "이미"와 "아직도" 사이인 교회 시대(Church Age)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와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승리의 교회요 또한 전투적인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까?

(1)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마 공로 및 자격이 없는 경건치 못한 자요, 죄인이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고자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임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2) 둘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의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화목케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3) 셋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씀(5:20)을 잘못 이해하여서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다는 것을 깨닫고자 더욱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요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2절).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신앙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자 죄와의 단절된 생활을 하고자 힘씁니다.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 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한 자들로서 죄가 자기 자신을 주관하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죄를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명심하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 송장이 다’라고 우리 자신에게 외치십시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죄가 더 이상 사망 안에서 왕노릇할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러한 가운데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할 때에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가끔 말하던지 듣는 말 중에 ‘죽은 사람처럼 조용히 살자’라는 식으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로서 죄와는 멀리 떨어져서 사십시오. 비록 죄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먹으려고 가까이 다가와 달려들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싸워 이기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 이상 헛되게 하지 않길 기원하면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 (2)

[로마서 6장 1-14절 말씀 묵상]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박 아무개’ 리스트, 고 ‘장 아무개’ 리스트해서 여러 사람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는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한 리스트에는 뇌물을 받은 전 정권 핵심 인물들이 조사를 받는 것 같고 또 다른 리스트에는 한 연예인의 문건들로 인하여 그 문건들에 적혀 있던지 관련된 사람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듯 해 보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난 주 라디오를 틀고 한국 방송을 듣는 가운데 한 사람이 왜 한국에는 이런 리스트 저런 리스트가 많은지 한탄하는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리스트는 어떠한가. 이런 저런 죄악들의 목록이 쪽 기록되어 있는 내 죄악 리스트는 어떠한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시에 그 모든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는 그 리스트를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깨끗이 지워져 있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모든 죄악을 다 지우시고, 다 도말하시며 다 덮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쪽으로, 제 죄악 리스트를 생각하면 두렵고 부끄러우면서 참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 나의 모든 죄악이 다 씻겨지고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드려야 하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로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 합당하게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로마서 6장1-1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영생이란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교훈 중 하나인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며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는 것(1절), 즉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는 삶(14절)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 우리 또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로서 더 이상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옛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합니다(6절).

오늘 둘째로, 로마서 6장1-14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받은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를 교훈 받고자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1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일

니까? 한 2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1)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악된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아니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여기서 “죽을 몸”이란 “죄의 몸”을 가리킵니다(6절). “죄의 몸”이란 칼빈에 의하면 죄와 부패의 덩어리를 가리킵니다(박윤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이상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더 이상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갈6:16) 육의 일(19절)인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5:19-21)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던 삶을 중단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는 자들로서의 합당한 삶은 죄악된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의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3절에서 “...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을 계속 옛 사람의 사는 방식으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한 삶은 최고의 선물인 영생을 받은 자들의 합당한 삶이 아닙니다.

(2) 둘째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지체를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들로서 자신들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 드리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자 같이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 바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다 바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는 죄악된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아니하고 우리 지체를 산 자같이 하나님께 그리면서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자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었기에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게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영생을 부분적으로나마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악된 몸의 사육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죄로 하여금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롬6:14). 그 이유는 우리는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아래 있기 때문입니다(14절). 오히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하여 그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493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을 아실 것입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절)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다; (2절)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절)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4절)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 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후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인,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죄악된 몸의 사역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순종의 종

[로마서 6장 15-23절 말씀 묵상]

지난 주 저는 저희 교회 영어사역에 있는 한 커플의 결혼 예배 때 히브리서11장 23-26절 말씀 중심으로 “믿음으로”라는 설교 제목 아래 한 3가지로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 3가지 권면 중 하나는 믿음으로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의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과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예로 모세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는 양자 선택에 있어서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냐(24절)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이냐, 잠시 최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냐(25절)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냐(25절), 또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택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는 것이냐(26절)라는 양자의 선택 길에서 모세는 믿음으로 바른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양자의 선택 길에서 바른 선택을 합니다. 결코 이쪽, 저쪽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 뚜렷한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구분하는 가운데 바른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바른 선택하는 이유는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모세의 경우는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26절).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좀 선을 분명히 긋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믿은 후 삶의 뚜렷하게 드러나는 다른 점들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믿은 후에 삶에 무엇인가 뚜렷하고 명백한 다른 점들 혹은 달라진 점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을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이 같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다른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착복을 일삼는 돈의 노예였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불의하게 축척하고 강탈한 재산을 원주인들에게 갚고 가난한 이들에게 베풀었습니다. 불의한 삶과 결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가문과 지위, 학문적 성취 등 자신의 화려한 배경을 더 이상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교만함에서 떠나 겸손히 예수님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남편을 여러 명 두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후 더 이상 쾌락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인터넷).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삶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후 삶에 다른 점들이 잘 드러나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후에 삶 사이에 분명하고 명백한 선을 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에 삶 사이에 분명한 선을 거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6장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과 예수님을 믿은 후의 삶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

고 있는 것을 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에게 자신들을 드려 죄의 종이였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에게 순종하므로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의 종”과 ‘의의 종’이란 무슨 뜻입니까?

먼저 “죄의 종”이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을 가리킵니다.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이란 죄의 종 되었던 삶으로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면서 살았던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십시오: “...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부정”한 것에 드렸다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것에 허비했다는 말입니다. 그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것은 바울의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추구하며 살았던 삶을 가리킵니다(1:24ff). 즉,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성적 타락의 삶을 가리킵니다(24절).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부끄러운 욕심” 혹은 부끄러운 정욕에 이끌려 아무 가치가 없는 헛된 성적 타락의 죄를 범하므로 죄의 종노릇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우리 지체를 불법에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죄를 짓고 살았던 삶(요일3:4)이 바로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 죄를 지면서 살았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우리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1:18-21). 그 결과 우리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25절)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 싫어했었습니다(28절).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의 법을 두기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의 법을 좇아 육체의 욕심따라 육의 일을 행하면서 죄를 지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몸을 부정과 불법에 드리면서 살므로 더욱더 불법에 이르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한 마디로, 죄가 우리 삶 속에 왕노릇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16, 21, 23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은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리면서 사망에 이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은 어떠한 삶을 가리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을 가리켜 ‘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롬6:18-19). 과연 ‘의의 종’(18절)의 삶은 어떠한 삶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의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의로운 삶은 어떠한 삶을 가리킵니까? 다시 말하면, 의의 종 된 삶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의의 종 된 삶이란 과거의 죄의 종 되었을 때 행했던 일들을 부끄

러워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20-2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 하였느니라 너희가 그 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적어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양심은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의 양심이 살아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저서 옛 사람의 죄악된 습관대로 죄를 지을 때 양심에 찔림과 더불어 죄책감이 들고 또한 죄를 진 것에 대해 부끄러워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 때문만 아니라 교회 안에 다른 이들의 죄로 인하여서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TV이나 신문 등을 통하여 모 교회 모 목사가 성적 죄를 범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얼마 전 서거한 노 전대통령이 2006년 12월 2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예비역 장성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반대 성명을 두고 이러한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 군대 작전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놓고 나 국방장관이고, 나 참모총장이고 그렇게 별 달고 거들먹거리고 말았다는 것이냐"라고 하며, "그래서 작전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몰려가서 성명내고 자기들이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유행어가 바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합니다(인터넷).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 성적 범죄를 하는 것,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법(계명)을 어기는 것,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굴이 뻔뻔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겔2:4).

둘째로, 의의 종 된 삶이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너희가 법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14절)고 말한 후 은혜 아래 있는 자들로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15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죄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14절). 왜 죄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죄에게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18, 22절). 찬송가 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이 생각납니다: (1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후렴)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음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신자들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서 죄의 종 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셋째로, 의의 종 된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의의 종 된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해야 함을 말해 주면서 그 결과는 ‘의에 이르느니라’(16절), “거룩함에 이”른다(19, 22절)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의 종노릇을 하면 그 열매는 사망이지만(21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그 열매는 거룩과 영생이라(22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른 교훈”을 주셨습니다(딤후2:1).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과 그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벧전2:2)(맥아더). 우리는 이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롬6:17).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의 사욕”을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12절).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롬1:16).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할 것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범하는 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입술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종 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은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과거의 죄의 종 되었을 때 행했던 일들을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겸손과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부끄러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

[로마서 7장 1-6절 말씀 묵상]

여러분들, 혹시 “선목선실, 악목악실”이란 말 아십니까? 이 말의 뜻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열매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뜻입니다(인터넷). 즉,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사과나무인 줄 알고 배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배나무인 줄 아는 것처럼 우리는 열매를 통해 그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선목선실, 악목악실”이란 단순한 진리를 마태복음 7장 17-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의 제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삼가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알아 볼 수 있습니까? 그들의 나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나쁜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들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15절). 이들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만(22절) 그들은 “불법을 행”하였습니다(23절). 이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로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26절).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접붙임 된 자들로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좋은 열매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5:22-23). 저와 여러분 어떠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4-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두 가지 종류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2 종류의 열매를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를 교훈을 받아 순종하므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를 맺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종류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첫 번째 종류의 열매는 바로 ‘사망을 위한 열매’입니다. 이 사명을 위한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맺었던 열매로서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종의 삶을 살면서 맺었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 부정과 불법 가운데 범 죄하며 죄악된 열매를 맺고 살았

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결과는 바로 사망입니다. 이 사망을 위한 죄악된 열매를 맺고 살았던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가리켜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6:15). 과연 율법 아래 있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오늘 성경 로마서7장5절을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삶은 ‘죄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정욕대로 사는 삶이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추구하며 사는 삶(1:24)이요 부끄러운 욕심에 이끌려 순리대로 살지 않고 억리대로 사는 삶(26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는 삶을 가리킵니다(28절). 그 합당치 못한 일들이란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삶,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삶,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우매하고 배악하며 무자비한 삶입니다(1:29-31). 이러한 죄악된 열매를 맺었던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의 결국은 바로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여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습니다(롬7:4).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로마서 6장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즉, 하나님을 위한 열매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에 결과는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맺어 드려야 할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1:6)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7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속했다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세상과 분리된(구분된) 삶을 살아드리는 자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하며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서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드리고 있습니까?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정욕대로 부정과 불법을 행하면서 살아가므로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로는 세상과 구별되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이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생”입니다(6:22-23).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부정과 불법 가운데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 거룩함을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에 결과는 바로 영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위한 열매, 즉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지 못하고 아직도 옛 사람의 삶인 죄의 종노릇하면 죄로 하여금 우리를 주관하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신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이미 당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4절).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바로 “죄에 대하여 죽”임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6:2). 우리의 옛 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의 몸은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게 된 것입니다(6:6). 이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14절). 이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율법 아래 거하면서 옛 사람 때처럼 죄에 얽매어서(7:6) 살아가면서 죄악된 열매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이미 죽임을 당했습니다(4절). 바울은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오늘 본문1-3절에서 결혼 법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 법에 대한 설명이란 부부가 결혼하면 결혼 법에 매인바 되지만(2절)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의 아내는 그 결혼 법에서 자유케 되어 다시 재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3절). 이 결혼 법에 대한 비유의 의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율법에 매인바 되어 율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들이 정죄함을 받았었지만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죽임을 당하였으므로 그 율법에 대하여 자유케 되었다는 말입니다. 즉, 이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이미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6:18, 22).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을 위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열매인 거룩함을 어떻게 맺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6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제 우리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의문의 묵은 것, 즉 율법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길 원하는 마음입니다(맥아더r). 그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대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명을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입니다. 이 거룩한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어드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복음성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젠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 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복음의 열매와 위로의 열매를 맺기를 기원하면서)

율법의 작용

[로마서 7장 7-13절 말씀 묵상]

혹시 여러분 가주 교통법 중 하나인 D.U.I. 즉 Driving Under Influence(음주운전)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 법은 술은 마신 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때 적용이 되는 법이라고 합니다. 만일 술을 마신 후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일 경우 취한 상태에서 운전 하다가 적발되면 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 벌칙이란 예를 들어 1. 48시간에서 6개월까지 구류에 처해 지며, 2. 6개월까지 차량을 압류할 수 있고, 3. 6개월 까지 운전면허를 정지 시킬 수 있으며 ... 등등(인터넷). 전에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그 기록이 7년이었는데 이젠 1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0년 안에 음주운전으로 두 번 걸리면 재범 때는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아마 감옥까지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잘은 모르지만 이 D.U.I. 교통법이 점점 더 엄격해 지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 사고 사망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Mothers Against Drunk Driving (MADD)”(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1980년에 어린 딸이 음주 운전 때문에 사망한 한 어머니의 노력으로 출범한 이 단체는 “음주운전 철폐를 위한 정책개발과 행동강령, 시민 캠페인을 조직해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음주 운전 반대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조직에서 시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Don't Drink Drive”(음주운전 금지)라는 포스터 입니다. 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단체를 통해서 “thousands of anti-drunk driving laws”(수천개의 음주운전 반대 법들)가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인터넷). 왜 이러한 교통법들이 있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교통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인터넷). 이렇게 세상에는 교통법 외에도 수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헌법이라는 것이 있지만 오늘 저는 율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7-13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기 전 율법 아래 있었던 삶, 즉 부정과 불법 가운데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던 삶에 대하여 로마서 6장과 7장 6절까지 말씀한 후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7-13절에 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믿기 전의 율법 아래서의 삶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자 율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한 말씀이란 바로 율법의 작용(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 율법의 작용(기능, 용도)은 무엇입니까? 한 3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율법의 작용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배우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더욱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율법의 작용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바울은 한 법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법은 다름 아닌 십계명 중 열 번째 계명인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출20:17, 신5:21)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으로 “탐내지 말라”는 율법입니다. 과연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부당한 소원을 갖지 말라’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온 율법의 총괄적 요약은 십계명이고, 십계명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사람을 사랑함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하는 부당한 소원이 바로 탐심입니다(박윤선). 그래서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greed is idolatry)라고까지 말하였습니다(골3:5). 더 나아가서, 탐심이란 하나님만 사랑 못하게 하는 것이라 이웃도 사랑 못하게 만듭니다. 아주 사람으로 하여금 욕심에 가득 찬 이기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러므로 탐심은 온 율법의 정신이 사랑과 반대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속에 “각양 탐심”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바울은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도 율법이 가입하므로 말미암아 자기 속 안에 잠재하고 있었던 죄성이 충분히 활동하여 자기로 하여금 감당할 수 없게 각양 탐심을 생산하게 만들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일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인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는 탐심의 죄를 범하면서도 탐심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의식 없이 계속해서 탐심의 죄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탐심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부당한 욕심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우리는 이것이 탐심이 죄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이 탐심의 죄성이 십계명의 열 번째 계명인 탐심하지 말라는 율법을 알면서도 그 법을 어기고 싶은 강한 죄악된 열정을 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 우리 속에서 충분히 자라난 탐심의 나무 열매로 말미암아 결국 실재 행동으로 탐심의 죄를 범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9절). 즉, 바울은 율법이 가입하므로 죄가 율법의 제어를 기회로 하여 발동하므로 말미암아 그 결과 자기는 죄성에게 포로 되어 버려 가련한 상태에 놓여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이렇게 죄성에 포로된 가련한 상태는 죄가 바울을 속였기 때문입니다(11절). 마치 마귀가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 먹게 하므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범죄케 한 것처럼 마귀는 바울이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범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우리를 속이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왜 사단은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죄의 종의 삶의 결국인 사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죽에 만들기 위해서 사단은 속이고 또 속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어졌습니다(요5:24).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의의 종이고 순종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3:20).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죄로 들어날 것입니다(7:13).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들춰 치고 또 들춰질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기 때문입니다(5:20).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넘치는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로, 율법의 작용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 여러분 자신의 죄를 더욱더 많이 그리고 깊이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죄를 숨기던지 아니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사함 받고자 예수님께 겸손히 그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던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숨기면 우리는 더욱더 죄악에 깊이 빠질 것입니다. 탐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는데 탐심의 죄를 범하고 그 범한 죄를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에게 숨기고 살면 더욱더 우리는 똑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며 범하므로 말미암아 결국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까지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가 들춰졌을 때 그 죄를 숨기지 않고 죄 사함을 받고자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실 뿐만 아니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 죄 가운데 건져(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2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롬7, 13절; 3:20)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갈3:24). 결국 율법이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므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깨닫습니까? 율법을 완전히 순종해야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할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함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 외에 우리에게 나타난바 되신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님(3:21)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 죄 사함이 있고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사함이 있고 용서함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비록 죄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속에서 각양 탐심으로 여러 죄악을 범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십니다(10절). 바라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므로 죄 사함 받고, 죄에서 건지심을 받으므로 생명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율법의 작용은 율법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신앙 생활의 지침서가 됩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침서가 되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근대 신자들 가운데 종종 율법의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서 옛 언약 시대 것이기에 신약인 새 언약 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원인을 “율법”과 “율법주의”를 혼동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과 율법주의를 동일하게 보므로 말미암아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던지 심하게는 죄악시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가 율법주의 하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위선입니까? 제일 근본적인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은 바로 구약의 율법을 순종 하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즉, 율법주의는 자기 의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에서는 정해진 규정들과 규칙들을 잘 지키는 자기의 헌신과 노력이 강조됩니다(인터넷). 그러나 이 자기 의에 기초한 율법 주의적 신앙에는 두 가지 위험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적 우월감과 상습적인 죄책감입니다. 율법에 정해진 규정들과 규칙들을 남들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은 영적 우월감을 가지므로 자기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반면에 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상습적인 죄책감을 가집니다(인터넷). 우리는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우월감을 갖게 만드는 율법주의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주의를 경계하면서 우리는 동일하게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 중 하나는 구약에서 율법과 신약에서의 율법에 계속 이어서 지켜야 규정들과 규칙들과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규정들과 규칙들 사이에 혼동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율법은 율법주의와 다른 것입니다. 즉,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키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으로 자기 의에 기초한 것이지만 율법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우리 신자가 지키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기초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7장 7절과 13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7절),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13절). 무슨 말입니까? 율법 자체는 죄악된 것이 아

나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2절).

(1) 율법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의 율법(말씀) 또한 거룩합니다. 그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지 못함을 깨닫게 되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2) 율법은 의롭습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흠 잡힐 것이 없이 바르다는 뜻입니다(박윤선). 하나님의 율법(말씀)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3) 율법은 선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율법을 순종하므로 선행을 행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여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엡 2:10). 바라기는 선한 율법을 순종하므로 우리의 선행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길 기원합니다(마5:16).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을 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의 지침서가 되는 주님의 이종계명을 순종하길 기원하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 14-25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마음속에 사단의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시는지요? 기독교 상담 목사님이신 ‘하인리히 아놀드 목사님이 지은 “생각지킴”(Freedom From Sinful Thoughts)라는 책이 있습니다(인터넷).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안에 수 없이 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그 생각들을 방치하고 놓아두면 그 악한 생각들이 자라나 결국은 최악된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므로 그 생각들과 맞붙어 싸워서 분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자발적으로 즐기는 순간, 우리도 미처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는 어둠의 세력에서 농락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동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에서 출발하기에 최악된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악한 생각을 싸워 이길 것입니까? 이 치열한 내적싸움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저자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승리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의 승리의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생각의 영역에서 내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선한 생각으로 악한 생각을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 선한 생각이란 하나님의 생각이요 성경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내적 싸움에서 이리저리 패하여 원치 않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악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7장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내적 싸움에서 이러한 고백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 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곤고한 사람, 즉 비참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자신의 “사망의 몸” 때문입니다(24절). 이 “사망의 몸”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죄의 몸”(6:6)이요 또한 “죽을 몸”(12절)을 가리킵니다. 이 죄의 몸 또는 죽을 몸은 “옛 사람”의 몸으로서(6절) “몸의 사욕”(12절)과 “죄의 정욕”(7:5)에 쫓는 몸입니다. 그리고 이 옛 사람의 몸이 순종하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은 바로 “죄의 법”입니다(23절). 이 죄의 법은 바울로 하여금 원치 않는 죄를 범하게 만들고 있었기에(15, 16, 19, 20절)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옛 사람의 몸이 순종하고 있는 “죄의 법”과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그의 속사람으로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22절)과 싸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자기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

는데(22절) 자기 지체 속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자기로 하여금 자꾸만 원치 않는 죄악을 범하게 하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곤고하였습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기를 원하고 있는데(19, 21절) 죄의 몸인 육체로는 자기가 원하는 선한 것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바 악을 행하는(19절)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24절)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탄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바울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만 원치 아니하는 죄악을 범하는 우리 자신을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곤고함 가운데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며 괴로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신과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23절).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지금도 계속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든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우리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인 ‘탐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자족)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빌4:11).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달리 우리의 육체는 ‘탐심하라, 예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 + 알파를 추구하라’고 계속 우리 생각과 마음에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시편 기자 아삽처럼 악인의 행동을 보면서 부러워(질시)할 때가 있습니다(시73). 왜 저 악인들은 고통과 고난도 없고 건강하며(시73:4-5),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7절). 그런데 ‘왜 나는 이렇게 궁핍하게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우리는 악인들이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하는 모습을 보면서(12절) 탐심과 욕심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압니다. 아삽처럼 탐심의 죄악된 열매를 맺지 않고 죄를 범치 말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탐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할 때 결국 이 욕심이 자라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도 있습니다(약1:15). 그 때 우리는 양심의 가책 속에서 괴로워하곤 합니다. 그러다가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사랑의 징계를 우리를 치실 때에 우리는 그 징계를 받으므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아삽처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25절)라고 고백하면서 참 예수님 밖에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싸움 또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과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17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20절). 바울은 자신의 내적 싸움 가운데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죄를 범하는 하나의 핑계로 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 중 하나를 성경 고후7장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우리가 우리의 책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범죄

하고 나서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바울처럼 이미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는 죄악을 범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3장2조의 “성화론”에 말하기를 “신자의 성화가 온 인격에 관계되어 있으나, 현세에서는 인격의 모든 부분(영혼도)에 부패가 남아 있으며, 따라서 계속적으로 부조화의 전쟁, 곧 영과 육(몸이 아니고 부패한 성질)의 충돌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거듭난 자도 죄를 범한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 원치 않고 미워하는(15절) 악을 행하는(19절) 자신의 모습을 보기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한탄하였습니다.

과연 바울처럼 곤고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24절)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25절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은 낙망과 좌절과 슬픔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한탄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의 몸에서 건져 내시고 구원해 내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사망의 몸, 죄의 몸을 멸하여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6:6)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길 원하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좇아 하나님께 죄악을 범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죄의 몸을 멸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즐거운 영원한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즐거운 영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5:2).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님 재림 하시는 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고전15:51) 더 이상 욱되지 아니하고(43절), 약하지 않으며(43절),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54절)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것(빌3:21)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벧후1:4)에 참여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하고 즐거운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 영적 전쟁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잘 싸우십시오.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법을 더욱더 즐거워하므로 그 법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죄의 법을 물리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비록 우리 안에 죄성이 죄의 법을 즐거워하여 우리로 하여금 원치 않고 미워하는 악을 자꾸만 행하게 하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선을 행하므로 말미암아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내적 싸움 가운데서 심신이 피곤할 때에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믿음으로 겸손히 바라보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의 충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믿음으로 전전해
나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로마서 8장 1-11절 말씀 묵상]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가나 복음성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찬송가나 복음성가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위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힘든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 형제, 자매들에게 복음성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라는 복음성가의 2절 가사를 인용하여 권면하곤 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이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가사인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내가 언제나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에 전 개인적으로 힘을 얻고 위로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8장1절 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씀 속에서 좀 곰곰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연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뜻을 깨닫고자 여기 저기 주석들과 더불어 이미 묵상한 로마서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그 뜻은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였다’는 뜻입니다(6:5).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였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옛 사람도 십자가에 죽었고(6절)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 나셨을 때 우리도 함께 다시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1-1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 값인 죽음을 대신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부활을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8장1-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한 마디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한 3 가지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제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죄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단어의 헬라 원어인 “카타크리마”는 법정 용어로서 유죄판결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롬5:16, 18). 다시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전가되어(12절)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며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21절). 그러나 둘째 또는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이에게 이제 의롭다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16절). 즉,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19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정죄함이 결코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6:17)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러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나서 부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죄와 사망을 생산하는 법을 새로운 법으로 대체하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법이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8:2)입니다. 여기 두 법의 핵심은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 공로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령님의 법은 바로 은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공로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함의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3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8:2).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4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3절). 결코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여”(3절) 절대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정죄를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부패한 인간성(“육신”이란 뜻)은 율법을 실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율법으로는 죄의 형벌을 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맥아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사 그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취급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마치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신 것입니다(박윤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같은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육신에 정죄를 받은 결과, 우리는 객관적으로는 아무 공로 없이 의롭다하심(칭의)을 받았습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을 좇아 행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4절을 보십시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을 대신하여 그 육신의 정죄를 받으시므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합니다. 여기서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한 마디로, 예수님 믿어 새 사람(새 피조물)이 된 성도(신자)들은 자신의 부패한 인간성을 좇아 옛 사람의 죄악된 삶의 스타일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9절), “그리스도의 영”(9절), 즉 성령님을 좇아 행한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 사람으로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부패한 삶과 불법을 행하며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6절) 육신의 일을 좇아(5절)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입니다(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7절). 이것이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9절) 성령님을 좇아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그 삶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삶입니다(2절). 또 달리 말한다면,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법”(7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5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령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님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령님의 일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좇아 행하는 삶, 즉 성령님의 일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영을 좇아 산다는 것은 성령님을 좇아 사는 삶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6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6절).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육신의 생각을 하며 육신의 일을 도모하며 육신을 좇는 삶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좇아 행하며 살아갈 때에, 즉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길 사모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결과는 바로 “생명(영생)과 평안”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영생)과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좇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영생)과 평안함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그 원인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좇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있다면 분명히 우리

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8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육신을 좇아 행하며 자기의 몸의 사욕과 정욕대로 부패와 불법을 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듯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육신의 정욕을 이겨 나아가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어드리는 자를 가리켜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신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9절).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좇아 살아가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육신을 좇아 부패한 인간성의 지배를 받아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여 그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분명히 여기 11절에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우리 신자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킵니다(9절). 이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입니다. 즉,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라 말합니다.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듯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히9:27). 그러기에 성경 전도서7장2절에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죽음이기 에 산 자가 이 사실에 유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죽겠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또한 몸이 죽은 후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성령님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리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롬8:11).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서 육신의 생각 속에서 육신을 일을 추구하면서 죄악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시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안에 거하시사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게 하시사 영광스러운 영적인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복

[로마서 8장 1-2, 14-18절 말씀 묵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복 중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과 14-18절에 나타난 3 가지 복을 이렇게 수요기도회 때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후 다시금 묵상하면서 적어내려 갑니다. 그 3 가지 복은 과거의 복, 현재의 복, 그리고 미래의 복입니다.

첫째로, 과거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죄함”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단어의 헬라 원어인 “카타크리마”는 법정 용어로서 유죄 판결을 가리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정죄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5:16, 18). 다시 말하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전가되어(12절)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지며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유죄판결을 내려 결국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21절). 그러나 둘째 또는 마지막 아담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의롭다하심을 받았습니다(16절). 즉,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19절).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의인이 된 저와 여러분은 결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까? 그 이유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2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구체적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의 종으로서(6:17)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하나님께 범죄하므로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나서 부터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직 죄와 사망을 생산하는 법을 새로운 법으로 대처하신 것입니다. 그 새로운 법이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8:2)입니다. 여기 두 법의 핵심은 죄와 사망의 법은 인간 공로에 근거하고 있으며 성령님의 법은 바로 은혜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공로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자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행함의 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3장27절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은 바로

은혜의 법입니다. 그 이유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법은 “성령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2절).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케 (믿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받은 복입니다.

둘째로, 현재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을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 안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바 되었습니다(5:5).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8:15).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16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17절).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14절). 지금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을 걷고 있지만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 지금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마7:13, 눅13:24). 그 좁은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지금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하고 계십니다(롬8:17).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은혜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할 뿐만 아니라(빌3:10) 실제로 그 고난에 참여하므로(고후1:7) 우리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길 원하고 있습니다(갈6:1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딤후1:8). 또한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습니다(벧전2:20).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살후1:5).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께서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롬8:26). 그러므로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고난을 견디게 하십니다(고후1:6).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십니다(벧전4:13).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현재 누리고 있는 복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미래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을 가리킵니다(17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핍박”입니다(마5:10-12, 요15:21, 담후3:12).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 그 핍박이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요(요15:18-21),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이요(마5:11),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스려 거짓으로 말하는 모든 악한 말들’(11절) 등을 가리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15:19). 즉,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롬 8:16-17). 이러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18절). 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여기서 고난과 영광의 가치 있음(worthiness)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의 크기와 비교하므로 십자가의 무거움을 가볍게 하므로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칼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에 십자가의 무거움을 장차 분명히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무엇입니까? 한 2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1)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바로 “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쉼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길 권면하면서 19절에 와서는 피조물의 간절한 고대하는 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란 인간을 제외한 세계의 만물들로서 바울은 이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에 피조물들도 “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21절).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죄

의 영향들(effects)에서 완전히 해방되듯이 세계 만물들(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될 것임을 말합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5:12) 피조물 또한 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17절 하반절-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간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피조물들, “허무한데 굴복하”여(20절) 쇠하며 부패해지는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22절). 그러한 탄식과 고통 중에서도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계21:5). 더 이상 만물은 첫째 아담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 그 때에는 더 이상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고통 중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피조물들(세계 만물들)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인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현재의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2)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세계 만물들만 탄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인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릴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롬5:2).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고전15:51) 더 이상 욕되지 아니하고(43절), 약하지 않으며(43절),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54절)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것(빌3:21)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벧후1:4). 바로 저와 여러분의 확실하고 즐거운 소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릴 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복 받은 자,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수요기도회 때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받은 후)

“빛진 자”

[로마서 8장 12-17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빛진 자”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는 주로 “빛진 자”하면 돈을 빌려서 갚아야 할 처지에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18장24절을 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한 임금이 그의 종들과 회계할 때 일만 달란트 “빛진 자” 한 사람이(24절) 갚을 것이 없어(25절) 그 임금 앞에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26절) 하였을 때 그 종의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27절). 그런데 이 일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는 종이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또 다른 종을 만나 “불들어 목을 잡고 … 빚을 갚으라”(28절)하면서 그 다른 종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29절) 했을 때 탕감해 주기는커녕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30절). 그 때 이 다른 종이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였습니다(31절). 주인이 자기에게 빚을 탕감 받은 종을 불러다가 “악한 종이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32-33절)하고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 종을 옥졸들에게 불렀습니다(34절).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35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의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빛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원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함을 받았습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용서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빛진 자 사상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빛진 자 사상이 더욱더 뚜렷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더욱더 들춰질 것이요, 우리의 죄가 들춰지면 들춰질 수록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빛진 자 사상은 더욱더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찬송가410장, 1절)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은혜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에 우리의 빛진 자 사상이 부족하고, 이 빛진 자 사상이 부족하므로 우리는 ‘그래도 내가 좀 쓸모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고 쓸모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전적인 은혜로 사용하시고 계시는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빚을 얼마나 탕감해 주셨는지를 더욱더 깨달아 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빛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답게 살라는 교훈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빚진 자”란 헬라어 원어로는 “채무자”(a debtor)란 말입니다. 이 “채무자”란 단어에는 가능성 있는 두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돈을 빚진 자’란 의미요 또 다른 의미는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 ‘의무가 있는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we are under obligation”(우리에게는 의무가 있습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 마디로, “빚진 자”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1절) ‘의무를 가진 자’(갈 5:3)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이미 바울이 로마서 1장 14절에서 사용하였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로서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인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있었기에 로마에 까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15절). 그리고 그는 고린도전서 9장 16-17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이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에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빚진 자들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빚진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2 가지 중 우선 하나만 생각하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빚진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빚진 자들로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기서 바울이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고 말한 것을 보면 지금 그는 로마서 7장에서 말하였던 내적 싸움 또는 영적 싸움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은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말했듯이(7:22-23절) 지금 그는 영적 싸움에서 육신이 좇는 죄의 법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13절). 우리가 이미 목상했듯이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5절) 그 육신의 생각의 결말은 “사망”입니다(6절).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대로 살면 그 결말은 사망이기에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육신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합니까? 한 마디로 말한다면, 육신대로 사는 것은 죄를 지면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계명,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육신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최대의 두 계명에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이웃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적 싸움에서 육신에게 이겨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안에는 두 종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이 좇는 하나님의 법이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육신이 좇는 죄의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7:25). 지금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22-23절).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법이 우리 안에서 충돌하여 서로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결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한명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 결코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우리는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때가 있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저서 죄책감 속에 허덕이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자꾸만 죄와 싸워 저서 패배의식 속에서 자꾸만 자신에게 '안된다', '나는 결코 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성령의 은사나 기적 행함 또는 열광적인 기도의 몰입이나 황홀경의 체험 등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하나님의 영 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계명)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이끌리면 살아갑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13절).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14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법(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결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으로서 죄의 법에 순종하면서 지속적으로 똑 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지으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4절).

빛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육신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빛진 자답게 살아가십시다.

빛진 자,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빛진 자 사상을 추구하면서)

“빛진 자” (2)

[로마서 8장 12-17절 말씀 묵상]

빛진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는 빛진 자들로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빛진 자들로서 죄를 지면서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롬8:12).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13절).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14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법(계명)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4절).

둘째로, 우리는 빛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이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1)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지난주에 제가 집에서 방문을 잠그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망내 딸 예은이가 방문을 “똑똑” 두드리다가 아빠가 바빠서 문을 열어주지 못하겠다고 하니깐 방문 밑 틈으로 카드를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방문 앞에서 떠난 후 봉투를 열어 그 안에 있는 카드를 읽어 보았습니다. 겉표지에는 아빠인 저를 가리켜 “Friend”(친구)라고 써 놓은 후 또한 “I love you Dad” (아빠 사랑해요)라는 글을 써 놓아더군요. 그리고 카드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책상 앞에 의자에 앉아있고 제 앞에는 컴퓨터를 그려 놓았습니다. 아마 그 아이가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을 상상하고 그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 그림 위에 글을 써 놓았는데 간략하게 나눈다면 ‘아빠가 자기에게 너무 nice해서 자기는 아빠를 사랑하며 아빠를 참 돕고 싶은데 도울 수 없다’고 안타까와하는 심정을 글로 썼더군요. ㅎㅎ 예은이가 아빠인 저를 “I love you Dad”(아빠, 사랑해요)라고 글을 적었는데 그 카드 내용과 그림을 보면서 이 아이가 나름대로 얼마나 아빠인 저를 사랑하고 있는지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이 감사하고 기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젠 더 이상 죄를 범하는 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8:34-36)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습니다. 그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특히 마치 예은이처럼 하

나눔께 나아가 ‘아바 아버지, 사랑합니다. 온 맘과 정성 다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 때(요14:21)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상상해 봅시다. 그런데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서 우리 안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사람의 모습대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면, 그래서 심판의 두려움과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우리의 옛 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사람의 삶 습관대로 거듭 같은 죄를 범하면서 죄에 해방된 삶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실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빛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젠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에는 성령의 증거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8장16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과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까요?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바울 당시 로마 풍속에는 양자 삼는 것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얻기 위해서는 평판이 좋은(존경받는) 일곱 사람들의 증인이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맥아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의 양자로 삼으셨는데 그 사실을 입증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님께서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됨을 어떻게 증거하신가 하면 성령의 열매(갈5:22, 23)와 또한 우리의 영적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능력(파워)를 공급해 주시므로(행1:8)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맥아더). 하나님의 자녀이면 분명히 성령님께서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갈 5:22-23)를 맺고 있으시기에 그 열매가 우리의 삶의 통해서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령님께서서는 내적으로 우리 안에 성화시켜 주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거룩케 하시는 역사가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또한 선행을 행하게 하시는 등 성령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적 섬김의 일을 감당케 하실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8장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후사들입니다. 여기서 “후사”란 “기업 받을 자”라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

와 여러분이 받을 기쁨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성경 디도서 3장 7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받을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롬5:2).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들로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17절). 우리는 부활의 영광과 천국에서의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박윤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빛진 자들로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으면서 성령의 증거하심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가운데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즐거움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은,

제임스 목사 나눔

(승리 여름성경학교 둘째 날 밤에 사랑하는 승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로마서 8장 18-25절 말씀 묵상]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7장 “성도의 견인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용납하시고,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에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고, 다만 끝까지 그 가운데 확실히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인터넷). 이 교리는 하나님이 그의 영원한 섭리에 의해 선택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양자됨의 자격을 잃지 않고 의인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으며, 영혼이 멸망되는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요10:27-29; 롬8:35-39; 빌1:6). 이에 대한 신약성서의 근거 중 요한복음 10장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한 번 얻은 구원은 결코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선택한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이 주시고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의”하여 끝까지 인내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과 세상의 유혹, 자기 안에 남아있는 부패의 만연함, 자기를 보호 하시는 방편들에 대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극악한 죄에 빠지기도 하고, 잠시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고, 그분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자기의 은혜와 위로를 어느 정도 빼앗기게 되고, 자기 마음이 굳어지고, 자기 양심이 훼손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모욕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일시적인 징계를 초래합니다(인터넷).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변하지 않은 사랑과 선택 작정의 불변성에 의하여 저와 여러분도 하여금 장차 나타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때까지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3 가지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십시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이란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함께 받아야 할 고난을 가리킵니다(17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핍박”입니다(마5:10-12, 요15:21, 딤후3:12).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핍박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고난입니다. 예를 들어, 그 핍박이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요15:18-21),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것(마5:11),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거스려 거짓으로 말하는 모든 악한 말들’(11절) 등을 가리킵니다. 왜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 15:19). 즉,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도리어 세상에서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이기에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롬8:16-17). 이러한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18절). 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고난과 영광의 가치 있음(worthiness)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의 크기와 비교하므로 십자가의 무거움을 가볍게 하므로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자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칼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을 당할 때에 십자가의 무거움을 장차 분명히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가볍게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1절을 보십시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쉑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견디길 권면하면서 오늘 본문 19절에 와서는 피조물의 간절한 고대하는 바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조물”이란 인간을 제외한 세계의 만물들로서 바울은 이 피조물이 간절히 고대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때에 피조물들도 “씩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21절).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죄와 죄의 영향들에서 완전히 해방되듯이 세계 만물들(피조물)도 쉑어짐의 종노릇 한데서 해방될 것임을 말합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결국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5:12) 피조물 또한 한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17절 하반절부터 1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 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관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 첫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피조물들, “허무한데 굴복하”여(20절) 쇠하며 부패해지는 가운데 모든 만물들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고 있습니다(22절). 그러한 탄식과 고통 중에서도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계21:5). 더 이상 만물은 첫째 아담의 저주 아래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 저주에서 해방되어 그 때에는 더 이상 쉑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피조물들은 탄식하며 고통 중에서도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피조물들(세계 만물들)만의

소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피조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죄의 결과인 사망에서 해방되어 더 이상 죽음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온전히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죄의 영향인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권면대로 현재의 고난과 족히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은 바로 “우리의 몸의 구속”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3절을 보십시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모든 세계 만물들만 탄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까지도 속으로 죄로 인하여 탄식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양자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인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장차 누릴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롬5:2).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고전15:51) 더 이상 욕되지 아니하고(43절), 약하지 않으며(43절),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54절)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것(빌3:21)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벧후1:4). 바로 저와 여러분의 확실하고 즐거운 소망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하고 즐거운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족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는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4-25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찌니라.” 우리는 “이미”(Already)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모든 죄 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와 더불어 싸우면서 죄와 그의 영향인 죽음으로 인하여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아직도”(Not-yet)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아직도 영화롭게 되지 못했기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울처럼 내적 싸움,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롬7장). 그러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되어 더 이상 영적 싸움을 할 필요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현재의 고난 중에서도 장차 나타날 이 하나

님의 영광,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운데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인내하고 견디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참고 견디며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로마서 8장 26-30절 말씀 묵상]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는 C. S. 루이스(1898~1963)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다. 무엇이든 사랑해 보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괴로워질 것이고, 아마 깨어지고 말 것이다. 만일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온전하게 간직하고 싶다면, 그것을 누구에게도 주어서 안 된다. 모든 복잡한 관계를 피하고, 당신의 이기심이라는 상자 속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그러나 안전한 그 상자 속에서도 그것은 변하게 될 것이다. 깨어지진 않겠지만,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이다"(인터넷). 여러분은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루이스의 말에 동의합니다. 특히 저는 사랑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부자지간의 관계, 또한 친구나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등등 인간관계에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란 우리 마음이 괴로워질 수도 있고 또한 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사랑하는 것이란 우리 자신이 더욱더 약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이 약해지는 것이 싫고, 괴로워지는 것이나 깨어지는 것이 싫다고 하여 이기심이라는 상자 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면 물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지는 않겠지만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자신의 깊은 내면을 직시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에 부은바 되어(롬5:5)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는 있지만 어쩔 때는 괴롭고 아픈 가운데서 이기심이라는 상자 속에 그 사랑의 마음을 꼭꼭 숨겨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니 제 마음이 좀처럼 꺾일 줄 모르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변질 되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변질되어가는 우리 마음을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없이 사랑하므로 변화를 추구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결심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약해질 지라도 우리는 사랑하기로 선택하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29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30절)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사랑하여 돌아보시는 자들입니다[참조: 시1:6, 호13:5, 암3:2, 마7:23 (박윤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사(일반적인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 구원을 얻어(유효한 혹은 특별한 부르심) "성도"(1:7)가 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30절 말씀 중심으로 한 2 가지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과 27절 하반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즉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과연 성령님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1)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왜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26절). 연약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빌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26절).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와 부패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간구하시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를 감동시키시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면서 기도케 하실 뿐만 아니라(8:15)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고 계십니다(박윤선). 성경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영원한 (대)제사상으로서 “항상 살아서 저희(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7절을 보십시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몸의 구속”(23절)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구속, 즉 부활의 영광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피조물과 하나님의 자녀들만 탄식하며(22절)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다리는 것은 아닙니다(23, 25절).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26절) 우리가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인 우리 몸의 구속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시되 하나님의 뜻대로(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간구하시고 계십니다. 그럴진대 어떻게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성령님의 이 기도를 응답하고 계시고 또한 장차 응답하시사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영원히 성취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시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합동시켜) 선을 이루실 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기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심지어 고난과 유혹과 죄까지도) 다 조정을 하셔서(orchestrates) 우리의 순간적인 유익과 영원한 유익을 성취하신다는 의미입니다(MacArthur).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합동시켜 결국은 우리의 구원에 유익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커스틴(Augustine)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도의 죄까지도 하나님의 능하신 통치에 의하여 그의 구원에 도움이 될지언정 해하지는 못한다”(잠16:4)(박윤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시34:8).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선택 작정의 불변성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선택한 그의 자녀들의 삶 속에 역사하시사 최종적으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로”(롬8:29) 또한 “미리 정하”사(29, 30절)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며 또한 영화롭게 이미 하셨다고 모든 동사들을 과거사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택함 받은 자들의 장래 구원이 확실할 것을 보여주려고 여기서 모든 동사들을 과거사로 사용하였습니다(박윤선). 그는 하나님께서는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사람들을 복음을 믿도록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저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결국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부활시켜 주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 즉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은 끝까지 구원을 받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결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

혀 죽게 하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므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입관 예배와 수요기도회를 통하여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로마서 8장 31-39절 말씀 묵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인(예지)(29절) 우리들을 미리 선택하신 것입니다(예정)(29, 30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하시므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습니다(칭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칭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소망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18절)인 우리 몸의 구속(23절), 부활의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30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27절). 이 뜻을 하나님께서 이뤄 나아가심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사 그 뜻이 이뤄지길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26-27절).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길 친히 간구하실 진대 그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뤄질 줄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늘 본문 로마서8장3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 바울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신실한 사랑을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한 그의 자녀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자기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다 할 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뜻하시고 구원 계획하신 일을 분명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전혀 의심할 것이 없었기 때문임). 이러한 확신 가운데서 바울은 계속하여 로마서8장31절 하반절 부분에 가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 여기서 한국어 성경에는 “만일”이라고 적혀있어서 꼭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수도 있고 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깐’(Since God is for us)라고 번역하는데 더 적합합니다(맥아더). 오늘 이 말씀 즉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즉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니깐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한 3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3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니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대적자가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대적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리의 대적자는 바로 “사단”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단”이란 말의 의미는 바로 “대적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벧전5:8-9). 분명히 사단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사단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삼킬 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서라도 우리를 미혹(유혹)하여 범죄케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우리는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졸면서 어떻게 사단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선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믿음에 우리는 견고히 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단과 싸워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 대답은 오늘 본문 로마서8장3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셨다기 때문입니다.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못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십자가에서 사단과 사망을 이기신 승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셨는데 “그 아들(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32절).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선택하시고 의롭다하셨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31절)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그리고 용감하게 전진해 나아가십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33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깐 감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3절). 다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정죄하리요”(34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칭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며 정죄할 수 있습니까? 사단도 그리고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정죄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 그럴습니까? 그 이유는 한 2 가지입니다.

(1)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입니다(33, 34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하여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가 이미 전가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유죄하다, 범죄했다 그러므로 그 벌로 영원히 죽어야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법정에서 최고의 재판장이 죄 없다고 판결했다면 누가 죄 있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미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1절).

(2) 둘째 이유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34절).

즉, 의로우신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변호’(defend)해 주시고 계십니다(요일2:2).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실 때 증거는 십자가의 흘리신 보배로운 자신의 피입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간구하시면서 변호하시므로 말미암아 사단이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유 있게 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인데 누가 저와 여러분에게 죄인이라고 부르면서 영원히 멸망할 사람들처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정죄해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도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사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며 친히 간구하시는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참된 자유 신앙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시니깐 우리는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5절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아기 주영이가 잠든 후 고 김영익 목사님께서 손수 볼펜으로 쓰신 편지 내용 중 이 로마서 8장35-39절까지의 성경 구절 말씀을 저희 부부에게 써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저는 이 로마서 8장 35-39절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38-39절이 마음에 위로가 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 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바울은 “사망”(죽음)조차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기의 죽음조차도 저희 부부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이가 곤고나 핍박이나 등등 어느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죽음까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단과 그의 무리들을 예수님을 믿는 참 성도들을 대적하며 정죄하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하신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구속을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안정성을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8:37).

하나님께서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아까지 아니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그리고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9장 1-13절 말씀 묵상]

우리는 이미 로마서 8장 31-39절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특히 저는 세 가지 확신 중 마지막 세 번째 확신인 “사랑의 확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38-39절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 1-3절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좀 엿보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절을 들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스라엘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끊을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은 곧 바울을 향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제목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바울의 마음을 본받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의 마음에는 “큰 근심”(great sorrow)과 “그치지 않는 고통”(unceasing anguish)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왜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의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던 이유는 그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인(3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받기보다 오히려 행위로 말미암아(11절)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민족으로서(4-5절)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엔 큰 근심과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4-5절을 보면 바울은 한 6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1)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양자적 관계를 가졌었습니다[(4절)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에게 대하여 양자적 관계를 가졌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 민족 중 개개인에 대한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양장되었던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이었습니다(박윤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2)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4절) “영광”].

예를 들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심)을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누렸던 백성들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3) 셋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언약들”이었습니다[(4절) “언약들”].

여기서 언약들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더불어 언약을 맺으신 것으로 아브라함 이후에도 거듭거듭 있었습니다(박윤선).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축복이요 특권이었습니다.

(4) 넷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율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4절) “율법을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큰 영광입니다.

(5) 다섯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예배와 약속들”을 받은 것입니다[(4절)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만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6) 여섯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신 것입니다[(5절)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바울은 이러한 특권들(은혜들)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말미암아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

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 와중에서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폐하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문제로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지만 그는 그 와중에서도 결코 폐하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9절을 보십시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약속의 말씀은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 이 말씀은 바울이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의 여종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것을 보고(8절)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했을 때(10절) 아브라함이 “깊이 근심”하고 있는 중(11절)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6절하). 그리고 그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8절). 그러한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그 중에 주권적으로 선택한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가 있는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진정한 아브라함의 씨를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부르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 중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택하지 않으셨습니다(7-8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에서와 야곱 중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습니다(10-13절). 특히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음에 있어서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매우 중요한 말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무슨 말씀입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사람의 선행이나 악행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는 선택하시사 복음으로 부르시사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셔서 믿음을 선물로 안주시고 그렇다는 말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진리를 모르고 선행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불신앙 가운데 있는 자신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음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사랑하되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언정 그의 형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3절). 물론 바울이

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선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걱정하신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결국 구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절대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향한 자신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이지 실제적 가능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박윤선). 바울은 자기가 그들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특히 가족과 친척중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 천국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지라도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998년인가 아리조나 씨에라비스타 연합장로교회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때 노회장이셨던 목사님을 통하여 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후 지금까지 목사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가끔 '과연 나에게 이러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친구들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질문을 가끔 던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간절함이 제 마음에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서야 그저 기도로만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들의 영혼을 건져주세요. 그렇지 않으시려면 주님의 기록하신 생명책에서 제 이름이 지워 버려 주세요'(출32:32). 기도를 드리면서도 한 쪽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생명책이 기록된 이름이 지워지는 않지만 이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기도요 두려운 기도인지 좀 느꼈습니다. 그런 와중에 드는 생각은 '내 생명이 오늘 끝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다면 나의 죽음은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실 의향이 있습니까? 그 정도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바울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보내주시는 예수님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의 불타는 전도자와 위로자가 되게 해달라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로마서 9장 14-29절 말씀 묵상]

우리는 이미 “끊을 수 없는 사랑”이란 제목아래 로마서9장1-13절 말씀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묵상했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특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독생자 자신들의 구세주로 영접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폐하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6절). 그 언약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 말씀하면서 바울은 그 예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스마엘은 택하지 아니하고, 또한 이삭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 야곱을 택하시고 맏아들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13절)고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로마서 9장11절에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야곱은 선택받고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인간의 공로(행위)에 근거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4절을 시작하면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는 아무 할 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없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9장14-29절에서 한 두 가지 가상 질문과 한 가지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가상 질문이란 (1) 첫번째로,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14절)이며, (2) 두 번째 가상 질문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19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도전적인 질문은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입니다(19절).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가상 질문과 한 가지 도전 질문, 세 가지 질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워 주시길 기원합니다.

첫 번째 가상 질문은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첫 번째 가상 질문인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14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말씀(11절)을 볼 때 과연 하나님께 불의가 있지 않느냐는 가상 질문입니다. 달리 말한다면

면, 이 가상 질문은 ‘하나님은 불공평하지 않으시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고 불공평하시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반면에 어느 누구는 그냥 죄 가운데 죽게 놓아 두셨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아직도 생각합니다. 거의 20년 전 어느 분이 저희 교회에 나왔었는데 교회 정문 앞 층계 있는 데로 예배 후 저에게 한 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 그랬는가 하면 한 마디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가상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 오늘 본문 15-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달음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출애굽기 33장19절을 인용한 것으로써 그 의미는 사람이 구원 받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즉 인간의 선행이나 혹은 악행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무조건적으로 그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원하고 또한 구원을 얻고자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은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그 예로 바울은 구약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 왕 “바로”를 들고 있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17절). 이 말씀의 배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자 하실 때 애굽 왕 바로를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왕 바로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인들이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긍휼히 여기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므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지만 바로 왕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는 그의 범죄 가운데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그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나름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을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강박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온 땅에 전파케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바로 왕의 마음에 불신이나 어떠한 악한 것을 만드셔서 그랬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신적 영향인 죄를 절제케 하는 것을 바로에게서 거두시사 바로로 하여금 그의 악한 마음으로 하여금 죄를 좇도록 놓아두셨다는 의미입니다(맥아더).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 첫 번째 가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박케 하시느니라.”

두 번째 가상 질문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9절을 보십시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은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뇨 하리니.” 이 두 번째 가상 질문은 바울이 17-18절에서 예를 들고 있는 애굽 왕 바로와 연관된 것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 속에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죄와 불신앙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하실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맥아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불택자의 마음)을 강압케 하셨으니, 그가 바로를 허물하실 것 없지 않은가?’라는 질문입니다(박윤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하셔서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건져주시고 택하지 않은 애굽 왕 바로는 마음을 강압케 하셔놓고 어떻게 바로에게 책임을 전가시키시는 것인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무슨 말씀입니까? 한 마디로, ‘너 사람아, 너가 무엇이관대 감히 하나님께 주제넘게 대꾸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러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따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귀히 쓸 그릇과 천히 쓸 그릇을 자기 뜻대로 만들 권한이 없습니까? 천히 만들어진 그릇이 토기장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대꾸 하며 따질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바로 왕 같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므로 자신의 악한 마음에 따라 제멋대로 강압해진 악인들을 가리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라고 말하고(21절)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사랑하여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훈의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2절).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같이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2절).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공훈의 그릇”에게는 “그(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3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 같은 진노의 그릇에게도 급히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박윤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노의 그릇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을 스스로 강압케 하여 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사 창세전에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고 많은 세상 모든 백성들 가운데 사랑하시사 예정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요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면 과연 진정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누리는 “공훈의 그릇”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예정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신 “공훈의 그릇”은 바로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 자신이나 로마서 편지를 받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될 것이며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 25-26절에서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3절을 인용하고 또한 오늘 본문 27-29절에서는 이사야 10장 22

절을 인용하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롬 9:27).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선택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백성들이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24절)로서 그들의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적인 질문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1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질문은 무슨 의미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미 묵상한 바울의 두 가상 질문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God’s sovereign and unconditional election)에 관련된 질문 이었다면 이 세 번째 도전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God’s irresistible grace)와 관련된 질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란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아니 믿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인터넷).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타락(전적타락)한 사람들 중 아무 조건 없이 선택(무조건적 선택)한 그의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로 작정하셔서 주실 때에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고 믿음의 선물을 받아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불가항력적 은혜). 바울은 오늘 본문 19절 하반절에서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누가 감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저항할 수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여 구원하시고자하시는 그 주권적인 뜻을 누가 저항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부르신 자”들로(24절), 그리고 “남은 자”들로(27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하나님께서는 그가 부르신 자들, 남은 자들만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27절).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누가 저항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예정)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거부) 혹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28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말씀하신대로 완전히 이루시고야 만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만, 즉 그가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듯이 그리고 완전히 이루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즉 저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14절)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은총에 아무 할 말이 없는,

제임스 김 목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면서)

“부딪히는 돌”

[로마서 9장 30-33절 말씀 묵상]

우리가 이미 로마서 9장14-29절 말씀 중심으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14절)란 제목 아래 2가지 가상 질문들과 한 가지 도전 질문을 묵상했었습니다.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무조건적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그의 은혜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스스로 마음을 강박케 하심에 대하여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14절), 즉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주권적인 무조건적 선택으로 그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사(15절) 그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사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선택하지 않은 바로 왕 같은 자들은 강박케 하시므로 그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 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감히 피조물이 조물주에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선택하지 않으심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 속에서 누구는 선택하여 예수님을 믿게 하시사 구원해 주시고 또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므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멸망케 하신 것에 대해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토기장이와 그릇에 대한 비유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21절). 한 마디로, 바울은 “이 사람이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0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긍휼의 그릇”과 선택하지 않으신 “진노의 그릇”에 대하여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22-23절).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30-33절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30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 써내려 가면서 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재차 두 번이나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대해서 아무 할 말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로마서 9장14-2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는 그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서 선택하시고 또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심에 대하여 주권자 하나님께 할 말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아직도 왜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냐고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왜 누구는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사 그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셔서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시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의문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여러분이 아직도 의문을 품고 계신다면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0-33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인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를 들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0-33절을 묵상하면서 2 가지 돌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딪히는 돌”(A stone of stumbling)과 “디딤돌” 또는 “징검다리 돌”(A steppingstone)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딪히는 돌”도 되실 수 있고 또한 “디딤돌”도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의의 법을 좇아간 이스라엘”(31절)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셨고(32-33절) “믿음에서 난 의”를 얻은 이방인들에게는(30절)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딪히는 돌”이 되셨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9장 4-5절에서 목상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한 6가지의 특권이 주워졌음에도 불구하고(하나님에 대하여 양자적 관계,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주어진 “언약들”, 받은 “율법”, “예배와 약속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신 것) 그 특권들을 누리지 못한 원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란 오늘 본문 로마서 9장31절에 근거해서 말한다면, 예수님을 좇기(믿기)보다(pursuing Jesus) “의의 법”을 좇은 것(pursuing a law of righteousness)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란 예수님을 메시아(그리스도)로 또한 그들의 구세주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모세의 율법을 지키므로 의를 얻고자 하였기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32절). 모세의 율법을 지키므로, 즉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자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였습니다(33절). 다시 말하면,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하였습니다(박윤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만일 우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여 인간의 공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분명히 실패할 것입니다(부끄러움을 당할 것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 율법의 행위로 그(하나님)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입니다(롬3:20, 갈2:16).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갈3:11).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키므로, 즉 인간의 공로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하심을 절대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디딤돌”이 되셨습니까? 한 마디로, 믿음으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신 것은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9장 30절을 보십시오: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여기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방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기에 그들은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 의인이 되려고 노

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의를 좇지 아니한 이방인들”)(박윤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은 의를 얻은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난 의”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30절)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요 “거치는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었던 이방인들은 “부끄러움”(실패)을 당치 아니하였습니다(33절). 한 마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디딤돌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로마서 2장 1-16절 말씀을 통하여 배웠던 것처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만(1:16) 하나님의 존재를 알면서도 모든 불의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억눌러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며(1:18ff) 또한 최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5절).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만(1:16)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양면을 봅니다. 복음이란 그 복음의 내용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롬1:18-32)와 하나님의 심판(롬2:1-16)이 임합니다. 즉, 복음이란 믿는 자에게는 축복(영생),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저주(심판, 멸망)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아 구원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3:27)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결국 이방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디딤돌이 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에게 징검다리 돌이 되십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디딤돌(징검다리 돌)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딪히는 돌이 되십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아니라 디딤돌(징검다리 돌)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징검다리 인생을 살고 싶은,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시는 예수님의 징검다리 돌의 사역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로마서 10장 1-15절 말씀 묵상]

우리는 이미 로마서 9장30-33절 말씀 중심으로 “부딪히는 돌”이란 제목 아래 한 2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법을 좇아간(31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딪히는 돌(32, 33절)이 되신 반면에 믿음의 법(3:27)을 좇아간 이방인들에게는 디딤돌(징검다리) 돌이 되셨다는 사실을 묵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행위를 의지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부딪히는 돌, 믿음에 의지하였던 이방인들에게는 디딤돌(징검다리) 돌이 되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9:32). 예수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디딤돌(징검다리) 돌이 된 이방인들은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33절). 그런 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하심을 얻은 자들로서 징검다리 인생을 살자고 권면해 드렸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징검다리 인생을 살자고 도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1-15절을 보면 우리는 징검다리 인생을 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즉,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징검다리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이 징검다리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한 3 가지 적용 질문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적용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은, ‘과연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무엇인가?’입니다.

A. W. 토저 목사님은 그가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란 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기 진단법” 7가지 질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7가지 질문 중 제일 첫 번째 질문인 바로 “첫째,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전에 제 자신에게 던졌을 때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질문해 보았을 때 그 대답은 ‘우리가 만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되어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몇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2)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 (3)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4) 헌신, 등등. 그리고 이것저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사도행전 1장8절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징검다리 인생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0장 1절을 보면 바울의 원함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바울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분명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인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했습니다(9:3). 저는 로마서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적어도 여러분의 가족, 친척 식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에 힘을 쓰기는 도전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후손들의 영혼 구원에 바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전도하자고 여러분에게 도전하였습니다. 어떨습니까? 가족, 친척의 영혼 전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간절히 원하는 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이십니까?

둘째 질문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이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의 열심이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 즉 진리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진리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1:17)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의” 곧 율법을 지켜 행하므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믿음의 말씀”에 따라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에 따라 열심을 내고 있었습니다(10:8). 즉, 유대인들은 믿음에 의지하여 열심을 낸 것이 아니라 행위에 의지하여 열심을 낸 것입니다(9:32). 이러한 열심은 참 위험합니다. 그 이유는 열심을 내고 있긴 한데 잘못된 지식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를 따라 열심을 내는 것 하고 거짓을 따라 열심을 내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진리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하신 공로를 의지하여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인지 결코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율법을 행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10:4). 즉, 유대인들처럼 죄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노력으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헛된 노력은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끝났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끝났다는 말입니다(맥아더).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의 형제, 즉 골육의 친척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자신들의 불신앙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결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

이 아닙니다. 선행을 열심히 많이 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9-10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실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13절). 유대인이라 헬라인이나 상관 없습니다(12절).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며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11절).

마지막 셋째 질문은, ‘우리는 우리의 대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14-15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향과 같으니라.” 바울은 우리가 대신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어찌 우리 대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 하겠습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이 우리 대신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듣지도 못한 예수님을 우리 대신자들이 어찌 믿을 수 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한 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바울처럼 우리 또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기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로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전파해야 합니까? 우리가 전파해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입니다(8절).

저와 여러분이 전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같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비진리를 전파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 아니요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신자들에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담대히 전파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가족 식구, 친척,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15절, 사52:7 인용).

믿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자가 되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인생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기길 기원하면서)

종일 손을 벌리시는 예수님

[로마서 10장 16-21절 말씀 묵상]

우리는 이미 로마서 10장1-15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결코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같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비 진리를 전파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 아니요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태신자들에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우리는 담대히 전파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가족 식구, 친척,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15절, 사52:7 인용).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16-21절 말씀을 묵상함에 있어서 특히 21절을 보면 바울은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종일 손을 벌리시는 예수님”이란 제목 아래 한 세 가지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시고 계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팔을 넓게 펴시사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초청하시되 예수님께서 “종일”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은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앉기길 초청하고 계십니다(호즈). 성경 누가복음 14장15-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의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박윤선). 먼저 예수님께서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고도 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17-21절). 이들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먼저 청함을 받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다 육신의 일로 인하여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육신의 일로 초대에 응하지 않았습니까? 발을 사서 불가불 나가 봐야 하겠다고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18절), 또 다른 사람은 소 다섯 겨리 때문에(19절), 또 다른 사람은 장가들어서 (20절)라는 육신의 일로 다들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음을 종이 그들의 주인에게 고하였을 때 그 집주인은 노하여 그 종에게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21절). 그 명대로 종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리가 있는 것을 종이 집주인에게 고하였을 때(22절) 그 주인은 종에게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길과 산울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23

절).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주님의 명령이십니다: “...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예수님은 종일 손을 벌리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일 손을 벌려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 집 문도, 우리 교회 문도 활짝 열어 놓고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까?

성경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보면 우리는 빌립이 나다니엘을 초청함에 있어서 몇 가지 원리를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1) 첫째로, 빌립은 나다니엘을 찾았습니다[(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 (2) 둘째로,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자기가 만나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합니다[(45절) “...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3) 셋째로, 나다니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반응했을 때 빌립은 그에게 “와 보라”(Come and see)라고 초청하였습니다(46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하여 주님의 집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 빌립의 초청원리 중 “와 보라”(Come and see)라는 말씀과 더불어 추가하고 싶은 것은 3가지가 더 있습니다.

(1) ‘와서 나를 따르라’(Come, follow me)입니다(마4:19).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지만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할 때 “와 보라” 한 다음에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여 주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합니다.

(2) “와서 조반을 먹으라”(Come and have breakfast)입니다(요21:12).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디베랴 바다 육지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얻는 교훈은 우리가 식탁 교제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을 우리도 교회로 초청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3) ‘와서 나와 함께 있으라’(Come and be with me)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예수님과 함께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와서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마25:21)는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을 여러분의 교회로 초청하시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하시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으십니까? 작은 교회 오라고 초청하는 것 좀 미안하지는 않으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자신 있게 사람들을 초청하실 만한 것이 여러분의 교회에 있다고 보십니까? 성경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어려운 말씀으로 인하여(60절)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열 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67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줄 믿고 알았삽나이이다”(68-69절).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의 대답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은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되어 우리가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할 때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와 보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교회 와서 보시고 우리와 함께 있어 보십시오. 저희 교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와서 보십시오’라고 초청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과연 예수님께서서는 누구에게 종일 손을 벌리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한 2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수님께서서는 불신하는 자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시고 계십니다.

저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 중심으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나무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열매를 한 2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외적으로는 전도의 열매, 내적으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 변화의 열매. 그런데 저는 누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열매는 바로 회개의 열매라는 것을 문맥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죄는 고범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범죄는 무엇입니까? 고범죄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무엇이 죄인지를 일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충고를 거부하고 고의적으로 같은 죄를 반복해서 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인터넷).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이다”(시19:13).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 이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회개해야 하는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바울은 그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기를 간절히 원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였지만(10:8) 그들은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다(16절).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사야 53장1절 말씀을 인용하여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는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 때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때나 유대인들은 참 메시아이신 십자가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 때나 바울 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

다. 지금 21세기에 사는 유대인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예수님을 구약에서 예언하였던 메시야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해서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분명히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의 소리를 계속 온 땅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보냄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완악한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19절에서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다른 신을 좇은 고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하는 마음이 나도록 하시겠다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박윤선).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시면서 벌리신 팔을 벌리시사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며 거절하는 저와 여러분을 품에 앉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 예수님께서 종일 손을 벌리시고 계시는 사람들은 바로 불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16절 상반절과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16절),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21절). 여기 16절에 나오는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란 말씀에서 순종치 아니하였다’는 단어는 “ὑπακούω”라는 헬라어로서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밑에서”(under) + “듣다”(hear). 이 합성어 단어는 ‘순종하다, 받아들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흥미로운 의미는 바로 ‘(문)에 누가 왔는지 나가보다’[answer (the door)]입니다(Newman). 이 의미를 볼 때 저는 요한계시록 3장2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서는 문밖에 서서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의 음성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질문은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복음의 음성을 겸손히 듣고자 하고 있는가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겸손히 듣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서 바울을 통하여 복음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두들기고 계셨지만 유대인들은 마음 문을 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마음을 강박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21절).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고 오히려 거스렸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롬10:3).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힘써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였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3절). 이렇게 불복종하며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서는 종일 손을 벌리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서는 불신하는 자들과 불순종하는 자들을 종일 손을 벌려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분께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의 벌리신 팔로 우리를 품으시고자 종일 손을 벌리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지막 셋째로, 종일 손을 벌리시는 예수님에게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의 죄와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겸손히 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찬송가 338장 1절).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합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벌리신 팔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초청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들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오늘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손을 벌리시면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품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나를 앗아 주시고자 종일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을 그리워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1-10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 혹은 사랑하는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 혹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 혹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2편 1편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여 내 하나님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다윗의 신음 소리를 통하여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다윗이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다윗을 버리시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다는 느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윗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기도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이까?’(O Lord, how long?)라고 부르짖으면 지나간 고통으로 인하여 인내의 한계를 느낄 때 낙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느낌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로마서 3장 4, 6, 9 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히 스스로 의롭다 하는 영적 우월감에 있었던 유대인 신자들에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세 번이나 말하였습니다[(4절)“그럴 수 없느니라”,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9절)“결코 아니라”]. 여기서 바울은 무엇을 세 번이나 완곡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1) 첫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미쁘심(신실하심)을 결코 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완곡히 부정하고 있습니다(3:3-4).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항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딤후2:13).

(2) 둘째로, 바울은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다고 완곡히 부정하고 있습니다(3:5-6). 우리의 거짓됨이 들춰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불성실함이 들춰지면 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그 참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가 들춰지면 질수록 하나님의 의는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5절).

(3) 셋째로, 바울은 우리는 결코 나은게 없다고 완곡히 부정하고 있습니다(3:9). 왜 우리가 결코 나은데 없다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9절). 이 로마서 3장의 말씀 외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두 번, 7장에서 두 번, 그리고 9장에서 한번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2절과 15절에서 바울이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 없으며(2절)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에 죄를 지을 수 없다(15절)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로마서 7장에는 7절(“율법이 죄나 그럴 수 없느니라”)과 13절(“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상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9장에서는 14절에서 하나님은 결코 불의하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 가면서 또 다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완곡히 부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 바울은 로마서 10장16-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일 손을 벌려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상시시킨 후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1절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선택한 백성,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에 불순종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첫 번째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고자 제시한 증거는 바로 바울 자신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여기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세 면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이스라엘인, (2) 아브라함의 씨, 그리고 (3) 베냐민 지파. 바울은 자기 자신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도 이스라엘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씨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속해 있었던 사울 왕이 속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도를 좇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훼방하고 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첫 번째 증거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바울 자신도 불신앙하던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자기처럼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하였던 것입니다(박윤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도 구원하실 수 있으시다면(행9:22, 26)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충분히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The Bible Knowledge 주석).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5-16절을 보십시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2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 하셨나니 …”. 즉,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결코 버리

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자들, 다시 말하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8:29-30). 성경 사무엘상12장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을 자기의 “크신 이름을 인하여”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십시오: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려고 제시한 증거는 바로 구약에 나오는 엘리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7,000명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여 승리한 후 아합 왕의 부인인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2절)고 협박하였을 때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나눴던 대화 내용입니다. 이 대화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바알(우상)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을 남겨 두셨다는 사실입니다(18절). 바울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 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명을 남겨두셨다고 말한 후 오늘 본문 로마서11장5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 시대 때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선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남겨두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은혜로 된 것이지 결코 인간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닙니다(6절).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선택을 받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그 외에 사람들은 불신앙 가운데서 마음이 완악하여졌습니다(7절). 이 선택받지 못한 완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혼미한 심령 속에서(8절) 보지 못하는 흐려진 눈과(8, 10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고 (8절) 하나님의 진리 받기를 거절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보응이 함께하므로(9절) 그들의 등은 죄의 무거움으로 인하여 항상 굽게 될 것이며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10절).

저는 가끔 수요기도회 때 복음성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종종 부르는 복음 성가 중 “나의 안에 거하라”가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 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네 손잡아 주리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네 여호와라.” 저는 이 복음성가를 부를 때 “너는 내 것이라 …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라는 가사 부분을 생각하면 이사야 43장 1절과 4절 말씀이 종종 생각납니다: (1절) “…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며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에 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과연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독생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 버리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러 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제임스 김 목사

(사랑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럴 수 없느니라” (2)

[로마서 11장 11-24절 말씀 묵상]

우리는 이미 로마서 11장 1-10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을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1절)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완곡히 부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로마서11장11절에 와서 그는 또 다시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여기서 바울이 완곡히 부정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므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넘어지게 놓아(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불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게 하시고자 그들의 실족함 [회개하여 바로 될 수도 있는 실수(박윤선)]을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족함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고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1-2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족함으로 복음(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1절). 이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중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자기의 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내 골육을 아무썽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14절).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기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면서(13절)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구원이 우선 이유겠지만 또한 이방인들의 구원으로 인하여 자신의 골육인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케 하여 그 중에 얼마라도 구원케 하는 것이었습니다(14절). 그는 자기 골육인 유대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15절), 즉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자기 골육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실족하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사실에 그들의 자부심과 교만을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맥아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8-20절을 보십시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궁하지 말라 자궁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뿌리”란 “참감람나무”의 뿌리로서 “참감람나무”는 “하나님의 교회”를 가리키고 참감람나무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꺾이운 가지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인간의 노력인 율법을 지키므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아마도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꺾이운 가지들인 불신앙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참감람나무인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임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유대인들)은 나(이방인들)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이방인 성도들이 만일 말한다면 그 말에 바울의 대답은 “옳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워졌고 너희 이방인 성도들은 믿음으로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0절). 즉, 꺾이운 가지들인 유대인들은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택한 백성에서 제외되었고, 도리어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박윤선).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20절).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마디로,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참감람나무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기에 높은 마음을 품고 자긍하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교회 안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육적으로 혹은 혈통으로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 성도들을 정죄하고, 이방인 성도들은 영적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향하여 자긍하는 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다면 그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겠는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인 성도들은 아직도 옛 사람의 습관대로 ‘우리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할례를 받았고 또한 모세의 율법을 받았으니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심 속에 자랑하면서 이방인 성도들을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있는 반면에 이방인 성도들은 ‘그래도 유대인 당신들이 복음을 거절하므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라고 높은 마음을 갖고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자긍하고 있었다면 그 로마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특별히 이방인 성도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왜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엄위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바 되리라”(21-22절).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원 가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록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지만 그들을 복음에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앙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원 가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찍어버리셨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언약에 타인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복음의 진리에 불순종하므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아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MacArthur). 만일 이방인 성도들도 계속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바 되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22절). 다시 말하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지 않고 불신앙 유대인들처럼 그들도 불신앙한다면 그들 역시 별수 없이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가지가 참감람나무에 계속 거해 있어야지 그 나무의 뿌리를 통하여 보존되는 것이지 만일 가지가 참감람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보존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더 이상 불신앙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접붙임을 얻”을 것입니다(23절).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바울은 그의 골육의 친척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시기해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임을 당하길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중에 택함을 받은 백성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이게 하실 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원 돌감람 나무에서 찌함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라”(24절). 무슨 말씀입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아닌 너희 이방인들도(“원 돌감람나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이심을 받았다면 하물며 혈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자손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님을 믿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이심을 받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해 주시사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이셨다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접붙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 전 저희 교회 반주자 자매를 통하여 “KIBI 소식”이라는 잡지를 받았습니다. “KIBI”란 약자는 “Korea-Israel Bible Institute”로서 이 단체의 사역은 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중보기도 사역, 문서 사역, 금홍 사역 등등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특히 이 단체는 이스라엘의 믿는 유대인들을 지원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을 조금이나 잡지들에 나와 있는 사진들과 글들을 통하여 엿 봅니다. 그러한 가운데 제가 읽은 글 중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영적 이스라엘을 강조한 나머지 육적인 이스라엘을 방관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내용의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우리가 복음 전파함에 있어서 방관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올바른 복음 전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1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 유대인들을 우리도 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 선택한 그의 백성들, 남은 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향하신 구속 사역에 적어도 기도로 동참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유대인들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유대인이 아니 우리는 이방인들로서 자긍하면서 높은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18, 20절). 하나님의 교회(나라)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접붙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높은 마음을 품고 자긍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빌2:12). 어떻게 하는 것이 두렵고 떨림

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아야 합니다(롬11:22).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찍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나라)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힘을 써 바울처럼 “저희 중에 열마를 구원하려 하”는(14절)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넘어져 있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제임스 김 목사

(오뚜기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로마서 11장 25-36절 말씀 묵상]

저는 지난 주 새벽기도회 때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이란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원인은 온 교회 식구들이 (1) 첫째로,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것, (2) 둘째로, “같은 뜻”을 추구하지 않은 것, (3) 그리고 셋째로, 다 “같은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온 성도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한 그 이유는 바로 성도들이 “교만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입니다(4:6). 그리고 그들이 교만한 마음을 먹으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 밖에 넘어가서(4:6) 주님을 자랑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였습니다(1:31.)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습니다(3:3). 이 분쟁의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1:11)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1:13).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연합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모두는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즉,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빌2:5).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던 바울은(빌1:8) 로마서 11장 11-24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특히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접붙임)을 자긍하지 마십시오’(18절)라고 경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20절).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고 권면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기(접붙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능력이 없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기에(11:23)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들어오게 된 이방인 성도들에게 바울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를 보라”(22절)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방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인자(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하였습니다(22절). 그리고 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2절까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 특히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교만함을 면케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오묘한 일이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뜻(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구원 받은 뒤에야 이스라엘이 구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26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한명도 빠짐없이 모든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구절 그대로만 해석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묵

상한 로마서 8장 29절이나 로마서 11장2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8:29),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8:29, 30),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11:2)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춰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26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란 모든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중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골육인 유대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1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서 그의 방법은 “이방인의 총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은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완악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온 후에야 완악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한 그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가 미리 정하신(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6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보십시오: “... 기록된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바울은 이사야 59장 20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경건치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 미리 선택하신 자들의 죄를 없이 하시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인 그의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중 미리 정하신 자들, 즉 창세전에 선택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마음을 한 2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불순종하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30-32절을 보면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치 아니함’이란 단어와 “ 긍휼”이란 단어입니다. 두 단어 다 오늘 본문 30-32절 석 절에 네 번씩 나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두 단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도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영원히 버림받지 않게 하셨으면 실족할 정도로 넘어지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그들의 불순종도 사용하시사 오히려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 가면서 로마서 1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긍휼을 베푸사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으면 또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실족하여 넘어짐에 있게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

리를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심판하시기보다 오히려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실족하여 넘어짐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과연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마음은 불순종하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8절을 보십시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 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여기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 써 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불순종하는 원수 된 자들인 유대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원리에 있어서 그 복음에 불순종하므로 하나님과 원수된 유대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들 중에 미리 정하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영생의 선물을 주심에 있어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29절). 즉, 하나님께서는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한 유대인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변동이 없으시다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원수 된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이방인에게 향하게 하시고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을 다 구원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기케 하시가 그들 중 선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까?

바울은 이 크신 사랑과 풍성한 긍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택한 백성들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러서 깊은 심을 받겠느냐”(33-35절).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 하나님의 비밀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나마 알려준 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요한 지혜와 지식, 하나님의 측량치 못할 판단, 찾지 못할 하나님의 길, 알 수 없는 주님의 마음... 특히 그는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미래 계획을 생각 할 때(9-11장)(MacArthur)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한 긍휼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의 깊은 마음을 생각할 때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36절).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25-36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가 미리 정하신 선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사 그들의 불순종도 사 용하시어 긍휼을 베푸시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실족하여 넘어져 있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을 생각할 때 저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길 원하고 계십니다(벧후 3:9).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느끼신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찬양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광이 주님에게 세세에 있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 받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보내고 통곡하면서 자식 사랑을 보여준 교회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예배-증인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묵상]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가 쓴 “목적이 이끄는 삶”란 책을 보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때 5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워렌):

(1) 첫째 유익은, 목적을 아는 것은 삶에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삶에는 어떤 목적도 있을 수 없고, 목적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면 중요함이나 소망도 없습니다. 한 20대 청년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나는 무엇이 되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이 되려고 하는 줄 모르기 때문에 실패자임이 틀림없다. 오직 내가 할 줄 아는 것은 대충 살아가는 것뿐이다. 언젠가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나는 살기 시작한다고 느낄 것이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느끼시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2) 둘째 유익은, 목적을 알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우리 사람은 단순한 것도 좀 복잡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단순한 것도 복잡하게 만들면서 살아가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삶의 목적인 혼동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목적인 분명하면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목적은 우리의 삶에 기준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목적이 분명하면 일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일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까 아니면 안 될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도움이 안 되는 일은 하지 않으므로 삶을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의 삶에 목적인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으며, 어떻게 시간을 투자하고 자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근거를 잃게 됩니다. 그저 상황, 압력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기분에 따라 결정을 내릴 뿐입니다. 워렌 목사의 말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하고, 또 이 때문에 스트레스, 피로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 갈등을 겪게 된다.”

(3) 셋째 유익은,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면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복잡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한 혼동 속에서 우리의 노력과 에너지를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산 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삶을 뒤돌아 볼 때 이것저것 다 해본 것 같은데 이루어 놓은 것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릭 워렌 목사는 “목적 없는 산만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한 목적 없이 계속 방향을 전환하고, 직업, 관계, 교회 그리고 그 외의 외부

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바꾸는 삶, 그것이 우리 마음의 혼란스러움을 안정시켜주며 공허감을 채워주길 바라지만 더 혼란스럽기만 하고 더 공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이끌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유익한 것이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을 먼저 행하는 것입니다.

(4) 넷째 유익은, 목적을 알 때 삶의 동기가 유발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면 우리는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으로 불태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목적은 열정을 낳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 한 미국 잡지에서 영화배우이자 감독인 클린트 이스트우드에 대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젠 그 분의 나이가 팔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아직도 영화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 그는 은퇴를 하지 않고 그렇게 영화를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이는가 하면 그는 아직도 영화 세계에 배울게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고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팔십 된 어르신도 그렇다면 아직 40대 밖에 되지 않는 제가 얼마나 더 배우려는 자세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가라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모세나 갈렙 같은 사람을 보면 팔십 때에도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보면 참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불타오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마지막 다섯째 유익은, 목적을 앎으로써 영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죽은 후 사람들은 우리의 장례식에 와서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 더 중요한 질문은 ‘과연 죽은 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실 것 같습니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기억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과연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릭 워렌 목사님은 영생을 준비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 “너는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엇을 하였느냐?”, (b) “내가 너에게 준 것들로 너는 무엇을 했느냐?” 과연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 교회에는 상대 목표가 있습니다. 그 상대 목표란 (1)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는 것, (2) 신실한 제자를 세우는 것, (3)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와 겸손한 봉사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상대 목표의 근거하여 우리 교회는 상대 목적 진술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목적 진술은 이렇습니다: “주님을 모시는 교회: 예배-증인들.” 이 첫 번째 목적 진술에 대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14장25절 말씀입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 옆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라.” 이 말씀은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다닐 때 밑에서 배운 조직 신학 교수님이 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책에서 도전을 받고 저희 교회가 우리에게 제일 원하고 계시는데 예배요 그 예배는 증거의 역할 또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

풀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요4:23).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에 우리 모두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 바른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 교회는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옆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첫 번째 목적 진술을 “주님을 모시는 교회: 예배-증인들”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이 주전 저는 이 고린도전서 14장 25절 말씀을 읽다가 다시 곰곰이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하여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깨달음이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책망과 판단을 받으므로(24절) 죄를 깨달아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에 근거는 고린도전서 14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음성은 교회 목사로서 선지자적 말씀 선포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들춰지므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그 때서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예배-증인들”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담대히 선포하길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전파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십시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doctrine)를 말한 후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부터 그 교리에 대한 적용(application)을 말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사십시오. 그 참된 믿음의 삶이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 신실한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한 마디로, 예배란 존경과 경배입니다. 예배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광 돌리려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최고의 기쁨을 드리기를 위해 예배하는 것이며, 그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 속에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프레임). 그러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예배”란 무엇입니까? 영적 예배란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드렸던 외부적인 의식적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 즉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리킵니다(요4:24)(박윤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구약의 외부적인 의식적 예배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께 무엇인가

를 보이려고(12절) 무수한 제물을 희생 제물로 받치는 것(사1:11)으로써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부적인 의식적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며(11절)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11절). 더 나아가서, 이러한 외부적인 의식적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견디실 수 없을 정도로(14절) 가증히 여기시며(13절) 싫어하십니다(14절). 우리가 하나님께 받치는 물질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여 곤비케 하는 것입니다(14절).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신령”)과 진리(진정)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요4:24).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자는 진리의 성령님과 복음의 진리(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좋은 소식)에 이끌림을 받아 예배를 드립니다. 결국 영적 예배란 하나님 중심의 예배요 하나님의 중심의 예배란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드러지는 예배입니다. 한 마디로, 영적 예배란 삼위일체적 예배입니다(프레임). 우리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독특한 사역을 인지하여 하나님께 감사, 찬양, 경배, 헌신하는 예배가 영적 예배입니다.

이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영적 예배자들이 추구하는 것 세 가지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록돼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3 가지 요소를 추구하므로 참된 영적 예배자로서 더욱더 세움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영적 예배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옛날 구약 시대 때처럼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동물을 잡아 제단이 올려놓고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는 영적 예배자로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은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로마서 6장12-13절에서 이미 바울이 우리에게도 말해 주었듯이 몸의 사욕을 순종치 않으며 또한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몸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삶을 살아드립니다. 즉, 영적 예배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참된 영적 예배자는 복음에 합당한 삶, 특히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 증인들의 삶입니다.

둘째로, 영적 예배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 참된 영적 예배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어떠한 세대입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12:39).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요 음란한 세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은 죄악과 음란이 가득 찬 세상입니다. 이 죄악과 음란의 물결이 풍랑처럼 우리 삶에 불어 닥치고 있는 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저 외부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내부적 변화를 말합니다. 이것은 내세의 표준에 맞는 깊이 있는 생활을 말합니다(박윤선).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의 삶에 핵심입니다. 영적 예배의 삶에 핵심은 바로 변화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배를 수백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변화되어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인 목사님들조차 변화되어가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에 한탄하며 포기한 듯 느껴지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되어가지 않는 설교자의 모습에 비판과 불만이 끊어지지 않는 듯 합니다. 종교적 예식인 예배는 습관적으로라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듯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어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예배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바른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예배를 수 없이 드렸었을 지라도 왜 우리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변화하는가 중요합니다. 악한 방향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방향으로 변화되던지(변질)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설교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으며(렘23:29) 또한 성령의 검(엡6:17)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설교자 자신이나 성도들은 강박한 마음이 부서지며 차가운 마음이 녹아지며 마음과 양심에 찔림과 더불어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강박케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말씀을 들으므로 마음이 강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이지만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악한 방향으로 변화를 받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이 세대를 본"받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예배자라고까지 자칭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늘려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욕심과 야망은 사람보기에겐 어떻게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이고 싫어하시는 일일 뿐입니다(사 1:13, 1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삶은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 변화를 받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비록 숫자가 많지 않을지라도 기드온의 300명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

과 죄악과 세상과 싸워 승리하는 영적 예배자들로 세움을 받아가는 공동체, 예배의 변화를 통하여 전 사역의 영역에 참된 변화를 가져 오는 공동체, 저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꿈꾸며 하나님께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대를 본 받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으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 사업을, 우리의 이웃과 사회와 나라를, 세계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예배 증인들의 삶입니다.

셋째로, 영적 예배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우리의 몸을 바치고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을 때에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결과 참된 영적 예배자는 영적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후 영적 예배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분별한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진심으로 순종할 마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요 7:17)(박운선).

하나님께서서는 그 분의 목적 또는 그 분의 뜻을 이루시므로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십니다(전3:1-14).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나 죽을 때나, 징계할 때나 회복할 때나, 울을 때나 웃을 때, 잠잠할 때나 말할 때, 또는 사랑할 때나 미워할 때, 온전히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이루시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송가 431장 “내 주여 뜻대로”란 찬송의 해설이 생각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후, 몇몇 루터파 개척교회가 있었으나 날로 쇠퇴해졌고 그나마도 로마 카톨릭의 세력에 의해 멸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648년 웨스트 페일리아의 로마 카톨릭교와의 평화조약(The peace of Westphalia) 덕분에 슈바이드닛츠에 단 하나의 루터교회가 잔존케 되었고 그 루터파 교회를 슈몰크(Benjamin Schmolck, 1672-1737) 목사가 담임하게 되었다. 36개의 부락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에서 단 한군데 루터교회의 담임 교역자로서 슈몰크 목사 내외는 대단히 어려운 목회 생활을 했다. 한번 심방을 나가면 할 온종일이 걸려 밤중에 오기가 일쑤였고, 어떤 때는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했다. 그 때 집에는 어린 아이들 밖에 없었다. 1704년 어떤 날 슈몰크 목사 부부가 심방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집은 불이 나서 온데 간데없고 폐허가 된 잿더미 속에서 소사(燒死)한 어린 아들 형제가 나란히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충격을 받은 슈몰크 목사 부부는 한순간 정신을 잃었으나 이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 때의 기도 내용이 바로 우리의 찬송가 431장의 가사이다: (1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2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3절)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인터넷). 이렇게 슈몰크 목사님 부부처럼 진정한 영적 예배자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뤄지길 원합니다. 바라

기는 우리 모두가 영적 예배자들로 세움을 받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며,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으며 그리고 온 맘과 정성 다해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된 예배 증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뤄지길 간절히 기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오 주님, 우리 모두를 예배-증인들을 세워주소서.)

변화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묵상]

우리가 이미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영적 예배의 삶에 핵심은 바로 변화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질문은 저와 여러분은 변화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까? 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예배를 수백 번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고 수없이 말해도 변화되어 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인 목사님들조차 변화되어가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에 한탄하며 포기하는 듯 해보이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변화되어가지 않는 설교자의 모습에 비판과 불만이 끊여지지 않는 듯합니다. 종교적 예식인 예배는 습관적으로라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듯 하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변화되어가지 않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우리 예배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한 바른 교리를 아무리 많이 알고 예배를 수 없이 드렸었을 지라도 우리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되어가고 있습니다.

변화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악한 방향으로 변화되든지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악한 방향으로 변화되던지(변질) 아니면 선한 방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의아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설교자인 목사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같고 방망이와 같으며(렘23:29) 또한 성령의 검(엡6:17)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으로 은혜를 받는 설교자 자신이나 성도들은 강박한 마음이 부서지며 차가운 마음이 녹아지며 마음과 양심에 찔림과 더불어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더불어 세워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바로는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오히려 말씀을 들으므로 마음이 강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순종은 축복이지만 불순종은 저주입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변화를 받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를 통하여 악한 방향으로 변화를 받는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도 "이 세대를 본"받을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교인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예배자라고까지 자칭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숫자를 늘려 교회를 성장시키려는 욕심과 야망은 사람보기에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한 일이요 싫어하시는 일일 뿐입니다(사 1:13, 14).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삶은 예배와 삶이 일치되어 변화를 받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3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할 3

가지 변화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를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나중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 볼 때 전보다 더 변화돼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마12:39)라고 말씀 하신 것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대를 가리켜 “이 악한 세대”라고 말하였습니다(갈1:4).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이 세상 풍속”(엡2:2) 또는 “육체의 욕심”(갈5:16)을 좇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기 전에 좇았던 이 세상 풍속 또는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비슷한 목록이 로마서 1장 29-31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함, 수군수군,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악함, 무정함, 무자비함. 문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사람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보다 아직도 옛 사람의 습관대로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텐데 아직도 옛 사람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아서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내가 주께 죄를 범치 아니하려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119:11).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두워진 우리의 미련한 마음대로(1:21), 또는 우리 마음의 정욕대로(1:24) 이 최악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마음에 변화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달란스 윌라드(Dallas Willard) 목사님은 그의 책 “마음의 혁신”(Renovation of the Heart)에서 “외면의 악을 확실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은 내면의 깊은 변화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윌라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외면의 악을 확실히 정복할 수 있는 것이 내면의 깊은 변화뿐이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육신의 가정 식구들이던 영의 가정 식구들인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겉으로 보이는 외면의 변화보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내면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제 개인 신앙생활 및 가정 사역과 목양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내면의 변화가 없이는 참된 외면의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면의 변화는 등한히 하고 외면의 변화에 너무 신경 쓰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이 표면적인 변화를

추구하다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행하기보다 오히려 거꾸로 세상에 영향을 받아 세상을 본받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범죄하며 변질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참 신앙이 좋아 보이고, 기도도 썩 잘하는 것 같고, 성경 지식도 있는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없기에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성품의 변화도 없고 행함의 변화도 잘 뚜렷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금년도를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 표어를 “말씀 묵상의 해”라고 정했습니다. 이 표어를 걸고 우리 온 승리교회 식구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1)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의 관점으로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2) 그리할 때 둘째로, 우리는 분별하게 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벧전1:22).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엡5:26).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여 듣고,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며 또한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 지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더욱더 예수님을 본 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생각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프랑스의 근대 합리론의 철학자 데카르(R. Descartes)의 이 말은 인간의 본질과 핵심을 드러내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입니다. 우리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 사람에게에는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은 본능적 충동으로 살아갑니다. “먹고 자고 생식하고 죽는다”라는 이 4 개의 단어로 동물의 삶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사고하는 존재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고 그 이성을 통하여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자입니다. 즉, 우리 인간은 살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런데 웬지 우리 사람들이 점점 더 생각하면서 살기보다 동물처럼 충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과 논리가 결핍된 감정과 충동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말한다면 우리가 “허망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허망하여졌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할찌라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허망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우리의 생각이 무가치하고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허망한 생각 속에서는 무가치한 일, 헛된 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한 일과 헛된 일이 교회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예로 교회 안에 “... 음행과 ...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범죄가 행해지고 있습니다(갈5:19-21).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 2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첫째로,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왜 분쟁과 분리함 등 이런 저런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까? 교만함 때문입니다. 왜 영적 우울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왜 선입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분수에 넘치게 평가해서 그런 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3절).

(2) 둘째로, ‘겸손히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한 마디로, 분수 있게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히 생각하라는 말씀이요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정신 차려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박윤선). 은혜를 아는 자는 겸손합니다. 결코 은혜를 아는 자는 분수에 넘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한다고 말하면서(3절)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겸손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편지로나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생각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갈 때 우리의 생각 또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새롭게 되는 마음과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은 결코 주님 앞에서 교만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되는 마음과 복종하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생각의 변화가 계속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생각하는 가운데 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삶의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삶 또한 자연스럽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까? 더 이상 이 세상의 풍속이나 육체의 욕심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한 마디로,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 가운데 맺는 삶의 열매는 바로 “거룩”입니다. 과연 “거룩”이란 무슨 뜻입니까? “거룩”이란 히브리어 코데쉬는 부정한 것을 잘라 내어 구분하고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 성도의 삶은 세상과 죄악과 분리된 삶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한다면, 성도의 삶은 비세속적인 삶을 가리킵니다. “성도”라는 헬라어 “히기오스”, 거룩함은 “하”라는 부정어와 “개스”라는 땅, 세상이란 단어의 합성어로 비세속적이다는 뜻입니다(인터넷).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속화 되었습니다. 왜 교회가 세속화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세속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면서 우리의 생활 패턴이 전반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있는 삶은 결코 성도의 삶,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삶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Gospel-Powered Parenting”(복음에 힘을 얻는 양육)이란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이 우리 부모들을 변화시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지 가르쳐 주는 책입니다. 이 책에 4장을 보면 저자 William P. Farley 목사님은 “A Holy Father”(거룩한 아버지)란 제목 아래 가정의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들이 거룩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uch is holiness of the Father that when his Son bore our sin and transgressions, God separated himself from him”(Farley)[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이란 그의 아들(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걸머지시고(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마27:46)라고 부르짖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그의 아들과 분리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걸머지신 독생자 예수님과도 스스로 분리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세속화되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언행을 일삼아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거룩한 삶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죄악된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 우리 생각의 변화, 그리고 우리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더욱더 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변질이 아닌 변화를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왕궁보다 광야를 사모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로마서 12장 3-8절 말씀 묵상]

과연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던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지 않으신 분은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것입니까? 아마 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뒤돌아볼 때 뭔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양심에 거리낌이 있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표면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아 저 형제님,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신다’라고 말할 때 무엇을 보고 우리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열심히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성수주일?), 기도도 참 잘하고(물론 새벽기도회도 열심히 나오고), 교회 봉사도 참 열심히 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열심히 섬기는 등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주로 ‘아 저 형제님, 자매님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신다,’ ‘참 신앙이 좋은 것 같다’ 등등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것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못하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으로 우리 각자의 양심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깨달음도 주십니다. 과연 그 깨달음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주십니까?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시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아가게 하시사 우리 자신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죄의 많음과 큼과 깊이를 깨닫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하고 크고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성도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달아 가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의 삶! 과연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계십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깁니다. 섬기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섬깁니다.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란 제목 아래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3-8절 말씀 중심으로 2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과연 교회란 공동체는 무엇인가?”와 둘째로, “교회란 공동체를 섬기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는 무엇인가?”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바른 교회론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대로 바로 섬겨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주님의 역사에 겸손히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

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교회란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4-5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란 공동체는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그는 교회란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되 “한 몸”(4, 5절)임을 강조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한 몸에는 “많은 지체”(4절) 또는 “많은 사람”들(5절)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그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습니다(고전 12:12).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습니다(18절). 한 마디로, 교회란 다양성과 통일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주신 마음은 우리 교회 식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다양성(diversity)을 인정하면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unity)을 지켜 나아가는데 헌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통일성”이란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one body)이라는 사실입니다(4, 5절). 그리고 이 “한 몸”에는 다양한 사람들, 지체들이 있는데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5절).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2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몸 안에 있는 지체들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엡 1:10).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4:3).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으로써 교회의 통일성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다양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한 2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의 다양성이란 첫째로 “많은 지체”들(many members) 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과 둘째로 다 “같은 직분”(the same function)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지체가 다양하지 않고 다 입이라면, 다 코라면 다 팔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코도 있고 입도 있고 팔도 있고 등등 우리 몸에는 있어야 할 것들이 골고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고르게 하셨습니까(고전 12:24). 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고르게 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4절 하반절에서 25절을 보십시오: “...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고르게 하셔서 “몸의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도 있고(22절), “덜 귀히 여기는” 지체도 있고(23절) 또한 “아름답지 못한 지체”(23절)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르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시라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서로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현재 교회 안에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까? 왜 하나가 되어할 교회가 두 개, 세 개를 갈라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통일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으로 인하여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그 원인은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분

쟁의 원인은 우리 지체들이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4절). 우리 각자 다 그리스도의 한 몸에서 받은 은사도 다르고(6절) 또한 역할(기능)(4절)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의 받은 은사와 역할을 존중하지 못하고 우리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다른 지체들의 책임을 묻고 따지는 가운데 교회가 분쟁 가운데 휘말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교회의 분쟁의 원인은 교만한 생각, 분수 넘치는 생각 때문입니다. 왜 우리들은 분수 넘치게 교만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는 첫째로 각각 다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사용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주님에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각각 다른 은사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6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바울은 한 7 가지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맥아더):

(1) 첫째로, 예언에 은사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혹은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은 꼭 미래를 예상하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기보다 듣는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힘을 주고자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은사는 공적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의 전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는 “믿음의 분수대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6절). 다시 말하면, 바울은 충분히 계시된 메시지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인 믿음의 몸 안에서(full revealed message or body of Christian faith) 예언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 둘째로, 섬김의 은사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여기서 “섬김”이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집사”란 의미(섬기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와 있는 돕는 은사(the gift of helps)랑 비슷합니다. 섬김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모든 종류의 실제적인 도움을 줍니다.

(3) 셋째로,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이 은사는 하나님의 진리를 해석하며 명백하게 하며 조직화하며 또한 명백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목사에게는 절실히 필요한 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교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은사입니다.

(4) 넷째로,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이 은사를 가진 자는 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며 좃도록 효과적으로 부릅니다. 이 은사는 부정적으로 적용한다면 죄를 지은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면책하며 바르게 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면(딤후4:2) 긍정적으로 적용한다면 이 은사는 고심하는 신자들을 위로하며, 권면하며 힘을 주는데 사용합니다.

(5) 다섯째로, 구제하는 은사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이 은사는 한 마디로 주는 은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주는 은사를 받은 형제, 자매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자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귀한 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은사가 있는 사람은 성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낌없이 또는 관대하게(generously) 베풀라는 것입니다.

(6) 여섯째로, 다스리는 은사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8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여기서 ‘다스리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앞에 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 은사를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행정의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다스리는(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인도하되 마치 배에 키를 잡고 조종하는 사람처럼 안내합니다. 안내하고 인도하되 이 다스리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7) 일곱째로,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고통을 당하며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민감하며 또한 동정(공감)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은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을 줄이고자 자기의 자원을 사용하여 기꺼이 도와줍니다. 도와주며 즐거운 마음으로 도와줍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슨 은사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기도회 때 찬송가 246장(“내 주의 나라와”)를 성도님들과 함께 부른 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통성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찬송가를 부를 때 가사 1절과 3절이 마음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1절)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3절)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더욱더 헌신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길 원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큼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달아 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각자 주어진 은사를 겸손히 바르게 사용하여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힘써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데 헌신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일 오후 목양실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분쟁 원인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로마서 12장 6, 16절).

우리는 교회 분쟁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사랑해야 할 교회가 왜 서로 다투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과연 교회의 분쟁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다양성을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부부의 분쟁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하곤 합니다: ‘당신과 나는 그저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은 아니야.’ 그런데 실제로 부부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저 좀 다를 뿐이다’(We are just different)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 ‘당신은 틀렸다’(You are wrong)라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결과 부부는 다투게 되고 싸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관계가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인간관계를 보면 다투며 싸우는 이유는 ‘그저 다를 뿐인데 당신은 틀렸다’라는 생각과 자세로 서로를 대하므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자세 가운데 ‘나는 맞는데 ...’라는 교만함의 쓴 뿌리가 있습니다. 즉, ‘나는 맞는데 당신은 틀렸다’라는 뿌리 깊은 생각이 도사리고 있기에 상대방을 비판하고 결국은 비방하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쟁의 깊은 원인은 교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12장16절에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는 원인은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난 지혜롭고 당신은 미련하다’는 자세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입니다(약3:15).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14절). 만일 자랑한다면 그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 하는 것입니다(14절).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 화평케 하는 자들로서(약3:18) 우리에게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은사’ 기준으로 다른 지체들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판단하며 비판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는 통일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받은 지체들이 모여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은 바로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빌 2:5). 자기를 비우며 자기를 낮추는 마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위로부터 온 지혜로 서로 관용하며 화평한 가운데서 각자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들을 충분히 사용하여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엡4:3).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힘써 지켜 나아가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화목한 육신의 가정과 영적인 가정인 교회가 되기를 위하여 기원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로마서 12장 9-13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교회란 공동체를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공동체”를 생각할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초대교회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 ‘과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초대교회처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그리할 때 저는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통하여 얻는 5가지 단계를 잊지 못합니다: (1) 첫째는, 약 120문도 함께 모여 합심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행1:14), (2) 둘째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2장), (3) 셋째로,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4:31), (4) 넷째로, 주님께서 주님의 몸 된 교회에 구원 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2:47), (5) 마지막 다섯째로,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2:42-47; 4:32).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첫 번째 단계인 “기도”입니다. 물론 개인기도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중요시하는 기도란 합심기도입니다. 온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내가 …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16:18)를 붙잡고 합심하여 하나님께 함께 부르짖고 싶습니다. 물론 매 달 첫째 주 금-토 1박2일 기도 모임 때도 함께 기도하고 싶고 또한 매 주일 중보기도 시간에, 그리고 수요기도회 때도 합심하여 기도하고 싶지만 특히 저는 새벽기도회 때 주님께서 5명의 신실한 기도자를 보내주셔서 함께 합심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란 제목 아래 로마서 12장 3-8절 말씀을 한 두 가지로 묵상했었습니다. (1) 첫째로, 교회란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교회의 통일성) 또한 그 한 몸에는 많은 지체들(교회의 다양성)이 있는데 다 같은 직분을 가진 것아 아님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2) 둘째로, 우리가 배운 것은 교회란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각각 다른 은사를 겸손히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다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6-8절 중심으로 7가지 은사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각각 다른 이 7가지 은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받으신 은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를 바로 사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저와 여러분은 헌신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13절 말씀 중심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받아 실천해 옮기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선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거짓이 없는 사랑은 한 마디로 말한다면 위선이 없는 사랑입니다. 위선적인 사랑은 어떠합니까? 입술로는 ‘I love you’(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미워하는 것, 이것이 위선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주님을 존경한다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주님을 떠나 자꾸만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적인 사랑입니다. 저는 지난 주 새벽기도회 때 레위기 5장 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진실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라는 제목아래 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로 적어 보았습니다. 증인으로서 우리가 보고 들은 일을 진술하지 않는 것, 그 죄와 허물이 우리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 말씀 묵상 끝 부분에 “마음의 거짓과 위선을 경계하면서”라는 글로 말씀 묵상을 끝맺었습니다. 그렇게 적은 이유는 제 마음의 거짓과 위선이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실보다 거짓과 위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거짓과 위선이 제 마음에 침투하여 불일치한 언행의 삶을 살아가므로 제 주위에 모든 심령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들에게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과연 거짓이 없는 사랑, 위선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좇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에 힘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선 우리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10절). 과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1) 첫째로, 우리는 서로 우애해야 합니다(10절).

이 말씀은 우리가 한 가족과 같이 영적 인연에 서로 끌려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다(박윤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가 속해있는 공동체가 우리의 영적 가족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한 가족임을 알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2) 둘째로, 우리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야 합니다(10절).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먼저 교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모습 하나님 보

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입장에서 성도님을 먼저 존경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서로 먼저 존경하는데 힘을 쓸 때 주님의 몸 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경을 먼저 받으려고 하기보다 먼저 존경을 주는 자들이 되어 합니다.

(3) 셋째로, 우리는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함께 섬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1절을 보십시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꿈꾸는 사랑의 공동체는 우리 서로 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랑의 공동체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섬김으로 표현합니다. 섬기되 온 교회 식구들이 겸손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은혜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섬기되 우리는 부지런히 섬기며 또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11절).

(4) 넷째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며 인내하는 가운데 특히 기도에 항상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2절을 보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도 겪어야 할 환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부르짖는 가운데 인내하며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히려 교회적으로 오는 어려움은 우리 온 교회 식구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 합심하여 기도케 만드는 기회(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소망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과 역경조차도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꿈꿉니다.

(5) 다섯째로, 우리는 서로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3절을 보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기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는 말씀은 ‘의 좋게 윤통하여 나누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요 우리는 서로에게 지체가 되므로 서로 나누는 공동체 삶을 살기를 힘쓰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나누는 삶을 살기를 힘쓰는 자는 손님 대접하기를 또한 힘씁니다. 이것은 섬김의 은사가 있어서만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섬김의 은사가 있든 없던 이것은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의 삶의 원리로서 우리가 마땅히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는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을 사랑하며 또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영적 가족임을 믿고 서로 사랑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힘쓰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소망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인내하며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서로 쓸 것을 공급하며 나누

는 삶을 실천에 옮기는 가운데 대접하기를 힘쓰는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온 교회 식구들이 다 함께 부지런히 그리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는 사랑의 공동체를 섬기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의 불타는 전도자와 위로자로 세움 받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로마서 12장 14-21절 말씀 묵상]

성경을 읽다보면 참 어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도 많지만 아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괴로운 것은 깨닫는 그 말씀들조차도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양심에 찔림 속에서 좀 괴로워하다가도 지나고 나면 양심에 찔림도 없어지고 그저 그런가보다 라는 식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갑니다. 아마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는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여기서 “이웃”이 누구 인가 라는 질문도 던져가면서 그저 사랑스럽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하려는 경향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가도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마5:46)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명령인 마태복음 5장 44-45절 상반절과 같은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잠언 25장21-22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편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면 숯불을 사람 머리에 놓는다는 말씀은 우리 원수와 연관(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연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옛날 이집트 문화에 사람이 자기의 죄를 뉘우친 것을 공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길 원하면 숯불이 담긴 화로를 그의 머리에 놓고 걸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숯불”은 그 사람의 수치심과 죄책감의 타오르는 고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맥아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잠언 기자나 오늘 본문 로마서를 쓴 저자 바울이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까지도 사랑을 베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두 가지라 생각합니다: 첫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에게 사랑을 베푸면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미움과 원한, 증오, 적개심에 대한 수치를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맥아더).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에게까지도 사랑을 베푸면 그들의 차갑고 강박한 마음이 불에 녹듯이 변하여 우리의 새로운 친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한 마디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을 요약하자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렇게 하므로 우리 원수들의 마음도 녹여서 주님 안에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입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원수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주님 안에서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좁게 주님의 몸 된 교회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원수들이 물론 교회 밖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원수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끼리의 관계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21절 말씀의 문맥을 볼 때 로마서 12장 9-13절 말씀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란 제목 아래 말씀을 묵상했듯이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시는 역사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해야 하는 것인지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교훈이란 교회 안에서도 원수처럼 여기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서 주님 안에서 친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사랑하여 그들의 마음을 녹여 주님 안에서 친구로 만들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한 4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순종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를 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비결이 마태복음 5장 11-12절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축복하기 위해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사실, 즉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는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원수들을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축복해야 합니까? 물론 오늘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좀 더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축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 되었은즉 화목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원수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축복은 그의 아들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을 항상 감사하는 은혜를 아는 성도들은 ‘나 같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물며 사람과의 원수 된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하겠는가’라는 자세로 원수를 사랑하여 저주하지 않고 축복해야 합니다. 마치 구약 성경 민수기 22-23장에 나오는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부탁인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였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시는 말씀만 말한다고 하여 저주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한국 복음성가에 “축복의 통로”라는 곡이 한 두, 세 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곡들 중 김수지란 분이 작사, 작곡한 곡을 보면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

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 안에 나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게 하셔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인터넷).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용서할 때 우리는 그 핍박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체휼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이것도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도 체휼을 잘 못하는데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 체휼할 수 있습니까?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참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항상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며 상처를 주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자들로 인하여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체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일지라도 그들과 체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들과 함께 울어야 합니다. 즉,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핍박하는 형제, 자매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들이 울 때에 함께 울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며 핍박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가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고 그가 울 때 함께 울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가 울 때 우리는 기뻐하고, 그가 기뻐할 때 우리는 분노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비결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계시기에 우리 또한 우리의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그들의 연약함을 체휼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저와 여러분에 체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라.”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란 무슨 마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빌2:5). 그 예수님의 마음이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높은데 두지 않고 낮은데 처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체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형제와 함께 기뻐하며 우는 형제와 함께 우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7절을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기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말씀은 복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왜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이유를 박윤선 박사님은 한 여섯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특히 마지막 여섯 번째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복하는 행동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박윤선). 보복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는 싸인입니다. 우리는 보복할 생각을 하고 또한 보복 행동을 하기보다 원수 갚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도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원수 갚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실 것이기에 우리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악으로 악을 갚기보다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했는데 어떻게 악으로 갚기보다 선한 일을 도모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가야 합니다(21절).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선한 일을 도모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게 악으로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들에게 악으로 갚기보다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18절을 보십시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 하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17절)고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18절)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과 화목 하라는 말씀은 그저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화목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우리의 원수들과도 화목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에베소서 2장 14-16절이 생각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 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께서서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시므로 말미암아 원수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지간이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화목케 하시사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마5:9).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12장 14-21절은 우리에게 네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 첫째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원수를 축복해야 합니다, (2) 둘째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까지도 체휼해야 합니다, (3) 셋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4)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합니다. 이 교훈들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유대인들, 자기를 십자가에 못박는 핍박자들조차도 사랑하셨던 예수님, 원수조차도 사랑하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체휼하시사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여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셨으며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또한 서로 화목케 하셨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원수를 축복하며, 원수와 체휼하여, 선을 행하며 화목하길 기원하면서)

정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7절 말씀 묵상]

제가 제 아내하고 대화를 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대화를 피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될 수 있는 데로 저는 제 아내하고는 이 주제로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피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다름 아닌 “교회와 국가의 분리”(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입니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1947년 미국의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종교의 완전한 분리가 국가적인 측면에서나 종교적인 측면에서 최선이라는 믿음을 근거로 우리나라의 존재의 경계를 표시했다”(인터넷).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분리로 통합된 미국인들은 1987년 앨러바머 학교의 재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미국은 서로 다른 많은 종교인들과 비종교인들이 섞여 있는 국가를 이루고 있다. 종교에 대한 정부의 중립성은 종교생활의 풍부함과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수정헌법의 조항은 이러한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부가 특정한 종교를 편애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해 준다”(인터넷). 이러한 재판에 관한 말이나 대법원 선포 내용은 교회와 국가를 분리하는 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혁주의 전통은 교회와 국가의 분리에 관한 문제에 강하게 주장하지 않으며, 교회는 법인자격으로 정치적인 분야에 참여하는 것에 삼가야 한다고 제안한 그레삼 메이첸으로부터 그 견해를 지지 받는다”(인터넷). 동부 웨스트민스터에 교수님이셨던 고 메이첸 교수는 “개개인 기독교인들은 국가 법률을 준수하지만 정치에 개개인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행위에서와 정치에 참여하는 것과 공동체 교회 기구가 정치에 참여 하는 것 사이에 강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인터넷).

우리 장로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The 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이란 1647년 영국 웨스트민스터에서 모인 신학자와 목사들의 총회에서 승인된 신앙고백서로서, 스코틀랜드와 영국과 아일랜드에 있는 성공회의 개혁을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열린 교회회의에서 장로주의에 입각하여 제정, 채택한 신앙고백입니다(인터넷).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23장을 보면 “국가의 위정자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23-1을 보면 국가적 “권세의 원천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계의 가장 높으신 주이시며 왕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 아래 백성들 위에 국가의 위정자들을 세우셨고, 이 목적으로, 선한 자들의 변호와 격려를 위해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형벌을 위해 칼의 권세로 그들을 무장시키셨다”(인터넷).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만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면 정권에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정권에 복종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모든 정권은 다 하나님께

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을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바라.” 무슨 말씀입니까? 21세기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미국 정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미국 정부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느 면으로 보면 지금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도 로마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비록 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라 할지라도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부에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되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권에도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저는 로마서 12장 14절을 듭니다. 바울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자기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특히 외부적으로 로마 정부가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에게도 복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1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권에 복종하지 않고 거스른다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 것이요 하나님을 거스른 것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입니다(2절). 물론 이 말씀은 무조건 정권에 복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부패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을 제도화 하여 모든 시민들로 따르고 명할 때 우리는 그러한 명령에는 굴복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굴복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 한 예로 동성의 결혼을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동성의 결혼을 나라의 법으로 만들게 된다면 그 법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법(말씀)에 어긋나는 나라 법인데 그 나라 법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에 복종하되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 안에서 나라 법을 우리는 거스르지 말고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정권에 복종해야 합니까? 바울은 그 대답을 오늘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즉, 우리가 복종해야 할 정권은 그 원칙에 있어서 악을 방지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복을 정당하게 실시하는 정권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복종해야 할 정권은 공의를 행하는 정권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여 선행은 장려하고 악행은 보응(심판)하는 정권을 우리는 복종해야 합니다. 만일 정부가 부패하여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정권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 정부가 부패하여 원칙이 없이 악을 장려하고 선을 방지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정권을 믿고 복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만일 정부가 원칙에 있어서 악을 방지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복을 정당하게 실시하는 정권이라면 우리는 그러한 정권에는 복종해야 합니다. 복종하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의를 행하는 정권에 복종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 3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을 두려워하며 존경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3절과 7절을 보십시오: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 “...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만일 우리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범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4 권세를 세우셨습니다: (1) 첫째로, 모든 시민을 위하여 정부를 세우셨고, (2) 둘째로, 모든 신자들을 위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3) 셋째로,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님을 세웠으며, (4) 마지막 넷째로, 모든 종업원들을 위하여 주인들을 세우셨습니다(맥아더). 그런데 예를 들어 만일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아버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할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종업원이 사장님의 권위를 무시하면 사장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시민들이 나라에 권력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공권력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범죄 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 나라는 무질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만일 너희가 악을 행하면 정권에 보응을 두려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4절). 만일 우리가 정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 하면 “하나님의 사자” 즉 하나님께서 나라의 문화와 질서를 보전하시고자 세우신 정부의 관원들이 악을 행하는 우리에게 보응할 것입니다(4절)(맥아더).

우리가 나라 법을 어기면 벌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법을 어길 때 벌을 받아야 공권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살아도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법을 어기는 것이 담대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을 두려워하며 존경하여 나라의 법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선을 행하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한 마디로, 선을 행하면 칭찬이요 악을 행하면 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선상악벌”이라고 하고 유교에서는 “권선징악”[勸 : 권할 권, 善 : 착할 선, 懲 : 징계할 징, 惡 : 악할 악]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인터넷).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권에 복종하려면 우리는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선을 행하되 우리는 정권을 두려워해서 하기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3절 하반절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이유는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선을 행하기에 힘을 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를 보면 한 2 가지 극단주의로 흘러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쪽으로 교회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회에 선행을 행하지 않는 것이요 다른 한 쪽으로는 사회에 선을 행하기에 힘쓰면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저는 요즘 추세는 두 번째라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선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과 삶으로 전파되고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

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전에는 제가 알기론 개신교인 교회보다 구교인 가톨릭에서 사회에 선행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고아원 사역도 많이 하고 빈민 구제나 이런 저런 사회에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교회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선행을 잘 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사회에 참여하여 이런 저런 선행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 제 생각으로는 복음의 맛이라 할까요 잊어버리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복음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으로 행하므로 교회도 사회와 나라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양심을 인하여 정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바울은 우리가 국가의 명령을 순종하는 동기가 정권 잡은 자들의 노를 면하려는 데만 있는게 아니라 우리의 양심에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진실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 한 예로 우리는 옳은 줄 알고 진실히 실행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6-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군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 정권에 복종하되 양심에 세금을 내는 게 옳은 줄 알고 진실히 실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오래 전에 김동길 연세대 명예 교수님이 여기 엘에이 오셔서 어느 집회인지 아니면 라디오 방송에서인지 한 말이 기억납니다. 그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라에 세금을 좀 바치라는 면책의 말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시민으로서 기본적인 나라에 세금도 내지 않는 게 됩니까 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나라에 세금을 바치는 게 시민의 책임이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우리는 나라에 혜택을 누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양심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성경 마태복음 22장17-21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올무에 걸리게 할까 하여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을 함께 예수님께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까”(17절). 그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였습니다(21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에 바칠 세금을 바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받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라고 말씀 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바리새인들과 같은 위선자들처럼 하나님께만 헌금을 받치면 나라에 세금을 바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기론 세금 보고를 4월초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세금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3장 4를 보면 “위정자에 대한 교인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세금과 기타 낼 것들을 내며, 그들의 합법적 명령들을 순종하며, 양심 때문에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들의 의무이다. …”(인터넷).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권에 복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두려워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에 살면서 선행을 일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껏 세금을 나라에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사모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기원하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로마서 13장 8-10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인간관계를 잘 하고 계십니까?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준 인간경영의 영원한 고전이 있습니다. 그 고전 책 이름은 바로 “카네기 인간관계론”입니다. 이 책을 쓴 저자는 인간관계의 대가라 여겨지는 데일 카네기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30개 인간 관계에 대한 명언 중 몇 가지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길 원합니다(인터넷): (1) 진심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을 가져 보세요, (2) 좋은 경청자가 돼보세요. 상대방이 자신에 대해 스스로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도록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3)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화제로 삼아보세요, (4) 조그만 발전에도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세요, (5) 상대방의 의견에 비판, 멸시, 불평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알고 있는 말들이지만 실제로 삶의 인간관계에서 적용하기가 어려운 교훈들이 아닙니까?

저는 지난주 새벽기도회 때 사사기 8장과 9장을 이틀 연속 묵상하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말씀 묵상에서 주신 교훈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온유함 또는 겸손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자세가 중요함을 배웠습니다(빌2:4). 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므로 나의 공로보다 상대방의 공로를 더 높이 평가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므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내가 상대방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데로 상대방을 대접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문제는 이 배운 교훈을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인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10절에서 바울은 피차 사랑, 즉 서로 사랑할 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예수님이 주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22:37-39)는 두 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은 성경 누가복음 10장 25-37절에서도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하는 한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26절)고 물었을 때 그 율법사는 예수님의 두 계명을 말하였습니다(27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28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29절). 그 때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30-35절). 요약하자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31-32절). 그런데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36절)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이 율법사의 대답은 “자비를 베푸는 자니이다”였습니다

(37절). 이렇게 바로 대답하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서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37절)였습니다.

우리는 가서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웃은 물론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즉, 서로 사랑하는 말씀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끼리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좀 더 넓게 생각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부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말하고 있는 이웃 사랑은 원수 사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한 2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 우리는 이미 로마서 13장 1-7절에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 즉 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정권에도 굴복(복종)할 것은 권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복종하되 양심으로 인하여 하라고 권면하면서 로마 성도들에게 공세, 즉 나라에 세금을 바칠 것을 바치라고 권면한 것을 우리는 목상했습니다. 그런 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상반절에 와서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혀 빛을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럼 학교 다닐 때 은행에 용자해서 빛을 지는 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사업할 때 은행에서 용자해서 빛도 지지 말아야 하고, 사업을 할 때도 은행이나 주위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리지 말아야 합니까? 그런 뜻입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구약이나 신약 성경은 빛을 지는 것을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출22:25 ; 레 25:35-37 ; 시 37:26 ; 마 5:42 ; 눅 6:35)(코트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빛을 질지라도 약속한 대로 양심 것 다 갚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라에 빛을 졌으면 나라에 갚아야 합니다. 즉, 세금을 내야 할 것을 내지 않았으면 내라는 말입니다. 그와 더불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빛을 졌으면 빛을 갚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을 지지 않고 살기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재정난을 겪을 때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야 할 상황에 충분히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보면 학자금을 은행에서 용자할 수밖에 없을 수 있고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은행이던 친구도 심지어 교회 식구들에게도 돈을 빌리지 않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성경이 금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 출애굽기 22장2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채주 같이 하지 말며 변리를 받지 말 것이며”. 무슨 말씀입니까? 신약시대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교회 안에서 좀 재정적으로 힘든 형제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면 채주같이 빛 독촉하지 말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돈을 빌려 주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돈을 빌린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빚을 갚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빚을 졌으면 계약한대로 실천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려 빚을 졌다면 은행과 계약한대로 빚을 갚으라는 말입니다. 매달 매달 꼬박 꼬박 내야하는 일정한 금액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때 그 때 계약한 대로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갚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돈을 빌렸으면 한꺼번에 다 갚을 수 없을 때 돈을 빌려준 자하고 매달이던 일정한 액수를 갚기로 계약이나 약속을 했으면 바울은 양심 것 그것을 실행에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돈을 빌려주고 하면서 돈을 빌린 사람이 약속을 지켜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제 개인적 생각은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아예 아무 빚을 지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에 관계도 돈으로 인하여 깨지지 않고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7절에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빚을 졌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로서 양심 것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의 핵심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핵심 내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말씀일 뿐입니다. 그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빚을 지는 것이요 이 사랑의 빚은 서로 지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은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의 빚을 다 갚았나요? 갚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지되 우리는 영영히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빚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서 권면하기 시작하여 오늘 본문에 와서는 모두다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들로서 내부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나 할 것 없이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 가면 알아갈 수록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 수평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을 서로 베풀며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414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비칠 때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세지말에 대한 징조 예언의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면서의 기쁨보다 우리는 점점 더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말세지말의 예언의 말씀이지만서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난 주 저희 교회가 소속돼 있는 노회 모임 폐회 예배 때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2장1-7절 말씀 중심으로 참석하신 모든 노회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 요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처음 사랑”(our first

love)을 기억하고(Remember), 회개하며(Repentance) 그리고 회복(Rekindled)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느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때 그 순간 들처럼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첫 사랑을 회복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기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열정 등등을 불타오르길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어디서 우리가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계2:5).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충만하여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빛을 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9절을 보십시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 교회가 금년을 맞이하여 “말씀 순종의 해”란 표어를 걸고 이렇게 약 3개월 왔습니다. 왜 “말씀을 순종의 해”란 표어를 걸었는가 하면 그 이유는 금년 표어 구절인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 새해 우리 모두가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 순종의 해”라고 표어를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9절에서 성경은 마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듯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계명은 4개 입니다. 그 네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네 계명 모두 사람이 사람에게 대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참으로 지킬 수 있는 계명입니다(박윤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네 계명을 힘써 지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 사랑함을 나타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우리는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 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떻게 간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28절에서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서도 간음의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이 남자가 여자를 보고 (또한 여자가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마음에 이미 간음한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마음으로 간음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2) 우리는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서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계명도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상대방을 살인하는 죄를 누가 범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일서 3장15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충분히 서로 살인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살인죄란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이 안 된다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3) 우리는 도적질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경 말라기 3장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것인 십의 일을 하나님께 받치지 않는 것을 도적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은 마치 하나님의 것인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이 도적질이라면 교인들끼리 서로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는 것도 도적질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치 십일조를 하나님께 받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라고 말라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도적질을 해 놓고도 우리가 언제 도적질했냐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은 삼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피지 못할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돈을 빌렸으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만일 갚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4) 우리는 탐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계명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계명 중 열 번째 계명입니다: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네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출20:17).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의 것을 탐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남이 소유한 것을 부러워해서 질시하므로 탐을 내서는 아니 됩니다. 상대방이 돈이 많다고 상대방의 돈을 탐내서도 안 되고 또한 상대방의 아내나 남편이 예쁘고 잘생겼다고 하여 탐을 내서는 아니 됩니다. 결국 탐심이란 것이 간음죄도 범하게 하고 살인죄도 범하게 하며 또한 도적질도 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매우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탐심이 들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이 네 계명을 지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네 계명 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명이 더 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계명인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9절). 그 이유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예수님의 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이 모든 계명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동기로 형제, 자매들들 서로 사랑하는데 더욱더

헌신하여 힘쓸 수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므로 서로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힘쓰십시오. 그러므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랑의 공동체로서 본이 되어 증인의 공동체로서도 쓰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우리 승리공동체 식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데 헌신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을 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힘써 지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승리공동체를 통하여 사랑의 향기를 이 사랑이 식어져 가는 세상에 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승리장로교회,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데 헌신하면서)

이 시기를 아십니까?

[로마서 13장 11-14절 말씀 묵상]

과연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국어가 짧고 오타를 자주에서 한국어가 틀릴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종려주일 주보를 만들 때마다 “종려”라고 적지 못하고 “종료”라고 적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는 한국어는 틀렸지만 왠지 이렇게 종려주일을 맞이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종료인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종려주일은 고난(수난)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내일부터는 고난 주간, 그리고 금요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금요일, 이렇게 매년 종려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전도서 3장 1-14절 말씀 중심으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었습니다. 그 묵상한 말씀 중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전도자 솔로몬 왕은 “천하에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의 목적을 이루어 나아가심에 있어서 어느 때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 써내려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과연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시기”는 어떠한 시기입니까? 한 2 가지로 바울은 우리에게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 시기란 바로 주님의 재림 시기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온 시기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이 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고 말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 뜻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입니다(11절). 다시 말하면, 지금은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요,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우리들의 구원의 때. 즉 우리 구속의 마지막 단계인 영광(Glorification)이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11절).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죽어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 시간이 흐른 그 만큼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 더욱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둘째로, 그 시기란 바로 자다가 깰 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만큼 저와 여러분이 잠에서 벌써 깰 때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다가 깰 때”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의미는 지금은 최악의 잠에서 깨어 일어날 때란 뜻입니다(박윤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인 만큼 최악이 극도에 이르는 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울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12절). 여기서 “낮이 가까웠”다는 말씀은 빛 되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고 “밤이 깊어”졌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만큼 이 세상에 최악의 밤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기에 이 세상의 최악의 밤이 더욱더 깊어 졌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과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드려야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이 때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1)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8-10절).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1절을 헬라 원문으로 보면 이 구절 첫 머리에 “kai touto”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영어 NASB 성경은 이 문구를 “And this do”라고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로 번역한다면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구는 “또한 너희가 이것을 더욱 행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박윤선). 여기서 “이것”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과연 우리가 무엇을 더욱 행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묵상한 로마서 13장 8-10절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임을 알고 더욱더 힘써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말세지말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는 피차 사랑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등.

(2)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2절을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운 이 때에 우리는 최악의 밤이 더욱더 깊어졌음을 깨닫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일들을 모두 다 벗어 버려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벗어 버려야 할 이 세상의 어두움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a) 첫째로, 우리는 어두움의 일인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방탕이란 무엇입니까? 원어인 헬라어 단어 “κῶμος, kōmos”는 원래 그리스 신화

에 등장하는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영화롭게 하는 축제 과정에 사용되었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중엔 과도하며 아무 제약을 받지 않는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파티, 술을 마시며 흥청거리며 미쳐 날뛰는 술 파티 등에게 부정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코트렐). 결국 사람이 방탕하게 되면 술에 취하여 절제력을 잃고 흥청망청 되면서 범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묵상한 전도서 2장 3절을 보면 솔로몬 왕은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자기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의 결론은 무엇이겠습니까? 술 취함으로 쾌락을 얻고자 한 자기의 수고가 헛된 것이요 무익한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11절). 과연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과연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방탕함과 술 취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갈5:19). 이 육체의 일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b) 둘째로, 우리가 또한 벗어 버려야 할 어두움의 일은 바로 “음란과 호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음란과 호색이 가득찬 이 세상, 과연 왜 이렇게 음란과 호색이 가득찬 것입니까? 저는 그 원인을 우리가 이미 묵상한 로마서 1장 24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 교만하여(1:22) 씩어지지 아니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기 때문입니다(23절). 우리는 이미 묵상한 로마서 13장 8-10절을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 중 하나가 바로 “간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 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어 버려야 하는데 그 어두움의 일 중 하나는 바로 “음란과 호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란”이란 헬라어 단어인 “κοιτην (koitē)”의 문자적 의미는 ‘침대’(bed)입니다. 이 단어는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오늘 본문에서는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여졌는데 그것은 무차별한 성적 혼합 (sexual promiscuity), 또는 성적 과잉(sexual excesses), 그리고 매춘행위(harlotries)를 가리킵니다(코트렐). 그리고 “호색”은 “예의를 문란하게 하며 색을 탐하는 행위”로서 “불건한 언사, 혹은 불결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박윤선). 이러한 권면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취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좇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색욕을 좇아서는 아니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일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만큼 우리는 이러한 육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c) 마지막 셋째로, 우리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이 때에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쟁투와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투”란 무엇입니까? 쟁투란 다툼의 기질, 언쟁과 사소한 일로 다투는 영을 가리킵니다. 쟁투란 상대방을 해가 될지언정 자기가 원하는 길을 걷고자 적대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반영합니다(코트렐). 우리는 이러한 쟁투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인간관계에서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기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툼과 분쟁 속에서 결국 영의 일을 도모하기보다 육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육의 일, 어두움의 일을 벗어 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무엇입니까? 한 2 가지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1) 첫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behave properly)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 즉,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이란 죄악된 밤의 생활을 청산하고 낮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의 생활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단정히 행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단정히 행하는 것이란 질서 있는 행위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는 단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에는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본문에서 명령에서 우리가 순종해야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고전14:33).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14:40).

(2) 둘째로, 우리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한 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성화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를 말씀합니다(맥아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져 간다는 말입니다.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란 찬양이 생각납니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 예수님이 입으신 옷은 참 아름다우며(1절), 귀하며(3절) 또한 “영광의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

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영광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고난 주간 첫 날인 오늘, 하나님께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 시작이요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지금 이 시기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이 시기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죄악의 밤이 깊고 빛 되신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때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두움의 일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방탕과 술 취하는 것, 음란과 호색하는 것, 쟁투와 시기하는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서 있게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모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영광의 날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종려 주일 오후 목양실에서)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십시오.

[로마서 14장 1-12절 말씀 묵상]

과연 여러분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해 나아가십니까? 물론 제일 먼저 갈등과 분쟁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선 그 갈등과 분쟁의 원인을 파악(진단)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선 부부 관계나 부자간 관계에서의 갈등과 분쟁,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들의 관계에서의 갈등과 분쟁, 왜 갈등과 분쟁이 있는지 그 원인을 먼저 파악해야 존재하고 있는 갈등이나 분쟁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 화요일 새벽기도회 때 사무엘하 3장 30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사람 다윗 왕의 장군이 요압이 사사로운 개인감정인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사울 왕의 장군인 아브넬에게 복수하므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됨에 큰 방해로 한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깨달은 핵심 교훈은 나라나 교회가 가정이나 하나됨(통일성/연합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사사로운 개인감정에 치우쳐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나라나 교회가 가정의 하나됨(통일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이나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를 향한 복수심이나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분노 등에 치우쳐서는 아니 됩니다. 서로의 관계에서 아직도 과거의 입는 상처나 아픔 등으로 서로를 향하여 분노의 감정이나 복수의 칼을 갈고 있으면 그 가정과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갈등과 분쟁 속에서 가정이나 교회가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가정과 교회가 분쟁 속에서 갈라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의 하나됨을 신실하게 지켜 나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핵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교만”과 “무식”(혹은 무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숙한 자가 자기의 진리 지식의 우수함을 인하여 형제에게 대해 우월감을 가지고 신앙이 미성숙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말씀이요(박윤선) 신앙이 미성숙한 자는 무지함 가운데서 신앙이 성숙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12절에서 바울은 기독교의 양심 자유에 관하여 아디아포라(adiaphora) 문제를 취급합니다. 아디아포라란 무슨 말입니까? 원래 이 단어는 철학적 용어로서 “대수롭지 않은”, “그리 중요치 않은”, “가치중립적인”,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들” 정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철학적 용어가 신학 용어로 사용되었을 때 그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이 성서에서 확실한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개인이나 공동체의 문화적 양심과 상황적 특성에 근거하여 해결을 시도한다는 뜻이 담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지 않아서, 사람의 형편에 따라 임의로 결정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남겨진 영역을 “아디아포라”라고 말합니다(인

터넷). 박윤석 박사님은 아디아포라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성경에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어떤 의식적인 행사를, 신자의 개인적 양심에 맡김”을 말합니다(박윤선). 그 한 예로 한국 교회에서는 요즘 술과 담배 등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신학교 교수님은 주일 일하는 것도 아디아포라라고 말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디아포라 문제는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엄격한 음식법(레11, 신 14)을 따르는 문제와 종교적으로 지키는 절일의 날짜 문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박윤선). 로마 교회에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법들이 성취되었다고 믿고 있었기에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엄격한 음식법이나 종교적 절일의 날짜를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들은 그 구약의 음식법이나 종교적 절일의 날짜를 꼭 지켜야 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서로의 다른 양심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충분히 교회 안에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분쟁 요소란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그들의 교만함 가운데서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를 업신여기고 비판할 위험이 있었던 반면에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들은 그들의 무지함 속에서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 판단하는 죄를 범할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신앙이 성숙한 자들에게는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권면하는 반면에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들에게는 신앙이 성숙한 형제들을 판단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3절). 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를 업신여기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지 않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무식(무지)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숙한 성도들에게 교만한 가운데서 그리고 무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 즉 미성숙한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힘써 지켜 나아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책임이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있지만 바울은 특히 로마에 있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 즉 성숙한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특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이 교회의 통일성을 지키는 일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보다는 더 책임이 막중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떠한 책임이 있습니까?

첫째로,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 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 이니라.”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란 “채소”를 먹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2절). 이 성도들은 아직도 구약 성서의 엄격한 음식법(레11장, 신14장)을 좇는 자들로서 우상에게 받쳐졌던 고기가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 그 고기를 먹기를 회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엄격한 음식법을 좇아 주로 채소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므로 이방인 고기 마켓에서 파는 제사 드린 후에 파는 값싼 고기도 먹었습니다(맥아더).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습니다(딤후4:3).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음식인 고기도 감사함으로 먹는 신앙이 성숙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직도 옛 언약인 구약 성서에 엄격한 음식법을

좇아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를 먹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업신여기는 일이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성경 지식이 많고 신앙생활도 더 오래 했다고 하여 그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형제와 비교하여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한 가운데 그 형제를 알 볼뿐만 아니라 아예 경멸까지 할 위험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성숙해 보이는데 마음은 영적 우월감 속에서 교만이 가득차 있기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우습게보고 깔보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율법주의 자야. 어떻게 성경 지식도 없어서 아직도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껌데기 신앙생활을 하는지 .. 찻찻.’ 만일 진정으로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이라면 믿음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래서도 아니 됩니다. 또한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형제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1절). 무슨 뜻입니까?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미성숙한 형제들과 서로 견해 차이를 문제시하여 논쟁하지 말아야 합니다(박윤선). 바울은 성숙한 자들은 주님 안에서 고기로 감사로 먹어도 된다는 견해를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어야 한다는 견해를 문제시하여 논쟁하는 것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기를 감사함으로 먹는 신앙이 성숙한 자들에게 채소를 먹는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을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절에서 “받되”라는 단어의 헬라어 의미는 “완전히 받으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로마에 있는 성숙한 성도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의심하지 말고 만족한 회원(교회원)으로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맞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 형제를 의심하지 않고 만족한 교회 멤버로 여겨야 합니다. 비록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는 신앙이 성숙한 성도보다 믿음이 부족하여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없고 그저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믿음일지라도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신앙이 성숙한 성도들은 미성숙한 성도들을 용납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3절).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관대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들을 배척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믿음이 강한 형제들을 향한 태도(자세)는 어때야 합니까?

(1) 신앙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앙이 성숙한 형제를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3절을 보십시오: “...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

지 말라 ….”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난(규탄)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성도는 믿음이 강한 형제를 비난해서는 아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 성도들은 아직도 옛 연약인 구약 성서의 음식법(레 11장, 신14장)이나 안식일 지키는 종교 의식이나,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법들을 지켜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구약 시대의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볼 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무책임하게 보였을 것이고 또한 타락했다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막 9:14). 바울 당시 모든 고기는 일단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유통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시장에서 사서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안식일도 거룩히 지키지 않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도 안 지키고(5절) 또한 구약 성경의 제사법도 지키지 않는 참으로 무책임하고 타락한 성도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 믿음이 강한 형제들은 무책임하고 심지어 타락한 성도들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난(판단)은 결국 무식(무지)으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한 바른 지식이 결핍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옛 연약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린 새 연약 시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에 이렇게 신앙이 성숙한 형제들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2) 신앙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신앙이 성숙한 형제들이 자기들을 용납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신앙이 성숙한 형제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용납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미성숙한 자들을, 그리고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은 성숙한 자들을 용납해야 합니다. 서로 의심하지 말고 교회의 만족한 회원(멤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 서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나 미성숙한 자들이나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3절).

우리가 교회의 통일성을 잘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서로 용납(받아야)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하며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하며 그 다른 점들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가 아니라 기회요 축복입니다. 즉, 교회 안에서의 서로 다른 점들은 서로를 알아가는 기회요 또한 서로의 다른 점들을 존중하므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의 부족한 성경 지식을 알아가며 존중하므로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데 헌신해야 하며 신앙이 미성숙한 성도는 성숙한 형제의 성경지식을 존중하여 더 배우는데 도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다른점을 알아가며 존중하는 가운데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원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a)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든 미성숙한 자들이던 모두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

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6절을 보십시오: “날을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신앙이 성숙한 자는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므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날”)도 더 이상 구약의 규정을 따라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고 신앙 시대의 방식으로 지키며 제사에 드렸던 고기도 먹되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신앙이 미성숙한 자도 그 고기를 먹지 않되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먹지 않기에 중요한 것은 신앙이 성숙한 자나 미성숙한 자나 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절기를 지키는 일이나 고기를 먹는 일에 관하여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두 그룹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면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 믿음이 다 같겠습니까?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성숙한 자들도 있는가 하면 우유 밖에 먹을 수 없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다 똑같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의 마음 중심이 믿음이 강하던 믿음이 약하던 하나님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결코 교회는 분쟁 속에 휘말려 갈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점들 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b) 서로의 다른 점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중요한 핵심 원리는 우리 모두 다 마음이 주님을 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8절을 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주를 위하여”란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7-8절에서도 2번이나 나옵니다. 다 합쳐서 5번이나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기독교인의 양심 자유(adiaphora), 즉 하나님의 명령이나 금령으로 제재 받지 않는 것들에 있어서 신자들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주님을 위한다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양심 자유란 각자가 자기 양심에 옳게 생각되는 대로 행하되 하나님의 영광 되는 여부를 표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박윤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비록 우상에게 바쳐졌다가 시중에 나온 고기를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그런 고기를 먹음으로 믿음이 약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면 상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신학교 교수님의 말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의 유익을 고려하여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행사의 출발점이다”(인터넷). 그러나 만일 신앙이 성숙한 성도가 교만하여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므로 양심의 거리끼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면 서로의 다른 점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분쟁 속에 휘말려서 교회는 갈라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숙한 자들이나 미성숙한 자들이나 모두 다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라면 서로의 다른 점들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c) 서로의 다른 점들을 극복해 나아가는 중요한 핵심 원리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0절을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우리 각자 자신의 일을 하나님 앞에 보고해야 합니다(12절). 여기서 우리 각자 자신의 일이란 우리 각자 양심에 따라 행한 일들도 포함합니다(맥아더).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금하거나 명령하지 않은 어떤 의식적인 행사를 우리 각자 개인의 양심에 따라 행했는지 여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보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를 판단하며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즉, 교회는 하나요 또한 다양합니다. 물론 각자 받은 은사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달란트도 다르지만 믿음 또한 다릅니다. 즉, 믿음이 강한 사람들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해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하여 “우유”를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다른 점을 우리는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미성숙한 형제들을 업신여기고 비판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미성숙한 자들은 성숙한 자들을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 완전히 받으신 성도들인데 우리가 누구관대 누구는 받고 누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 누구관대 믿음이 좀 다른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며 업신여기며 또한 판단합니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하며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각자 자신의 일을 다 보고해야 함을 알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통일성을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용서와 용납의 삶을 살아가길 기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

[로마서 14장 13-23절 말씀 묵상]

우리는 이미 로마서 14장 1-12절 말씀 중심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하는 성도들은 서로 받아야(용납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받아야 하며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또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서로 받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3절). 우리가 서로 믿음의 성숙도도 다른데 어떻게 서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다른 점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한 세 가지로 우리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이란 (1) 첫째로, 우리 모두가 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2) 둘째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3) 마지막 셋째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각자 자신의 일(양심에 따라 행한 일들도 포함)을 다 하나님께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 자세로 서로의 다른 점들을 극복하여 서로를 받아야(용납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서로를 받아야(용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하나됨을 신실하게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3-23절에 와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섬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서 서로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은 어떠한 것인지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은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여기서 “주의하라”라는 단어는 ‘판단하라’라는 뜻입니다. 즉, 바울은 “우리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서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은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같은 단어를 하나는 부정적으로 또 다른 하나는 긍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사용된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서로의 양심의 확신을 존중하지 않고 잘못됐다는 식으로 판단하여 업신여기고 비난하며 무책임하다는 식으로 판단하며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의 다른 점들을 극복하여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지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결단을 내려 행동으로 옮길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른 판단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른 판단력 속에서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리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는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확신했던 것은 아무 음식물도 속되지 않다(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음식물 자체는 깨끗하지 않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자기 자신이 속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식물이 속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특히 로마 교회에 구약의 음식법을 좇아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일단 우상에게 재물로 바쳐졌다가 시장에 유통된 고기는 속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다(9절) 배가 고파 있었을 때 비몽사몽간에(10절)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 왔는데(11절) 거기에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등이 있었고(12절)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했을 때(13절) 베드로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 하였삽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14절). 그 때 베드로에게 들려졌던 두 번째 음성은 무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였습니다(15절).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 즉 베드로가 생각한 속되다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해 주시사 결국 이렇게 고백케 만드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34-35절). 우리에게도 이러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형제, 자매들을 깨끗케 하시사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 받으셨는데 우리가 누구관대 깨끗하지 않다/속되다 라고 말하면서 그 형제, 자매들을 받지 않고 업신여기며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서로에게 징검다리(steping stones)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서로에게 거치는 돌(stumbling blocks)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결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형제, 자매를 다시는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13절).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은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업신여기며 비판해서는 안겠다고 결심해야 하며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 또한 고기를 먹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무척하고 타락했다는 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던 채소만 먹도 우리 각자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고기나 채소를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일 믿음이 강한 자가 주님을 위하여 고기를 감사하므로 먹는다고 하여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고기를 먹는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양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의 입장에서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확신 속에서 자기 신앙의 자유를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는 실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

니다(15절). 나는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여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확신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 앞에서 고기를 먹으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양심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믿음이 연약한 자를 실족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자유는 서로의 유익을 고려하여 나의 자유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된 자유, 서로를 배려하여 서로를 실족케 하지 않고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제안하는 것이 참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유가 아닙니까? 이러한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 형제, 자매에게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21절).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김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언젠가 저는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그릇 행하였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 묵상에서 저는 그릇 행하는 원인을 한 세 가지로 생각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그릇된 관점”이었습니다(그 다음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생각). 그 그릇된 관점이란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2절). 즉, 우리의 그릇된 관점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순종하심에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순종의 관점으로 순종을 바라볼 때 우리는 순종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로마서 14장에서 바울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고자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며 판단하지도 않고 오히려 서로 받으면(용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서로 사랑하므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서로 실족케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1절을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강한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하여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게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고기를 먹지 말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형제들로 실족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므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시험에 들고 실족케 된다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는 일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것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김은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김은 각자의 개인 양심의

자유대로 먹고 마시는 개인의 일을 추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업”을 추구하는 것입니다(20절). 하나님의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되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고자 두 가지 일에 특별히 힘을 써야 합니다. 그 두 가지 일이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19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내가 고기를 먹던 채소만 먹던 내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내가 고기를 믿음이 연약한 형제 앞에서 먹으므로 말미암아 또는 내가 믿음이 강한 형제 앞에서 채소만 먹으므로 말미암아 서로의 신앙생활에 거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형제를 세우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의 화평을 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각자 개인의 양심의 자유가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가 모든 것을 감사하므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심 자유가 중요합니다(16절)(박윤선). 그러나 이 양심 자유조차 바울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16절). 다시 말하면, 바울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기독교 양심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남용하므로 말미암아 서로를 판단하므로 교회의 통일성과 질서를 깬다면 세상 사람들(비신자들)에게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기에 비방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 자유를 서로의 유익과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 선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각자의 양심 자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요 주님의 몸 된 교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로 교회의 질서가 어지럽혀져서 교회의 화평을 깨게 된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17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17절). 즉,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의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자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곳입니다(맥아더). 그 곳에는 먹고 마심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1) 첫째는 성령 안에서 “의”(righteousness)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하며 순종하는 삶이 있습니다. (2)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평강”(peace)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화가 있으면 또한 서로 형제, 자매들끼리의 관계에서의 평화가 있습니다. (3) 셋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희락”(joy)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성령님의 열매인 희락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양심의 자유 가운데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 각자 개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에 거룩함을 들어내며 평강을 가지고 오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을 주는가를 먼저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관점을 가지고 교회의 거룩함과 평강과 기쁨(희락)을 생각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18절).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은 믿음으로 좇아 행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23절을 보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 말씀은 어떤 식물에 대하여(예를 들어 고기) 신앙 양심으로 거리끼던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가 먹는 것을 보고 두 판단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먹어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심하고”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의심하고 고기를 먹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에게 끌리어 얼마쯤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믿으면서 먹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먹어도 되는지 의심하면서 먹으면 그것은 죄를 범함이 된다는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믿으면 믿든지, 반은 그렇게 믿고 반은 의심하면서 자기의 신앙 양심으로 거리끼던 믿음이 강한 자를 좇아 고기를 먹으면 그것은 정죄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정죄가 되는 이유는 순수하고 참된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또는 확신대로 행하면 됩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고기도 감사히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을 좇아 고기를 먹으면 됩니다(22절). 그것이 자기 양심에 거리낌을 주지 않을 정도로 옳다고 믿으면 그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에 관한 건에만 적용이 됩니다(박윤선). 만일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먹어도 되는지 아닌지 옳고 그름이 분명하지 않고 혼동 상태에서 먹고 나서 자기를 책망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만일 믿음이 강한 자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믿다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믿는 믿음이 약한 자의 눈을 의식하여 자기 양심의 확신에 따라 행하지 않고 고기를 믿음으로 먹지 않는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23절).

우리는 믿음으로 좇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아니면 안 먹든지 안 마시든지 믿음으로 좇아 해야 합니다. 결코 의심하면서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하나, 마셔야 하나 아니면 마시면 안 되는가 혼동 상태에서 우왕좌왕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던 채소를 먹던 주님을 위하여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김은 믿음으로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심 자유에 관한 일들은 결코 의심을 좇아 행하지 말고 믿음을 좇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섬기되 우리는 형제, 자매 앞에 거치는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 확신하는 것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징검다리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 개인 양심의 자유대로 먹고 마시면서 개인의 일을 추구하기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인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좇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23절)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김입니다.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섬기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뜻을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묵상]

요즘 지도자 성경공부 때 요나서 4장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은 한 마디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입니다. 하나님의 종 요나 선지자는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킨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여 재앙을 내리시려는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께 분노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기보다 자기 뜻이 이뤄지길 원했습니다. 요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니느웨 백성의 멸망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시길 죽기 아니면 살기로 원했습니다.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신앙의 성숙함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마디로, 신앙의 성숙함은 내 자신의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겻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과연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5-6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는 교회의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교회의 연합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교회의 연합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아 순종하므로 다양성 속에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기독교의 신앙 양심 문제(아디아포라 문제)로 서로 나누이지 말고 용납하되 특히 믿음이 강한 신자들이 약한 자들을 이해하고 포용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러기 위해선 믿음이 강한 신자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신자들이 고기를 먹어도 좋다는 자기의 표준을 교리화 하거나 혹은 강행하지 말라는 뜻입니다(박윤선). 만일 믿음이 강한 신자들이 자기들이 믿는 바를 교리화 하던지 교회의 기준으로 삼고자 강행하게 되면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믿어 채소만 먹는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자 신자들의 신앙 양심에 맡겨서 행동하도록 자유가 주어져야

할 문제를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들이 자기주장을 교회 안에서 관철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신자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마찰과 충돌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를 경계하고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중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우리”(1절)란 주어를 써가면서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우리의 이웃인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기쁘게 하자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1)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며 포용해야 합니다(1절).

만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믿음이 약할까 하면서 마음으로 업신여기고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믿음이 더 낮지 하면서 스스로 우월감을 갖게 된다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연합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이러한 죄악된 경향을 믿음이 좀 강하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경계해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연약할 때를 생각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들을 이해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꼭 있어야 할 의식은 바로 ‘빛진 자 의식’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마땅히”란 단어는 빛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박윤선). 그래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 13장 8절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권면을 받아서 믿음이 강한 자들이 빛진 자 의식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들을 도와주고 포용한다면 교회의 연합성(통일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2)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선을 위하여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다(2절).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단어는 건축함을 의미합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되 어떻게 하면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세워지는데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영적 건축가들이 되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며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한 3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a) 첫째로, 마치 집을 건축할 때 기초가 든든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영적 건축가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믿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견고히 세워지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b) 둘째로, 마치 집을 건축할 때 벽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기도함으로 영적 보호막을 제공해야 합니다. (c) 셋째로, 마치 집을 건축할 때 지붕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이 쓰고 있는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은 약한 자들의 약점들을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며 포용해야 하며 또한 덕을 세우도록 힘써야 합니까? 한 마디로,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3절).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며 그 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요 4:34; 5:30; 6:38; 8:25, 27-29; 빌. 2:6-8)(맥아더).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주님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 자신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통일성(연합)을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4절을 보십시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가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으로써 그 교훈은 오늘 성경 말씀 4-5절에서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것은 바로 성경의 인내와 성경의 안위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연합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야 합니다. 교회를 대적하며 교회의 연합성을 깨고자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교회의 연합성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의 연합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서로 위로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또한 성경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소망”을 묵상할 때 로마서 5장 3-5절 말씀을 생각났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됨이니”. 우리가 교회의 연합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므로 환난 중에서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소망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5:2).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어(고전 15:51) 더 이상 욕되지 아니하고(43절), 약하지 않으며(43절),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는(54절)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을 것(빌3:21)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1장4절에서 “신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확실하고 즐거운 소망은 하나님인 예수님의 성품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은 온전하지 않지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확실하고 즐거운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인내하며 서로 위로하는 가운데 교회의 연합성을 힘써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5-6절을 보십시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본 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길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연합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의 뜻을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선 필수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뜻을 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뜻대로 마음시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본 받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한 뜻, 즉 주님의 뜻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시길 간구하였습니다(5절).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12:16)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입으로(10:9)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는 주님의 뜻인 교회의 하나됨(통일성 혹은 연합성)을 지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우리는 인내하

며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온 교회 식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가므로 말미암아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의 피로 사신 승리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로마서 15장 7-13절 말씀 묵상]

우리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의 뜻을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란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책임이 한 3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1) 첫째로, 우리 승리교회 온 식구들이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서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2) 둘째로, 우리는 성경의 인내와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3) 셋째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7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 모두에게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왜 그는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니 이방인 성도들에게 서로 받으라, 즉 서로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용납하셨다면 하물며 죄인들인 우리를 또 다른 죄인들을 용납하는 것은 마땅한 것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 위해선 우리는 “수종자”(a servant)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8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우리는 교만하면 서로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나 같은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납해 주셨다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 강박하여 서로를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용납하기는커녕 마치 바울 당시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이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판단하고 정죄한 것처럼 우리도 교만함 가운데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판단하고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코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8절). 즉, 그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수종자”, 즉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겸손히

섬기는 자가 되면 서로를 용납하면서 교회의 하나님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의 통일성을 지켜 나아감에 있어서 제일 큰 장애물은 바로 교만함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교만하면 우리는 섬기려 하지 않고 다들 섬김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서로를 섬기려고 하기보다 서로에게 섬김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요즘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교회는 예수님처럼 섬기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막10:45) 우리는 예수님과 정반대로 섬김을 받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교회는 서로 용납하면서 교회의 하나님을 지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서로를 겸손히 용납하는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 즉 유대인의 섬기는 자가 되셨습니다(8절). 결국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만 섬기시고 이방인들은 섬기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인 할례로 특징하는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제 일착으로 유대인들에게 전도하셨다는 뜻입니다(박윤선).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처럼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자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처럼 겸손히 서로 용납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즉,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아가셨던 예수님처럼 로마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신실하게 서로 신실하게 용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처럼 서로 용납함에 있어서 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입니다. 좀 달리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용납해야 합니다. 용납하되 우리는 서로를 진실한 마음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님을 지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기 위해선 우리는 함께 소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2절을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8절) 예수님께서서는 열방, 곧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사11:10). 다시 간략하게 말한다면,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 성도들에게 서로 용납하라 권면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이어나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뉘야 합니까?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아니잖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시사 선택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이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3절에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교회란 공동체는 소망이 넘쳐야 합니다. 구원의 소망이 넘쳐야 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교회는 가득차 있어야 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찬양과 경배를 영원히 드리는 소망으로 우리 교회는 가득차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소망 가운데 우리 안에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고 또한 우리 마음의 평강을 깨드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로 용납할 때 우리는 어떠한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9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기록된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는 가운데 감사하므로 온 교회 식구들이 예배당에 올라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 교회가 서로 용납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가지 못하므로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과 경배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가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분열 속에서 매 주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는 한 마음, 한 뜻, 한 입술로 드러지는 찬양과 경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책임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중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서로 받으라”, 즉 서로 용납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모두가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할 때 우리는 누리는 또 다른 축복은 바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또 가로되 열방들이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교회란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화가 돼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란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어 합니
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
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경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천국 생활을 부분
적으로나마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합니다. 그 부분적인 천국 생활의 경험에는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음. 우리는 그 신적 기쁨을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 나아감 속에서 부
분적으로나마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을 슬픈 많은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예수님께서 나같은 죄인을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기원하
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

[로마서 15장 14-22절 말씀 묵상]

오늘 우리는 승리장로교회 3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후 이렇게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을 주님 앞에서 던져 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질 때 두 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1) 첫째는, 제가 지난주일 여러분과 나눈 것처럼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30주년 기념 말씀 집회 때 하나님께서는 두 분 감사 목사님들을 통하여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하여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2)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승리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우리 교회 비전인 바로 ‘일군을 세워라!’입니다. 일군을 세우되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군들을 세우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이 비전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더욱더 확언케 해주신 계기는 바로 지난 달 6월 27일 오후에 드린 졸업 예배와 지난 주 오후에 드린 장학 예배입니다. 저는 그 두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사랑하는 우리 승리공동체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들이 우리 승리장로교회에 미래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미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주 화요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한 선배 목사님이 이민 교회 수명이 50년이라는 말을 듣고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교회가 힘써야 할 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임을 다시금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군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군을 공부해야 합니다. 그 일군들 중 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과연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군인 바울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우리는 이미 묵상한 로마서 1장 1절을 다시 봐야 합니다. 거기를 보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한 3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 첫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 둘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 하고 있습니다, (3) 마지막 셋째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거룩히 구별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바울은 로마서에 결론 부분인 로마서 15장 14-33절에 와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다시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16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라고 로마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소개를 중심으로 과연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은 누구인지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으로 세움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으로 세우는데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이렇게 결론 부분에 와서(15:14-33)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담대히 대강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로마 성도들이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확신하면서도(14절)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담대히 그들에게 쓴 이유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리들을 쉽게 등한히 하던지 또는 잊어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맥아더). 베드로도 그의 편지 수신자들에게 왜 그가 두 편지인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를 쓰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벰후3:1-2). 베드로가 그의 편지 수신자들에게 두 편지를 쓰는 이유는 바로 그들로 하여금 생각(기억)하게 하려고입니다. 무엇을 생각(기억)나게 하려고 하였습니까? 한 마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들인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는 바울처럼 하나님의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선 바울처럼 하나님의 진리들을 담대히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진리들을 아는 지식과 선함이라는 덕목에 충만한 가운데서 서로 권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14절). 권하되 우리는 어떻게 권해야 합니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진리들로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로만이 가능합니다(15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된 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 자매들을 권면합니다. 권면하데 그는 하나님의 진리들로 그 형제들을 권면하므로 그들로 하여금 배우고 확신하는 일게 거하게 합니다(딤후3:14). 그러기 위해선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야 합니다(딤후2:1).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해서 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더욱더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수고하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들이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들을 담대히 말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로 서로를 권면하므로 하나님의 진리들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진리들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지식의 충만함 가운데서 우리는 기독교의 아름다운 덕목인 선함이 가득해야 합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십시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여기 결론 부분에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한 것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신성한 직무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된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신성한 직무를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성한 직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 시키는 사역입니다(박윤선). 다시 말하면, 바울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의 목적은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로 드러지게 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며 또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방인으로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인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거듭나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하나님께 받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요 직무라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젠 이 직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처럼 이방인의 사도는 아니지만 주님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낸바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들로 하여금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과 거룩케 하심의 역사로 인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받으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드러야 하는 직위가 저와 여러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바라는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신실하게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빌4:1) 이 많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7-1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맞게 되었다고 말한 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바울이 자랑한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내신 능력과 및 그 성공을 가리킵니다. 그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18절)(박윤선).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초자연 능력을 나타내셨으며 또한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그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약 1,000 miles나 되는 일루리곤까지(맥아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는 가운데(19절)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자랑하였습니다. 한 마디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음을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사 어떻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자랑하였던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자랑이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파할 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히 전파해야 합니다. 전파하되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힘써야 합니다(20절)(박윤선). 우리 교회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21절)(맥아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합니다.

승리장로교회 30주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비전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일군을 세우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군들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세대들도 모두 다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군들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4-21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은 누구인가를 배웠습니다: (1)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진리를 생각나게 하는 자입니다, (2)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입니다, (3)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들로 우리 모두가 세움을 받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들을 세워주소서!)

나누는 것은 돌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2-29절 말씀 묵상]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웹사이트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장로님의 조카 형제하고 장로님 댁에서 하룻밤 함께 지내면서 그 형제에게 도전을 받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형제의 말로는 한국에서는 미국처럼 google.com라는 search engine을 잘 사용하지 않고 naver.com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 웹사이트를 열어서 거기에 제가 저희 교회에 웹사이트에 올리는 말씀 묵상이나 가정 이야기 등등 글들을 다 올리므로서 많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과 신앙생활 및 가정생활에 유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블로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매일 제 웹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평균이 하루에 한 450-5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서만 들어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네이버 search engine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나 제 글을 스크랩해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 주로 제가 매주 수요기도회 때마다 묵상했던 시편 말씀을 주로 가지고 가던지 그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 인사하는 댓글이 주로입니다. 한번 들어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네이버 블로그 웹사이트에 표제(title)가 바로 오늘 말씀 묵상 제목인 “Sharing is Caring” 즉, ‘나누는 것이 돌보는 것입니다’입니다. 제가 이렇게 표제를 정한 이유는 제 개인 네이버 블로그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정이야기 등등을 나누면서(share) 웹사이트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reach out)입니다. 그리고 이 표제를 저에게 가르쳐 준 사람은 바로 저희 집 망내 딸 예은이입니다. 하루는 예은이가 집에 와서 언니랑 인가 좀 티키타카 하더니 아마 언니가 자기에게 무엇을 주지 않으니깐 예은이가 언니에게 “Sharing is caring”(나누는 게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하더군요. 제 생각엔 예은이는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언니가 가지고 있는데 자기에게 안주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배웠는지 ‘나누는 게 돌보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ㅎㅎ 저는 그 때 처음 그 말을 듣고 ‘참 멋있는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들은 이 말이 제 생각에 각인이 되어서 이렇게 제 네이버 블로그 웹사이트의 표제로 정하고 블로그 사역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도 ‘나누는 것이 돌보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 식구들과 무엇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영적 식구들이 교회 공동체 형제, 자매들과 무엇을 나누면서 신앙생활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27절을 보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이 결론 부분에 와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모델이 될 만한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될 만한 나눔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7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빛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 본받아야 할 모델이 될 만한 나눔의 모습은 바로 유대인 형제들은 이방인 형제들에게 “신령한 것”(the Jews’ spiritual blessings)을 나누고 이방인 형제

들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육신의 것”(the Gentiles’ material blessings)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은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과 나눴던 “신령한 것”은 무엇이고,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인 형제들에게 나눴던 “육신의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과 나눴다는 “신령한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신령한 것은 한 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적 은혜를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었습니까? 유대인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미 묵상한 로마서 1장 16절을 보아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비록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방인 형제들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빛진 자”들입니다(15:27). 무엇을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인 형제들에게 빛을 졌습니까? 바로 복음이요 신령한 축복(영적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신령한 축복”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승리장로교회 30주년 기념 말씀 집회 첫째 날 감사 목사님의 설교 제목인 “하늘의 신령한 복”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그 제목이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과연 유대인 형제들이 이방인 형제들에게 나눴던 “신령한 것”, 즉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므로 말미암아 이방인 형제들이 누리게 된 것으로서 한 마디로 “구원”(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사랑”하시사(엡1:4)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들을 “선택”(4절) “예정”하시사(5절) 예수님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주시고(7절)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양자)(5절).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특히 생각하면서 ‘당신들은 당신들의 형제인 유대인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빛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령한 것을 빛진 이방인 성도들은 그의 형제들인 유대인 성도들에게 어떻게 빛을 갚아야 합니까? 과연 신령한 것을 빛진 이방인 형제들은 유대인 형제들에게 무엇을 마땅히 나눠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것”입니다(27절).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육신의 것으로 유대인 형제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7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것”은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이해하기가 더 쉬웁니다. 영어 성경에는 “육신의 것”을 “the material blessings”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은 그의 형제들인 유대인 성도들에게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로 받은 물질의 축복들을 나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유대인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미 “신령한 것”인 영적 축복들을 나눴고 이방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에게 물질의 축복

들을 나누는 모습이 말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이방인 형제들이 유대인 형제들과 물질의 축복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그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한 예는 바로 이방인 형제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모금한 구제 헌금입니다(26절). 바울 당시 흉년으로 인하여(행11:28-30) 유대에 기근이 심하였는데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의 곤란이 컸습니다(참고: 갈 2:8-10). 그 때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돕고자 구제금을 모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제금을 바울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가서 전달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갔다가(25절) 그 후에 서바나로 가는 도중에 로마를 방문하기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나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25-29절)(박윤선). 그리고 그는 자기가 로마에 갈 때 “그리스도의 총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9절). 무슨 말입니까? 곧, 바울이 영적 은혜를 총만히 가지고 로마에 가서 그 곳 신자들로 더불어 나누게 될 것을 말합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영적 지도자인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나 이방인 성도들에게 영적 은혜를 총만히 가지고 가서 나누길 원하면서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한 서로 나누는 삶을 살라고 편지로 권면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지도자로서 먼저 바울은 유대인 성도들이든 이방인 성도들이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은혜를 총만히 나누는 가운데 유대인 성도들은 그들의 형제들인 이방인 성도들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고, 이방인 성도들은 그들의 형제인 유대인 성도들에게 “육신의 것”을 나눈다고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란 공동체의 아름다움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그는 이미 로마서 13장에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8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9절)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로마서 15장에 와서는 ‘서로를 기쁘게 하라’(1-2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고 (7절) 말씀한 후 이렇게 오늘 본문 15장 22-29절에 와서는 ‘서로 나누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결국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서로 사랑의 빛을 지라’ 또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다시 말하면,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두 번째 계명인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로마 교회나 우리 교회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이웃을 사랑할 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매력이 있는 교회가 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 꿈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이러한 교회로 세우고 계시는 주님의 사역에 여러분은 동참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지난 주 목요일 새벽기도회 때 이사야 5장 2절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다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모든 정성과 공력을 기울이셔서 “극상품 포도나무”(the choicest vines)로 이 미국 땅에 심으신 후 저에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고

계시는데 혹시 저는 썩은 냄새를 내는 들 포도를 맺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했을 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이사야 5장 4절 상반절이었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극상품처럼 모든 정성과 공력을 기울이시데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이 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와 나누셨다면 과연 무엇을 더 나누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누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길 원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누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 이웃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제임스 김 목사 나눔
(나눔의 기쁨을 맛보면서)

저의 싸움에 기도로 함께 해주십시오.

[로마서 15장 30-33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왜 기도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계시는 것은 아니십니까? 저는 시편 116편 1-1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기자가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라고 결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기도에 헌신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모이기를 힘써 합심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기도란 전투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란 우리 자신의 옛 습관과 싸우는 것이요, 우리 안에 옛 죄악된 본능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란 죄악된 세상과 싸우는 것이요, 복음의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요 더 나아가서는 사단과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란 공동체는 승리하신 예수님을 대장으로 모시고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전투하는 그리스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우리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죽음과 사단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전투적인 십자가의 군병들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엡6:11, 13).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가운데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우리 교회는 서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며 또한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을 위하여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0절에서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계속 써 내려가면서 이렇게 권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여기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싸움에 기도로 함께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어 성경에는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라고 쓰여 있지만 원어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συναγωνισασθαι”란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합성어로 그 문자적 의미는 “Along with”(함께) + “Agonize”(고민, 고뇌, 투쟁하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고민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중보기도 한 다기 보다 ‘함께 싸우다’ 혹은 ‘함께 투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레슬링 선수들이나 또는 복싱 선수들이 운동 경기, 특히 체조 경기,에서 서로 싸우는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맥아더). 그러므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권면함에 있어서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돕게 하데 큰 노력으로 그의 싸움을 함께 해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플레이버그). 지금 바울은 이방인 형제들인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26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25, 31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자기의 싸움에 기도로 함께 해 달라고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로 부탁하

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울의 권면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선 두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 첫째 질문은, 바울이 오늘 본문 3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의 섬기는 일”은 무엇을 가리키는냐? 입니다, (2) 둘째 질문은,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싸움에 기도로 함께 해 달라고 부탁했느냐? 입니다. 첫째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나의 섬기는 일”이란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도를 섬기는 일”을 가리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지금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이 모금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흉년으로 인하여(행11:28-30) 큰 곤란을 당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 중 가난한 자들(26절)에게 그 구제헌금을 전달하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의 섬기는 일” 또는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둘째 질문인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싸움에 기도로 함께 해달라고 부탁했느냐?’를 답하기 위해선 먼저 유대인 성도들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고자함에 있어서 바울의 갈등(고민?)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의 갈등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만하면 결박하고 핍박할 터인데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자신과 싸우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기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던 바울(행 20:24)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 생명을 잃느냐 마느냐라는 고민보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느냐 마느냐라는 고민이 더 있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로 자기의 싸움에 함께 해 달라고 권면하면서 부탁한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가지 입니다.

(1) 첫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건지심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불순종하는 그의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져 달라고 자기의 싸움에 기도로 함께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길 간절히 원했기 때문입니다(맥아더).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사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의 불순종하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 손에서 바울의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비록 그들이 바울을 보고 우리들을 총동하고(27절) 온 소동을 소동케 하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아가(30절) 결국 바울로 하여금 로마 군대 천부장으로 하여금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었기는 했지만(31-33절, 23:11)(맥아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바울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2) 둘째 기도 제목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도들이 바울의 섬기는 일을 받

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3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지금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에게서 모금한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는데 그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탁한 기도는 이방인 성도들의 유대인 형제들을 향한 사랑의 선물인 경제적 도움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잘 받기를 자기 자신만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자기가 함께 기도해 주길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뭐 이런 일까지 고민하면서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까지 함께 자신의 기도에 동참해 주길 부탁했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민하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의 관계에는 긴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로마 교회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긴장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을 잘 품지 못했던 것처럼 바울 당시에는 이러한 긴장이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 간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방인 성도들이 유대 형제들을 위하여 기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구제 헌금을 한바, 유대인 형제들이 그 구제 헌금을 기쁜 마음으로 받길 기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공동체임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두 기도 제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32절을 보십시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하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두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린 목적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섬기는 일이 무사히 마치고 그가 그리스도 원했던 로마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나아가 그들과 함께 재충전하는 안식을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재충전하는 안식이란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그들을 견코게 하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인하여 위로(“안위함”)를 얻는 것이었습니다(1:11-12). 그래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1장10-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였던 것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 이렇게 진정한 재충전하는 안식이란 주님 안에서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믿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정으로 “평강의 하나님께서”(33절)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영혼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을 향하는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싸움에 기도로 함께 해 주길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영적 싸움에 기도로 서로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저의 싸움(고민)에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싸움(고민)은 우리 승리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죽음과 사단과의 영적전쟁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 승리하는 전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온 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움을 받아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 모두 다 저 천성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 때까지 추수할 곡식이 많지만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한 이 때에 우리 승리교회 모든 식구들이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꾼

들로 세움을 받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세우시는 일에 다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저의 싸움에 기도로 함께 해주시는 기도의 동역자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나아가면서)

추천할 만한 사람

[로마서 16장 1-2절 말씀 묵상]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추천서를 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교회 영어사역에 있는 학생들은 아마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교 원서 써서 낼 때나 직장을 잡을 때 필요한 담임 목사의 추천서를 제가 쓰지 않고 제 아내가 쓴다는 사실을요. 제가 하는 것은 아내가 추천서를 다 쓰면 그저 사인하는 것뿐입니다. ㅎㅎ 그래도 사인하기 전에 제 아내가 추천하는 학생에 대해서 뭐라고 썼나 읽어보곤 합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은 참 추천서를 잘 썼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내가 추천하는 그 형제, 자매에 대해서 칭찬할 만한 부분들을 잘 고집어내서 영어 문장으로 잘 묘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접 추천서를 쓴 적도 있기 합니다. 그런데 제가 쓴 추천서는 한국어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ㅎㅎ 그런데 제게 맞지 않는 ‘추천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 신학교 동문 목사님 한 분이 사역지를 찾고 있는데 이력서를 내고자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좀 자기를 추천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그 분이 저에게 이렇게 부탁한 이유는 아마 이력서를 내고자 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알고 있는 저희 노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저는 추천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드리기가 곤란하여 추천부탁을 들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 큰 교회에서 찾는 부교역자와 저의 동문 목사님하고 서로가 안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 제 마음이 참 편치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 같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추천을 부탁하는데 추천하기가 곤란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추천할 때 왜 추천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만큼 그 사람을 인정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칭찬할만한 부분들을 많이 볼 때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으로 있는 우리 자매 뵘뵘을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여기서 “천거하노니”란 말씀은 “추천하노니”(개혁개정)란 말씀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로마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 와서 로마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면서 ‘나는 추천합니다’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뵘뵘”(Phoebe)라는 여성도입니다. 한 마디로, 뵘뵘란 여자는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추천할 만한 사람 뵘뵘은 누구였습니까? 그녀가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까? 한 2 가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뵘뵘이라는 여성도는 “교회의 일군”(a servant of the church)이었습니다.

뵘뵘이라는 여성도는 어느 교회의 일군이었던가 하면 바로 “겐그레아”(Cenchrea) 교회의 일군이었습니다(1절). 이 겐그레아라는 도시는 고린도라는 도시와 인접한 곳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서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다 쓴 후 겐그레아

교회에서 섬기는 뉘뉘란 일군으로 하여금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바울이 뉘뉘란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에게 부탁한 것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군이 부족한 때입니다 (마9:37). 다시 말하면, 지금 교회에는 일군이 참으로 턱없이 부족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보기엔 교인들은 많을지 모르지만 교회의 일군을 참 적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교회의 일군을 10%로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말은 교인이 100명이면 교회의 일군을 10명 밖에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가 일군을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군들을 세우는데 부족하나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인정하는 뉘뉘란 교회의 일군을 생각할 때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군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군들로 세움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군들을 세우는데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군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군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일군을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헌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뉘뉘라는 여성도는 교회의 일군은 돕는 자(a helper)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바울은 뉘뉘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호자”란 단어의 원어 의미는 ‘여성후원자’(a patroness)로서 뉘뉘란 여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서 바울과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데 헌신했던 일군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Friberg). 존 맥아더 목사님에 의하면 초대 교회 당시 여자 일군들은 병든 신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낯선 사람들 및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맥아더). 이렇게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한 초대 교회 여성도 일군들을 생각할 때 저는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중요하고 필요한 은사가 생각났습니다. 그 은사는 다름 아닌 “서로 돕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those able to help others)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전12:28). 교회 안에 돕는 은사를 가진 일군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뉘뉘처럼 여러 사람들을 도우므로 말미암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세움을 받아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인정하고 칭찬하며 로마 교회에 추천하는 뉘뉘라는 여인을 생각할 때 성경 마태복음 5장 16절이 생각났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이 생각난 이유는 “뉘뉘”란 이름의 뜻이 바로 ‘밝고 빛나다’(“bright and radiant”)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이 뉘뉘라는 이름의 뜻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밝고 빛을 내야 하는 하나님의 빛 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뉘뉘란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도우면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이 다 돼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절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뵤뵤라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을 추천하면서 2절에 와서는 이렇게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사람 뵤뵤를 이렇게 대하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찌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추천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인 뵤뵤를 어떻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한 2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자기가 추천한 뵤뵤를 영접(환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은 무슨 뜻입니까? 오래전에 제가 아는 한국에 사시는 장로님 한 분이 그리스도인의 예우범절에 대한 책을 쓰고 싶다고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혹시 미국에 그리스도인의 예우범절에 대한 책들이 있는지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분이 그 책을 쓰시고자 하신 이유는 아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예우범절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 저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흥미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예우범절에 대해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가 추천하는 뵤뵤란 교회의 일꾼을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자매를 영접하는 것이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입니까? 저는 그 대답을 빌립보서 2장 29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우리는 뵤뵤와 같은 일꾼이나 에베브로디도와 같은 일꾼을 큰 기쁨으로 환영(영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일꾼을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2)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은 자기가 추천하는 뵤뵤를 그녀가 도움이 필요한데로 도와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절을 보십시오: “...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찌니 ….”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 문자 의미는 ‘모든 일에 그녀에 옆에서 있으십시오’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일이든 그녀가 도움이 필요할 때 옆에서 힘껏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뵤뵤를 그렇게 도와주라고 권면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뵤뵤란 여인은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 형제, 자매들을 도와줬기 때문입니다(2절).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 겐그리아 교인이던 로마 교회 교인이던,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서로 영접(환영)하고 또한 서로 힘써 도와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뵈뵈와 같은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추천할 만한 일군이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서 추천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치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옳을 자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실만한 교회의 일군들로 세워주소서.

교회를 섬기며 남을 힘써 돕는 일군들로 다 세워주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뵈뵈란 이름의 뜻처럼 밝고 빛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신부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섬기는 자들

[로마서 16장 21-23절 말씀 묵상]

수천만 달러를 버는 것과 그 돈을 모두 나누는 것이 인생 목표였던 폴 J. 마이어 박사, 그는 '베푸는 자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한 백만장자로서 "성공을 유산으로 남기는 법: 백만장자의 인생 열쇠 25"란 책을 썼습니다(인터넷). 그 책을 보면 저자 폴 마이어 박사는 기독교적 통찰력을 바탕으로 '유산'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50여 년 동안의 믿음과 실천의 노하우가 집약된 이 책에서 유산은 우리가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나 선택할 수 있고 가꿀 수 있는 유산을 어떤 형태로 후대에게 남겨줄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결국 좋은 유산을 남기기 위한 유용한 방법론들을 삶을 살아가는 데 최대한의 가능성의 동기부여를 해 줄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소중한 지침서의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섬기는 것은 좋은 비즈니스이다'라고 말하면서 섬김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7가지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공하라, 둘째는, 보호하라, 셋째는, 존중하라, 넷째는, 신뢰하라, 다섯째는, 방향을 제시하라, 여섯째는, 훈련시키라, 마지막 일곱째는, 제품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저는 이 7가지 지침들을 읽고 또 읽으면서 한번 저희 교회 저와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에게 적용해 보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 (1) 첫째로, 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 중심된 꿈을 가진 일군으로 세우도록 도와야 한다,
- (2) 둘째로, 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한다,
- (3) 셋째로, 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존중하므로 그들이 더 많은 자신감과 창의성을 가지고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
- (4) 넷째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신뢰하기로 헌신해야 한다,
- (5) 다섯째로, 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마음에 우리 교회의 목표와 비전을 심어 줘야 한다,
- (6) 여섯째로, 나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을 신실하게 훈련시켜야 한다,
- (7) 일곱째로, 나는 교회 프로그램(program)보다 교회 사람들(people)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한 7가지로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또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온 교회 식구들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겸손히 그리고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말미암아 온 교회가 섬김의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1-23절을 보면 우리는 바울이 자기와 함께 고린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문안 인사를 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과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저와 함께 섬기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인지, 또는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5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보았습니다:

첫째로,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나의 동역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 지난주일 저희 교회 부목사님의 고별 설교 가운데 디모데를 가리켜 바울의 영적 아들이란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 말의 근거는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입니다. 그 구절들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딤후1:2) 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딤후1:2)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 아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3절에서 “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가리켜 나와 함께 일하는 자(co-worker)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였던 영적 아들 디모데는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십시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는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와 그의 할머니인 “로이스”처럼 마음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그 믿음은 신실한 믿음이고 위선이 없는 믿음이며 가짜가 아닌 믿음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디모데”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보배”입니다(박윤선). 참으로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는 그의 이름답게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러한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와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 부목사님이었던 함 목사님을 생각할 때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믿음은 위선이 없는 신실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함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몸 된 승리공동체를 약 5년간 섬겼던 것을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함 목사님이 떠난바 저는 이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교회 한국어사역이나 영어사역이나 히스패닉 사역 모든 지도자들이 디모데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주시길 기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의 몸 된 승리장로교회 동역자들이 교회를 섬길 때 섬김을 받는 성도님들도 거짓이 없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디모데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인 로이스로부터 그의 어머니인 유니게, 그리고 이렇게 디모데에게 전달된 것처럼

럼 온 교회 식구들의 거짓이 없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들에게 계속 전달되는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둘째로,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나의 친척”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1절을 보십시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사람들 중 이름을 나열하면서 그의 동역자 디모데 외에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를 가리켜 “나의 친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고 있는 “나의 친척”이란 누구를 가리킵니까? “나의 친척”하면 저와 여러분은 가족 친척 식구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친척”이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바울의 동포인 유대인을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동포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 누기오는 확실히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를 가리키는지 아니면 사도행전 13장1-3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요 교사였던 “루기오”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야손”과 “소시바더”란 사람은 누구인지 좀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야손”이란 사람은 데살로니가의 첫 회심자들 중 한 사람으로서 사도행전 17장 5-10절을 보면 바울을 자기의 집에 초대하여 그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소시바더”란 사람은 사도행전 20장4-6절을 보면 베뢰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소시바더”의 짧은 형식)로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였습니다(행17:11). 이 두 사람은 서로 친구처럼 친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과도 친구처럼 매우 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맥아더).

저는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동역자의 관계는 주님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친구 관계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서로에게 신뢰하기로 헌신하면서 주님 안에서 친구로서 우정을 쌓아가는 그러한 동역자와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서로의 마음 문을 열고 집으로만 서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상대방을 초대하여 주님 안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할 때 진정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느낄 수 있는 동역자의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같은 동포, 즉 같은 한국사람, 미국 사람이 아닐지라도 문화와 언어를 초월하여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아는 그러한 동역자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히스패닉 사역에 고메즈 목사님과 저와의 관계를 이렇게 세워주셨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믿고 주님 안에서 친구로서 함께 승리공동체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신 계기 중 하나가 아마 몇 년 전에 고메즈 목사님 부부가 집에서 쫓겨나셨을 때 저희 집에서 한 3개월 계시면서 그러한 마음을 들게 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 승리공동체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국어 사역에 있는 분들이나 영어사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나 히스패닉 사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한 가족 식구들처럼 섬겨야 합니다. 혹여나 아직도 여러분 중에 승리교회는 가족 교회라고 말하면서 담임목사인

저와 저의 친척들의 교회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은 그것을 뛰어 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베뢰아 사람 소사바더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우리 승리공동체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함께 저와 섬기는 육신의 가정, 친척의 존재 목적도 주님의 몸 된 교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온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한 식구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나의 비서’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2절을 보십시오: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구절을 보면 우리는 여태껏 로마서는 바울이 쓴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더디오라는 사람이 썼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더디오란 사람은 바울이 입으로 말한 것을 받아 쓴 사람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더디오란 사람은 사도 바울의 비서(sectary) 또는 대필자(amanuensis)였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22절에 와서는 자기 스스로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마치 로마서 16장 1절에 나오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군이었던 자매 뵈뵈가 바울의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특권을 가졌던 것처럼 더디오는 로마서 편지를 바울 대신 대필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2절에 나오는 바울의 비서 또는 대필자 더디오는 특권을 누린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쓰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인 로마서를 대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디오는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를 대필하는데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기에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저와 여러분이 바울 시대 때 태어나 바울의 비서(대필자)가 되어서 바울의 편지 중 하나를 대필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바울의 말을 받아쓰면서 은혜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로마서에서 바울은 복음이란 주제 아래 말을 하였는데 그 말을 받아쓰면서 내 자신이 은혜를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바울의 비서(대필자)로 사용해 주시사 로마서 편지를 다 쓰게 하시고 그리고 그 로마서 편지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다고 생각할 때 감사와 감격이 충만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글로 써서 교회 홈페이지나 제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 묵상들은 이 메일로 여러 사람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쓰는 말씀 묵상의 글들은 참 많이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며 적어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 나눌 때에 오는 기쁨과 감사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저와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이나 교회 지도자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글로나마 적어 나누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이것이 절대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글이라는 것이 에스더서를 볼 때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말씀 묵상한 것을 글로나마 써서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을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비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넷째로,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나의 식주인’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 여기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식주인 가이오”란 인물은 바울 뿐만 아니라 온 교회를 접대한 사람으로써 아마도 그의 집에서 교회가 모인 것 같습니다 (MacArthur). 그리고 가이오란 사람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역을 할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 중 한 사람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고전1:14) (MacArthur). 또한 가이오는 회당 옆 집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행18:7). 그렇게 되면 그의 전체 이름은 가이오 디도 유스도가 될 것입니다(MacArthur).

저는 이 식주인 가이오를 생각할 때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 중 남을 대접을 잘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과 집을 열어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봉사와 섬김의 은사를 받은 일꾼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란 공동체 안에는 요한삼서 9절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아니 됩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으뜸 되기를 좋아한 사람이었고 또한 형제들을 접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아냈습니다(9, 10절). 이러한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손님 대접하기를 즐거워하는 귀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롬12:13) 우리는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영광을 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던 자들은 ‘내가 있는 시의 재무’였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이 성의 재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서 “에라스도”란 인물은 고린도 성의 재무, 즉 고린도 시의 회계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고린도 시의 중요하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시에서 중요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바울과 함께 주님을 섬겼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생각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 중에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누군가하면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엔이란 여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귀족이 이방인 안디옥 교회를 바울과 함께 섬긴 사실을 생각할 때 바울은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22절에서도 고린도 시의 중요하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에라스도와 함께 주님을 섬긴 것을 보면 참으로 다양한 일꾼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웬지 저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주님을 섬긴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적으로 지위가 높던 말던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겸손하게 섬겨 나아간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섬김입니까?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위가 높고, 교육을 많이 받고, 유명하고 등등 이런 저런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여 말을 하지만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모두는 죄인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우며 교만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히 교회를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할 때 다양한 일꾼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함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섬김일 것입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비록 우리 각자가 다른 은사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또한 세상 적으로 볼 때 지위가 다를지라도 우리는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동역자요 한 영적 가족 식구들로서 거짓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서로 대접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함께 섬김을 통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므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과 함께 팀 사역하는 은혜를 누리,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승리장로교회 목양실에서)

결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하심을 얻은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나누므로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사함을 받았으면 그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고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선물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모두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 빛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 복종(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를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합니다.